



# 전태일 정신의 확장과 연대

## — 2022 전태일노동구술기록 4

김대현 편저

## 전태일 정신의 확장을 위해 싸운 시간들

“엄마는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뚫어놓은 작은 바늘구멍을 자꾸 넓혀서 그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전태일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소선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간절한 유언을 남겼고, 어머니와 친구들은 그 순간부터 약속을 지키려고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노조가 무엇인지, 노동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전태일의 활동을 떠올리며 투쟁을 했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기억과 활동들이 기념관에서 진행되는 노동구술기록사업을 통해 상세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1차 ‘친구들’편과 2차 ‘가족’편 그리고 3차 ‘이소선의 기억과 기록’에서 그 치열한 삶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된 4차 기록에서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활동이 박정희 유신정권의 폭압 상황에서도 조합 내에 머물지 않고 전태일의 정신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던 연대 투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태일의 분신 항거는 학생운동과 종교단체에 노동 현장을 알리는 기폭제가 되었고, 노동자들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부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과 함께 다른 사업장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찾아 나섰습니다.

청계노조의 간부들은 크리스찬아카데미나 가톨릭노동청년회(JOC), 도시산업선교회를 만나 학습도 하면서 연대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조합원들이 야학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자연

스럽게 다른 사업장과 연대를 할 수 있었고, 초기부터 한영섬유나 풍천화섬, 협신피혁과의 연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원풍모방, 동일방직, YH노조 간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함께했던 활동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신정권이 아무리 탄압을 해도 민주노조가 살아남아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끈끈한 연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연대하는 노조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폭압적으로 노조를 해산하고 간부들을 삼청교육대로 보냈지만 노동자들은 전태일 정신 계승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87년 민주화운동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40여 년 전의 활동을 기억하고 기록 작업에 참여해주신 청계노조 간부들과 70민노회 회원들, 그리고 소중한 작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전태일기념관 담당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사진 촬영, 정확한 기록, 책자까지 나오는 과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기록 작업에서는 모진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로 나아가는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이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관장 오동진

## 연대를 잇는 연대를 위하여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이 주관하는 제4차 노동구술기록사업의 주제는 전태일 정신의 확산과 청계피복노동조합(이하 청계노조)의 연대 활동이다. 연대는 한국의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으로 노예노동으로부터 인간 해방을 염원했던 전태일 정신 또한 가장 약한 사람들의 고통에 주목하는 나눔과 연대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전태일 정신에 따라 설립된 청계노조 또한 마찬가지이다. 청계노조는 자본과 결탁한 군사 독재 정권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감으로써 한국 민주노동운동의 시원이 되었다. 주목할 지점은 청계노조의 운동이 노조 내부 구성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투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연대를 통해 개인 및 다른 사회 단체들과 함께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이들의 활동은 노동운동을 넘어 민주화운동 등 다른 사회운동과 결합하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했다는 점에서 근현대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에 있어 연대의 상징이 되었다.

이번에 진행된 제4차 노동구술기록사업은 청계노조 설립을 전후하여 초기의 활동내역과 1970년대 민주 노동운동의 선봉에서 청계노조와 함께 투쟁한 원풍모방노동조합, YH노동조합, 동일방직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및 각 노동조합들 간의 관계, 마지막으로 신군부의 탄압으로 청계노조가 해산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노학연대를 비롯해 합법성 쟁취 투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연대의 양상을 당시 해당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지근거리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육성을 통해 총 5회에 걸쳐 기록하고 있다.

제1부 <청계피복노동조합 연대의 시작>은 전태일의 분신 항거 직후 전태일의 뜻을 이어 이소선과 함께 청계노조의 설립을 주도한 전태일의 친구 최종인, 이승철과, 여성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소모임을 결성하고 의식화, 교육 및 다양한 활동을 주도한 정인숙의 목소리로 청계노조의 설립 과정과 이후의 투쟁 및 연대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전태일의 분신 항거 이후 단지 전태일의 유지를 잇겠다는 마음만 있을 뿐 노동청과 노동조합의 역할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노동운동에 대해 어떠한 경험이나 사전 지식도 없던 사람들이 대학생들을 비롯한 지식인, 종교계 등이 보내준 연대를 바탕으로 기적적으로 민주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연대가 아닌 사적 이익을 매개로 엮힌 사람들을 배제하고 전태일 정신을 중심으로 청계노조를 구축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이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을 중심으로 지식인들과의 학습 연대를 통해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을 인식하는 과정과 이와 별개로 이른바 창동집이라 불리는 이소선의 집에서 청계조합원과 다른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들이 전태일의 삶과 노동자들의 현황을 주요 화제로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연대의 정신을 습득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들이 학습의 측면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연대 투쟁으로 이어지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한영섬유에서 민주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다 회사측의 폭행에 의해 김진수가 중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서 이소선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김진수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동료들에게 투쟁의 방식을 알려주는 한편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나, 초기 청계노조의 주력 활동이었던 체불임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계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넘어 도움을 원하는 다른 지역 노

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과정은 굳이 연대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표방하지 않았더라도 청계노조의 초기부터 나눔과 연대에 기반한 전태일 정신이 내부에 깊숙이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제2부 <청계피복노동조합x원풍모방노동조합 연대>는 긴급조치를 앞세운 박정희 유신 독재와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민주노조 파괴 책동에 마지막까지 맞서 싸운 원풍모방노동조합의 박순희, 양승화와 청계노조에서 활동하며 노동교실 탈환을 위한 9·9투쟁 및 다양한 투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이숙희의 이야기로 원풍모방노동조합의 활동과 다른 민주노동조합과의 연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노동 현장에 투신하였다가 전태일과 이소선의 삶에 영향을 받고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2부의 기록은 사측과 내통한 어용노조의 폐해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퇴직금받기투쟁 위원회를 결성하고 청계노조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 진정서를 보내고 그들의 지지와 연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노조를 설립하게 되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소상히 들려주고 있다. 이어 당시 크리스찬아카데미로 대표되는 지식인, 대학생, 종교인들과의 학습 연대에서 진행된 주요 커리큘럼들의 내용과 강사들을 소개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노동자들과의 교류에 대해 세밀한 부분까지 전해주고 있다. 나아가 학습의 장을 넘어 현장에서 진행된 실질적인 연대 투쟁의 사례로 협신평핵 폐수 처리 시설에서 벌어진 노동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 청계노조와 원풍모방노동조합, 유동우, 박문담 등이 포함된 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를 비롯한 경인 지역의 노동자들이 투쟁에 함께하게 된 과정과 이후 감금, 고문 등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겪은 고초에 대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신군부의 폭압에 의해 민주노동조합들이 해산된 이후 노동운동의 명맥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함께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의 명명에 얹힌 내용과 이후의 노학연대 및 노선투쟁 등에 대해 자신들의 평을 가감 없이 들려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제3부 <청계피복노동조합xYH노동조합 연대>는 “1970년대 노동운동은 ‘전태일’에서 시작해 ‘김경숙’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표현과 같이 일반적인 노동운동의 범주를 넘어 유신 체제의 종말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를 추동한 YH노동조합의 최순영, 권순갑과 전태일의 삶에 공감하여 스스로 청계노조에 찾아와 활동을 하다 신민당사 점거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연대한 청계노조의 최현미가 YH노동조합의 시작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해당 투쟁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증언한다. 산업화가 시작되던 1960, 70년대를 배경으로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여학생들마저도 돈을 벌어드주는 도구로 여겨 감옥과 유사한 환경의 기숙사에 몰아넣고 가혹한 노동 현장으로 유인하는 자본의 탐욕스런 모습이 묘사된 도입부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의 성과에 은폐되어 있던 당시의 시대상이 무엇인지 읽는 이에게 명징하게 보여준다. 이와 함께 앞서와 같은 노동 현장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측에 의해 자행되는 매수와 회유, 좌천과 부당한 노동 지시 등,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다양한 방해의 양상과 이로 인해 끝내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다른 민주노동조합원들이 회사의 입구에서 함께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들려준다. 나아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여타 노동조합과의 교류가 부족했던 YH노동조합이 오히려 견고하게 유지된 사유로, 사측에 포섭되기 쉬운 남성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서 제외하고 크리스찬아카데미와 산업선교회 등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소모임을 구성하여 교육뿐 아니라 여행 등의 일상을 함께하며 YH노동조합의 단결을 이끌어낸 과정에 대해 전한다. 또한 조합원 사이의 이러한 결집력이 박정희 독재정권을 끝장낸 계기가 되는 신민당사 점거투쟁에서 외부로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탈하지 않고 현장에서 투쟁하게 된 동력이었음을 밝히고, 당사 점거 과정에서 있었던 김영삼의 역할 등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과 김경숙의 죽음이 외부의 요인에 의한 것이



라는 의문을 남긴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의 전횡과 횡령으로 YH의 사업이 추락하게 된 내막도 참여자들의 육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제4부 <청계피복노동조합x동일방직노동조합 연대>는 1970년대 민주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노동운동의 장에서도 뿌리 깊은 성차별 의식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초로 여성 지부장을 배출한 동일방직노동조합의 정명자, 최연봉과, 같은 시기 청계노조에서 대의원을 거쳐 부녀부장으로 활동한 이순자의 목소리로 세계 노동운동사에도 거의 유례가 없는 동일방직노동조합의 투쟁 내역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그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운동의 기억을 한 곳에 묻어두고 조용한 삶을 살다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록을 시작하는 4부는 당시 경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산업화의 진정한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히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당시 특별한 요건 없이 마구잡이로 여성 노동자를 모집하던 평화시장 등과 달리 동일방직은 입사 단계에서 체계적인 신체검사를 통해 여성 노동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신장과 체격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는 동일방직에 입사한 여성 노동자들은 남보다 빼어난 외모가 입증된 것이라며 부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면의 진실은 신장은 단지 기계의 크기에 맞추기 위한 것뿐이며 체격은 꺾음이 난무하는 공장에서 경보 선수에 필적하는 1분에 140걸음을 걸어야 하는 과도한 노동을 버틸 수 있을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끔찍한 증언이 그러하다. 이후 민주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한 여성 노동자들이 사측과 결탁한 남성 노동자들을 밀어내고 여성 지부장을 위촉하고 민주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을 향해 인분을 투척하는 이른바 똥물 투척 사건과 공권력이 쳐들어오자 여성 노동자들이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 시위에 이르게 되는 속사정에 대해 가감없이 전달하며 연이은 투쟁 과정에서 청계노조를 비롯한 다른 민주노동조합원들의 연대가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제5부 <전태일·이소선 정신의 확장—밖으로 뻗어 나가기>는 유신 체제의 종말 이후 권력 공백 상태에서 정권을 잡은 신군부의 폭압적 통치로 인해 청계노조가 강제로 해산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던 청계노조의 임현재, 신순애, 나성자의 증언으로 해산을 전후하여 당시 청계노조가 마주한 엄혹한 현실과 해산 이후 다시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대학생, 지식인 등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청계노조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였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5부의 기록은 가장 먼저 박정희 사망 이후 잠시 찾아온 이른바 서울의 봄 시절에 이루어진 빛나는 승리의 체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1971년 설립 이후 10년간 꾸준히 역량을 성장시킨 청계노조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진행된 1980년 4월의 임금투쟁이 30%에 가까운 임금 인상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미만 업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내용이 그러하다. 총 11일간의 농성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투쟁의 양상들과 이름을 남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젊은 조합원들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또한 5월 광주의 비극 이후 더욱 거칠어진 신군부에 의해 청계노조 집행부가 탄압을 받고 청계노조가 불법적으로 해산되는 일련의 과정과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 사무실을 점거하며 일어난 이른바 ‘아프리 사건’의 속사정들도 세세하게 증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 사건의 결과로 청계노조의 주요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수배가 되어 집행부의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대학생들과 노학연대를 통해 합법성 쟁취 투쟁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합법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젊은 조합원들에 대한 감사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진솔한 평가가 수록되어 있다.

번외로 수록된 <청계노조 연대 투쟁의 기록>은 제4차 노동구술기록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에서 상정된 내용은 아니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구술기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들에 대한 보충의 필요성을 느껴 당시 구술기록 현장에 방문한 청계노조 조합원 신광용과 임의로 진행한 구술기록이다. 사전에 정리한 질문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나 협신평혁 연대 투쟁, 9·9사건, 콘트론타타, 반도상사, 원풍, 동일방직 등 1970년대 민주노동조합과의 연대 과정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 등에 대한 귀중한 증언들이 들어 있다. 또한 아프리 사건 이후 청계노조 복구 투쟁과 서노련 참여 과정에 대한 진솔한 평가를 통해 당시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한 조합원들의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제4차 노동구술기록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치열한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몸과 마음을 다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것은 주변의 동지들을 비롯하여 그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라는 점이다. 자신의 차비를 털어 굶고 있는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게 풀빵을 건넨 전태일 정신은 이후 청계노조를 통해 확장되어 노동자와 노동자, 노동자와 대학생, 나아가 노동자와 모든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강고하게 이어질 것만 같던 암흑한 시절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 신자유주의를 통해 가속된 고도화된 자본 시장은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을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 여기게 만든다. 끊임없

이 이어지는 수많은 경쟁들을 통해 파편화된 개인들은 어떠한 연대의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각자의 공간 속에서 고립된다. 현재 사회 갈등의 주된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 세대, 젠더, 지역, 국가, 인종 간의 혐오도 이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제4차 노동구술기록사업의 1차적 목적은 한국의 사회운동사에 기록된 주요한 연대 투쟁의 과정에서 청계노조의 역할 및 영향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의 정서를 극복하고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기도 하다. 제4차 노동구술기록사업에 기록된 연대의 기억을 통해 우리를 비롯한 후속 세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꿈꿀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대현 문학평론가



청계피복노조 연극 공연 '우리 다시 일어서는 날', 전태일기념관, 1984.

사회 전순옥  
장소 전태일기념관 2층 올림터

---

## 차례

---

인사말

책머리에

1부 청계피복노동조합 연대의 시작(인터뷰 1회차: 최종인, 이승철, 정인숙)

2부 청계피복노동조합 x 원풍모방노동조합 연대(인터뷰 2회차: 박순희, 양  
승화, 이숙희)

3부 청계피복노동조합 x YH노동조합 연대(인터뷰 3회차: 최순영, 권순갑, 최  
현미)

4부 청계피복노동조합 x 동일방직노동조합 연대(인터뷰 4회차: 정명자, 최  
연봉, 이순자)

5부 전태일·이소선 정신의 확장(인터뷰 5회차: 임현재, 신순애, 나성자)

변의 청계노조 연대 투쟁의 기록(인터뷰: 신광용)

# 1부

## 청계피복노동조합 연대의 시작

인터뷰 1회차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14:00



왼쪽부터 이승철, 전순옥, 정인숙, 최종인

“우리 노조 간부들, 그때 여덟 분이 다 전태일 열사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싸우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저는 굉장히 기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조직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 1. 전태일의 장례식과 노조 설립

**사회자** 안녕하세요. 전태일기념관은 한국 민주노동운동의 거대한 뿌리가 된 전태일 열사의 정신과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모되지 않도록 이를 기록하고 후대에 널리 전하기 위하여 연속 노동구술기록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제4차 노동구술기록사업은 청계노조와 그 구성원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연대의 정신을 이어가고 전태일 정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해당 활동에 관련한 분들의 육성을 통해 총 5회에 걸쳐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운동사에 기록된 주요한 연대 투쟁 과정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청계노조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해 발굴하고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한국 현대 노동운동 및 민주화운동의 미시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노동구술기록사업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사이의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한국 민주노동조합의 기초부터 전태일 정신을 바탕으로 이소선 어머니와 함께 연대 활동의 씨앗을 뿌린 전태일의 친구 최종인 선배님, 이승철 선배님, 그리고 정인숙 선배님을 모시고 초기 청계노조 설립 및 노동운동 과정에서의 주요한 연대 활동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인터뷰 진행을 하기에 앞서 간단한 소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인터뷰라고 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잊혀가는 기억들을 서로 상

기하는 자리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종인 선배님부터 본인 소개를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인** 저는 전태일의 친구이고 이전까지는 노동조합을 전혀 몰랐어요. 노동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다만 태일이 죽은 뒤에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태일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한 거죠. 그러다 이소선 어머니가 나서서 장례식을 연기하고, 노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에 대해 알고 있는 사회 인사들과 함께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설립 당시 한국노총에서 지도해서 청계피복지부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저와 친구들은 노동조합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태일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 오직 이 생각 하나로 노동조합운동을 했지 노동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철 선배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승철** 저는 삼동친목회에서 서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전태일 열사는 1970년 9월, 이전에 결성한 노동운동조직인 '바보회'를 발전시켜 삼동친목회를 조직했다. 이를 통해 노동 실태를 조사해 노동청에 제출하거나 근로기준법 화형 행사를 치르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_편집자 주) 삼동친목회 활동을 하다 전태일이 죽었을 때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같이 힘을 썼고 그 이후 한 10년 동안 청계노조에 있었던 이승철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숙 선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인숙** 저는 그 당시 서울에 있는 가톨릭노동청년회(JOC)에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의식화가 됐었어요. 당시 고려대학교에 노동문제연구소가 있었는데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노동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노동조합이 정말 필요한 조직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때 전태일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연동교회 같은 곳에 가서 이소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청계노조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JOC 전국 회장인 윤순녀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소선 어머니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계노조에 가서 활동할 사람을 우리 회원 중에 찾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언니에게 저를 거기 보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일단 이소선 어머니 한번 만나 뵙자고 해서 그 언니가 저를 데리고 평화시장 4층 옥상에 있는 청계노조 사무실에 가서 어머니랑 간부들을 다 같이 만났어요. 그게 71년도 3월인지 4월인지, 하여간 그때 5월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다고 하셨어요. 여기 평화시장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80% 정도로 워낙 많으니까 부녀부장으로 와서 같이 일을 해보자 하시면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청계노조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긴 했지만 노동자들이 뭉쳐서 투쟁하면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는 진짜 얼마나 외로우면 이렇게 목숨을 바쳤을까, 이제 우리는 살아 있으니까 목숨을 바친 그분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서 운동을 끝까지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2. 청계노조 설립 초기의 대외 연대

**사회자** 감사합니다. 저는 4차 노동구술기록사업 사회를 맡은 전순옥입니다. 모든 소개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배님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초기 청계노조의 연대 활동, 연대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 항거 이후 이소선 어머니와 친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청계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당시 여건을 살펴볼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계노조 설립 후의 상황은 처음 생각과는 상당히 달랐는데요. 노동조합 운영이 무척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비를 받을 수도 없고 조합원들이 가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조합은 만들어놓았지만 조합원들이 조합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상근을 해도 월급을 받지 못해 전혀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노동조합의 운영비도 없었죠. 먹고살고 운영하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의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고 운영을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많은 분들이 청계노조와 연대를 해주셨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부분은 물론 교육 학습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도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아카데미나 JOC, 도시산업선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등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노조 설립 이후의 이야기들을 지금 기억이 나시는 대로 한 분씩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학습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 배경 및 조합원 모집 등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학습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선배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승철**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연대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것은 연대 투쟁이고 또 어떤 것은 연대냐? 이런 것들이 사실 구분하기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회자가 이야기했듯이 청계노조가 결성되게 된 것은 아주 기적적입니다. 당시 상황과 그 다음 우리가 노조를 설립했을 때 상황들을 잠깐 얘기할게요.

그때 청계천에는 사용주들이 약 2,000명이 넘게 있고 노동자가 한 2만 7,000명 정도 있다고 태일이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71년도에 우리가 조사하니까 업체들이 많이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약 800개 업체에 1만 5,000명 정도 근로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66년도에 전국섬유노동조합에서 평화시장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박정근 씨하고 김부기 씨라고, 그분들이 만들었는데 3일 만에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악했던 거죠. 또 한 공장에 많아야 몇십 명, 아니면 열댓 명이고, 게다가 그 안에는 사장 처제도 있고 처남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하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걸 할 수가 없죠. 또 노동조합과 노동법을 전혀 모르니까 설립 시도가 없었죠.

전태일이 분신하기 전에 우리가 삼동친목회를 하고 있을 때 황종옥, 양태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태일이 장례위원회에도 있었는데. 여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나이가 많으니까 선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70년 10월 6일, 당시 평화시장 실태가 신문에 나니까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한 이틀인가 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노동조합을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노조를 만드는 데 너희들이 협조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해야 하나 생각하다 내가 태일이한테 그러면 네가 대표로 가서 만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에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협조하면 어느 한 곳에 책임자 자리를 준다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분회장이지. 그때는 지부이고. 우리가 다 해봤는데 자기들이 대장을 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데 준다 그러는 거

지. 그래서 내가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결렬을 시켰어요.

그런데 장례식 때부터 그 사람들이 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공장장이고 이래. 좀 큰 데 사장님 동생이고. 그런데 장례위원회에도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노조 설립할 때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임원 선출을 할 때도 별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회계 감사로 선출이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

어쨌든 가칭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죠. 명칭을 전국연합노조 산하에 청계피복지부로 했어요. 청계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나중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산별노조로 가기 위해서. 그때 17개 산별노조가 있었을 건데, 섬유노련으로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니까. 그런데 연합노조는 느슨한 상태라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해서 연합노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노총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일이 장례를 18일에 치렀잖아요. 그 다음인 19일에 동화상가와 평화시장 옥상에 사무실을 해줬는데 20일에 가니까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뺏긴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을지로의 여관에서 이놈들이 사무실을 준다고 하고 뒤로 사기를 쳤으니까 그래서 국회에 농성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때 서울시청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간다고 하면서 러닝셔츠에 전태일을 살려라, 한국노총을 규탄한다 이런 문구들을 쓰고 그 위에 겹옷을 입은 거죠. 그러다 경찰들이 와서 우리가 전부는 가지 못 하고 김태원 씨가 국회에 간 걸로 알아요.

**사회자**      노조 설립하기 전이죠?

**이승철**      네. 이전이죠.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어진 다음에 어머니랑 우리가 다 가기로 했는데 경찰에 붙들려서 못갔어요. 그때 태원이하고 누가 국회에 갔어요. 거기서 좀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무실을



줬어요. 동화시장하고 평화시장. 그래서 가칭 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장이 최종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3일이 된 거예요. 그날 모두 모여서 누구를 지부장으로 할 것인가 결정할 테니까 오라는 거야. 나는 그때 유일하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김영문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김영문은 그때 참여를 안 했고. 그래서 점심 시간에 내가 작업복을 입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최종인이 옥상 난간에서 이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태종, 이 사람들이 지부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부장을 하면 안 되니까 네가 김성길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했죠.

이제 회의를 시작했는데 최종인이 누구를 지부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태일은 영리를 목적으로 죽지 않았으니까 제일 적합한 사람은 김성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최종인이 다른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그럼 지부장은 김성길이라고 땅땅 치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병찜지. 또 다른 사람들을 우와! 하고. 거기에 친구들이 조금 있었으니까. 신진철도 있고, 양승조도 여기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형수씨의 조카거든. 그런데 개가 그때 놀고 있어서 여기에 와 있었고. 그래서 다들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이제 27일에 대의원대회를 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없는 거예요. 내가 『청계 내 청춘』 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공장의 근로자 수가 13이야. 나까지 14명.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갔어. 거기서 내가 재단 일을 한 6개월 했어, 겨울예요. 그런데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사장 처남이 미군 사령관 운전사였어. 사장이 자기 처남한테 이번에는 청계노조가 된다고 그랬는가 봐. 깨지지 않고 될 거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당시 칼로 재단을 했거든. 그런데 이 양반이 20일인가 21일쯤에 재단기를 사다 주며 “아저씨 빨리 잘라놓고 올라가

서 일 보세요” 그래서 내가 활동을 좀 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날 27일에 좀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오후에는 일하지 말고 데리고 가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데리고 갔어요. 여기는 대의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모인 53명이 몽땅 다 한 사람들이야. 양승조도 거기에 있었고. 당시 사업보고서에 보면 대의원 이름 56명이 찍 나와요. 그러니까 최종인이 나오고 신진철이 나오고 양승조도 나와요. 우리 공장 재단 보좌라고 가입서를 써서 넣었으니까. 그래서 대의원대회를 하는데 저쪽에 황종옥, 양태종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 먹으려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싸움이 났는데 한국노총 조직국장이 유도가 5단이야. 그 사람이 사회를 보다가 우리와 하나가 돼서 싸우고 그 사람들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거예요.

**사회자**      그 당시 김성길?

**이승철**      김성길이 한국노총의 국제부 차장인데 그 분을 만나게 된 것은 최종인 씨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간 이야기를 하면, 태일이가 분신한 요일이 금요일인 것 같아요. 최종인이 그날 2차로 혈서를 쓰다가 붙잡혀 갔어. 조병석이라는 애하고 둘이서. 그래서 토요일에 파출소에서 나온 다음 와서 우리하고 자고. 그러다 일요일에 쉬니까 그럼, 성모병원에 가자 그래서 내가 이소선 어머니를 처음 만났고.

**사회자**      그래서 초대 지부장은 어땠죠?

**최종인**      초대 지부장 김성길은 한국노조 국제부 차장이었어요. 집이 평화시장 바로 앞인 종로 5가야. 그러니까 평화시장 실태를 너무 잘 아

는 거예요. 그래서 13일, 태일이 분신이 있던 날에 평화시장 사건이 라디오에 나오고 제가 파출소에 연행되어 있으니까 녹음기 하나 들고 파출소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투쟁을 했다, 그리고 우리 친구 재단사가 수천 명인데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투쟁할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성길이 돌아가서 녹음을 들어보니까 조직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안 거죠. 엄청나게 많은 재단사들이 또 단결이 되어 있고.

**이승철** 200명이라고 했다면서.

**최종인** 그래서 김성길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이후 한국노총이 김성길을 우리에게 파견해서 노조 설립 과정 이런 것들을 직접 교육시키고 이야기를 해서 노조가 설립된 거예요.

**이승철** 지금 이야기가 조금 빠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도 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입도 크고 아주 잘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이 평화시장 건너편에 사니까 항상 관심은 있었지. 그때는 조직으로 본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최종인과 조병석이 데모했다고 약식으로 오천 원씩 벌금을 맞은 거야. 그래서 김성길이 한국노총 돈으로 둘을 빼준 거예요. 그 토요일에. 그래서 김성길과 인연이 됐고.

그러다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려 하니까 우리가 전혀 경험이 없잖아요. 한국노총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우리는 노동청과 노동조합도 구분을 못 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어머니도 노동조합을 전혀 모르시지. 그런데 장기표나 이런 사람들이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장례 요구 조건 8개 항목 중에 노동조합 결성 지원을 넣고 그래서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김성길을 지부장으로 하자고 그런 거예요.



최종인

“태일이가 죽은 뒤에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태일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한 거죠.”

**최종인** 그러니까 당시 김성길씨 우리들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전태일 친구들의 지도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믿고 따랐고 또 친구들도 그 사람을 다 따랐어요. 어머니도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났어.

**사회자** 밤에 바깥에서 만났다고 하셨어요.

**최종인** 어머니하고 저녁에 밖에서 자주 만나고 그 사람을 신뢰를 하게 된 거야. 그 사람 나이가 그때 30대 미만이었어요.

**사회자**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젊음의 열기가 우리하고 똑같은…….

**이승철** 그 사람들 20대 후반이었지.

**최종인** 열기가 있었고. 학생회장, 학생운동을 했고 하니까 사상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려. 20대였을 거야.

**사회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렇게 열정적이라 하더라도 한국노총에서 그 사람이 국제부 차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청계노조에 가서 지부장을 하라는 것은 한국노총의 어떤 조직적인 결정이 없이는 안 났을 것 같은데요.

**최종인** 그 사람이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평화시장에 조직이 많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2만여 명이 되는 대단한 조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노조 계통에 있기 때문에 이 2만 명의 조직을 이용해서

뭔가 하겠다는 대단한 꿈을 가졌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꿈을 얘기하는데 평화시장 전체를 복지센터로 만들겠다, 평화시장에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 복지의원 그다음에 오락시설 등 옥상 전체를 복지센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한 거예요. 이것을 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하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노조에 와서 보니까 정부 기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외면하는 상황이니까 포기를 하고 간 거죠.

**이승철** 알아두어야 할 것은 김성길 씨는 한국노총에 출입하는 보안사 직원 사촌 동생이야. 지금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의식이 있어서 국제부 차장을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직업으로 가 있었던 거고. 지금 사회자가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이 한국노총에 오는 것은 정부의 방침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왔어요. 조금 전에 옥상에 복지센터를 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랑 약간 달라요. 그때 동화시장하고 평화시장 사이에 한 5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었어요. 2층까지만 지어졌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한 층은 병원, 한 층은 다른 걸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왔지.

**사회자**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김성길, 그분도 그렇고 정부 조직도 그렇고, 전태일 장례식을 하면서 한국노총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종인** 아, 그때 한국노총 위원장이 장례위원장이었어요.

**사회자** 그렇게 된 거죠. 그때 배동호.

**이승철** 아니 최용수. 그다음에 봄에 이제 이 사람이 전국 공화

당......

**최종인** 그다음 봄에 이 사람이 공화당 전국구 의원을 했고 그다음에 그 국제부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부녀부장, 조직부장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도왔어요.

**사회자** 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군부독재 박정희 정권 하에서 한국노총이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받고 있는데, 만약 청계노조가 이런 식으로 폭발하고 터져 나오면 박정희 정권 산업화 정책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을 통해서 이쪽을 컨트롤해서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을까요?

**최종인** 그런 내용은 우리는 모르고. 당시 중앙정보부가 있었는데, 중앙정보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한국노총의 모든 실태를 감시 감독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청계노조를 조용하게 할 방법의 일환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승철** 그때는 몰랐지만 한국노총이라는 게, 사실 해방 이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그 조직을 깨뜨리려고 만든 어용단체가 한국노총인데요. 거기 김두한과 그 세력들이 한국노총을 잡았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한국노총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전평을 다 때려 부숴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은 중앙정부와 같은 정부 조직이고. 그들이 우리한테 온 것은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특별히 지원해줄 테니 네가 가서 조이고 애들 좀 잠잠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온 걸로 생각이 들어요.

**사회자**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인 예측.

**최종인** 71년도 4월에 대통령 선거였나? 그러니까 당시 71년도 4월에 대통령 선거에 김대중 씨가 엄청나게 전태일 사건에 대해 연설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김대중 씨한테 우리가 면담 요청을 했죠. 친구들 몇 사람하고 어머니하고. 면담을 할 때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투쟁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당시 정권이 볼 때 김대중이 떠돌고 다니지, 우리가 마구 활동하지 그러니까 우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그러니까 말썽 없이만 노조를 이끌고 나가라는 그런 역할을 한국 노총이.

**사회자** 한국노총에 맡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지식인들, 학생들, 사회가 전태일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에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 과정에서 청계노조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을 할 수 있었고 또 상당히 조직력을 확보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예컨대 초기에 JOC나 크리스찬아카데미, 그리고 산업선교회 이런 곳에서 종교인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류를 했던.

**최종인** 이걸 한마디로 우리 노조의 상근 간부들이 순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를 도와준 사람은 다 너무 감사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밖에서 이용을 하고 자기 단체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산업선교회라든지 외국에 지원을 요청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우리를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우리 청계노조 간부들은 우리를 도와준 모든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 이외에는 가져본 적이 없고 의심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과 사회단체들, 도시산업선교회 나 JOC, 교회 단체 이런 곳에서 여기에 집중해서 교육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기안용지

결재년월일	종의	제	호	첨	관	부	보	준	별	중
11. 9. 28	발	송	제	274	호					
시행년월일	접	수	년	월	일	경	서	대	조	기
11. 9. 28	기	안	11	9	월	28	일			
지	부	장	사	부	장	부	장	기	안	자
정	수	신	영	등	포	도	시	산	업	선
참	조									교
제	목	교육 실시 후원 협조 의뢰								
① 이해도 동안기에 접어든 요즘 께 있선에서 추모하시온 귀 산업선교회 여러 선생님께 제삼 감사를 표하나이다.										
② 저희 지부는 1년 여약한 환경에서도 모르지 여러 선생님들의 열려와 협조로 더불어 미량에 발전량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③ 저희 지부에서는 9월 10일부터 조합원들의 교육이 시점한바 원정정념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바입니다. 이는 재정적인 여건이 맞지않아 귀 선교회 후원으로 하기에 완한 환경이것 이제보다 리장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저부

영등포 도시산업 선교회 수신 청계피복노조 교육 후원 협조 의뢰 공문, 전태일재단, 1971.

### 3. 지식인, 종교 단체와의 학습 연대

**사회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계노조와 사회 각 공동체, 다른 노동조합들과의 연대 같은 것에 포커스를 맞춰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척박한 노동운동의 시작 과정에서 그래도 외부의 지원과 연대가 있었다는 점. 정인숙 선배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해주시죠.

**정인숙** 저는 그 당시 연대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연대가 아니었고.

**사회자** 지원?

**정인숙** 지원도 아니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의식화가 돼서 노동조합운동은 너무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평화시장으로 가서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종교단체들, 그때 크리스찬아카데미나 도시산업선교회, 우리 JOC 같은 경우도 50년도부터 시작은 했지만 원래 노동자 중심이 아니었어요. 우리 단체도 완전히 하이클래스 중심으로 운동을 했고. 그래서 노동운동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 제가 청계노조에 가서 노조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착취 당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노동자들이 의식화가 되어 스스로 단결해서 노동자들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우리 단체는 다 노동자들이었어요. 성직자나 외부의 잘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깨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은 노동자의 상황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강했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아카데미는 강원용 목사님이 그때 노동 사회교육, 농촌 사회교육, 여성 사회교육, 학생 사회교육 이렇게 워낙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당시 커리큘럼은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종교 5개 분과로 이뤄졌다. \_편집자 주)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교육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아 교육을 하셨어요. 거기서 받은 간부들 교육이 좋으니까 개별적으로도 가서 교육을 받았던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한국의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외국에 알려서 지원을 받아 그런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도시산업선교회도 목사님들 몇 분이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비참하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운동이 시작됐던 거예요. 교회운동도.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연대를 했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분들은 그분들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좋게 얘기하면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었고, 조금 더 안 좋게 생각하면 이용했던 점도 있고 그랬던 것 같다는. 그냥 지금 제 생각이구요.

하여튼 저는 나름 개별적으로 조금 의식화가 됐기 때문에 오로지 청계노조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어떻게 조합을 중심으로 의식화돼서 단결하고 그 힘으로 투쟁해서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많이 있었구요.

그리고 우리 노조 간부들, 그때 여덟 분이 다 전태일 열사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싸우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저는 굉장히 기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조직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사회자**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 단체들에 대해서인데. 개신교나 천주교 이런 종교 단체에서 전태일 사건 이후로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정인숙** 아마도 그전에는 사실 민주노조의 역사가 없었다고 봐요.

**사회자**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은 없었는데, 전태일 사건과 청계노조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알게 된 거죠.

**정인숙** 민주노동운동의 출발이 된 거죠.

**사회자** 노동자들에 대한 참혹한 현실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 크리스찬아카데미나, 도시산업선교회, JOC 이런 곳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민주노동운동이 정부에 회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전태일 정신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최종인** 그건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짰 게 아니고 노조에서 이런 교육을 하겠다 해서 산업선교회에 지원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거예요. 당시에 산업선교회 계통에서 제일 많이 지원한 분이 조승혁 목사라고 있어요. 당시 종로 5가에 산업선교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무를 보고 있는 분이 조영래 변호사 처제인 이미경 씨였어요. 대학을 나온 뒤 거기에 있었는데 저는 이미경 씨하고 자주 만났어요.

**사회자** 나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죠.

**최종인** 네. 그리고 조화순 목사. 영등포산업선교회는 그 양반이 투쟁적이에요. 평화시장에 그 양반이 딱 뜬다면 정보국에 다 듭니다.

**정인숙** 인천산업선교회.

**최종인** 하여튼 조화순 목사가 평화시장에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온 다음은 그냥 정보기관이 전부 떠요. 그만큼 우리가 그 양반들을 배경으로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을 덜 받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조화순 목사 교육 프로그램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산업선교회 조승혁 목사 같은 경우는, 조승혁 목사와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예산을 가져와서 지원해 주나 물었더니 그 당시 독일 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화시장 교육 프로젝트를 아예 정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따서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사회자** 그러면 청계노조에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짰나요?

**최종인** 조합원 의식화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건 부녀부장(정인숙)이 이야기하세요.(웃음)

**사회자**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승철**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조금 두서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차분차분하게 안돼. 크리스찬아카데미가 평화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창기는 아니었어요. 75년 무렵부터 중간집단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했고.

우리가 했던 것은 이제 경수산업선교회에 황효남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도 많은 지원을 했어. 우리가 뒤로 많이 만났어요. 예를 들면 이숙희 씨나 김혜숙 씨나. 그러니까 정인숙 씨 오기 전에 이미 아는. 아니 정인숙 씨와

있을 때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돈보스코센터, 거기를 우리가 많이 이용했죠. 도요안 신부님. 거기를 많이 갔고.

그리고 우리는 남자들이잖아요. 김명례 씨라고 그분이 그 창동 이소선 어머니 집 바로 밑에 사는 미싱사였는데, 태일이 분신 사건 때문에 와서 부녀부장을 시켰는데 월급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집이 가난해서 살 수 없으니까 그만두고. 그러다 이제 정인숙 씨가 오월에 와서, 아까 기록을 보니까 5월 17일이더라고. 그래도 그때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전임자 임금을 1만 5천 원 줄 때예요. 그러니까 70년 12월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있을 때 우리 친구들 한 20명 가까이 거기 근무를 했어. 나는 직장에 있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월급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친구들이 다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안 남았어. 거기 남은 게 신진철, 양승조 해서 몇 사람 남아있는데 최종인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 나에게 너도 와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71년 2월부터 월급 3만 5천 원 받던 거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창동 어머니 집에서 살았어. 그 과정에서 장기표 씨를 집중적으로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확 바뀌었죠. 태일이가 죽었을 때는 아, 괜히 우리가 태일이를 회장을 시켜서 그 책임감으로 죽었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고. 그래서 70년 11월 15일에 성모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왔을 때 신기호 씨가 나를 보고 너희들이 회장을 시켰으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랬어요.

그러다 27일에 노조를 결성하고 그다음 일요일인가 창동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태일이가 쓴 일기를 봤어. 그때 아, 정말 이 사람은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했구나. 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여튼 그 당시 주로 초창기는 거의 산업선교회 쪽에서 지원을 했고, 크리스찬아카데미는 75년 말부터 중간집단 교육할 때부터 했지. 크리스찬아카데미는 우리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 다만, 하나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태일이가 죽었을 때 개신교 쪽에서 자살은 죄다. 그래서 배척을 한 교회도 있



이승철

“태일이가 쓴 일기를 봤어. 그때 아, 정말 이 사람은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했구나. 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고. 또 조승혁 목사나 김동환 목사 같은 신식 목사들, 진보적인 목사들은 그의 죽음을 예수와 같은 행동이다 이래서 도왔어요. 그런데 노조에 이제 돈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헌금을 가져와서 그 돈으로 라면 몇 개라도 사서 먹으면서 운동을 했었다는 거죠.

**사회자** 초창기에 그렇게 했었죠.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가 바깥으로부터의 지원이나 연대를 받았다고 보고요. 산업선교회나 다른 종교 단체들의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그런 지원들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고 또 나중에는 그런 걸 통해서 청계노조가 다른 민주노동조합의 태생을 지원하고 또 투쟁하는 곳에 같이 연대한 이런 상황들인데요.

어쨌든 JOC가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단체는 아니고 노동자의 의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인숙 선배님이 JOC를 통해서 청계노조에 오게 됐고 노동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단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주세요.

**정인숙**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그때 우리 노동자들이 의식이 돼서 뭉쳐야 된다는 생각만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생들 중에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 개별적으로도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종교 단체 목사님들이나 지식인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와서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좋은 얘기를 제가 듣는 거는 괜찮은데, 그분들이 웬지 우리 조직하고 이렇게 관련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사회자** 어떤 면에서요?

**정인숙** 두려움도 있고. 현장을 모르면서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

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때 제 의식으로는 그게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산업선교회와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것이, 거기 목사님들은 현장에서 노동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다 공부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너희들 단결해서 투쟁해야 된다, 계속 투쟁 투쟁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노동자들이 의식이 된 사람들이 뭉치지 않고 투쟁하면 개별적으로 다 탄압받아 이 조직은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운동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외부 사람들이 우리 노동조합에 관여하고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싫어서. 장기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한테 굉장히 영향도 많이 주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을 만난 것이 거의 청계노조 끝날 무렵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개별적으로 친한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좀 안 좋아했고. 하여튼 우리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스스로 지도자가 되지 않는 한 조직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외부의 교육 지원을 받을 경우는 그 당시 노동조합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주로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법을. 또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당시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다 보면 노동자들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소모임을 했죠.

**사회자** 우리가 스스로 의식을 깨치기 위해 사회 문제를 좀 더 공부하고 그런 거겠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연대 활동들에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향후 청계노조가 바깥으로 함께 연대하자는 이런 활동들에 영

향을 미치고.

아까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연대나 지원이나 이 개념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또 사회에 청계노조가 미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고 죽어갈 때, 또 다른 노조들이 민주노조를 만들려 할 때 청계노조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함께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함께했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승철** 그러니까 어디에 노동자들이 죽었다, 또 학생이 항의하다가 죽었다, 이런 데는 어머니가 안 가시는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 의식 있는 목사들을 만나고 투쟁적인 학생들을 만나고 한 우리 조합원들이 몇 명씩 어머니를 따라가서 바람을 불어넣고 한 이런 연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정인숙 씨가 지금 이야기를 솔직하게 잘하네.

처음에 JOC 회장 했던 이창복 씨. 내가 71년 2월인가 3월에 상근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서 잘 알아요. 그때도 JOC가 정인숙 씨 오기 전까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지원해 준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인숙 씨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임이 있었고 우리 소모임들을 간부들이 다 좀 관리를 했거든요. 나는 크로바클럽이라고 했는데 조합원들을 의식화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시켰어요. 투쟁적인 사람들. 그러다 보니 이숙희 씨라든지, 이순자 씨랑 다들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사회에 유신헌법이 있을 때인데 우리가 애쓰고 만든 그 교실을 뺐졌어요. 그게 73년도 5월이에요. 정인숙 씨는 장기표 씨 안 만났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은 살아 있는 조

직이 없어서 뺐졌다, 그런 내용이 외부에서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했는데 사실 그 무시무시한 세계에 농성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73년도에 교실 뺐기고 나서 이숙희, 김혜숙 씨 같은 사람들은 조승혁 목사, 그리고 이해경 씨도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토론한 걸로 내가 알아. 그래서 75년 2월인가? 2월 7일인가 그때 한 200여 명이 노동교실을 뺐는 농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뺐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쟁을 하고 농성을 하면 뺐을 수 있다 그런 게 있는데, JOC 회원들은 정인숙 씨가 말한 대로 계속 의식화만 하려고 해요. 그 이후에 JOC 회원들이 농성이고 뭐고 참여를 한 명도 안 했어. 그 이후에 그만두고 이제까지 추도식도 한 번도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의식만 발전한 게 좋은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더 투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말하는 행동하는 양심이라 하거든. 양심은 행동을 했을 때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 같은 많은 투쟁자들은 가서 징역도 살고 많은 핍박을 받았죠. 참새가 죽어도 짹 소리는 하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신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그들을 데리고 여러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설치면서 마치 가족같이 함께 행동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연대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때 우리 간부들은 이런 게 있어요. 간부들과 행동하는 조합원들하고는 하나의 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73년도 노동교실 개관할 때 우리가 쫓겨나는 걸 봤거든. 노동조합은 1년에 한 번씩 행정관청의 감사를 받아야 해. 그때 잘못하면 해산 명령도 내릴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조합 중심으로 많이 했죠. 그런데 그 행동하는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다 보니까 그 교실을 뺐은 거야. 이게 75년도부터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을 가서 보고 듣고 이러다 보니까 투쟁적으로 그 단체가 변해가는데. 그런데 아까 정인숙 씨가 이야

기했듯이 조직이 사실은 부실했어. 동원해봐야 200명 동원이 안 돼. 내가 그만둘 무렵이었는데 김 씨 재단사라고 김세균 씨가 겨울에 우리 교실에 와서 3개월 동안 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둘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한 공장에 3명 정도씩 조직은 해야 500명이 동원될 수 있다, 1만 명 된다는 조합에서 200명도 안 되면 되는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찌 됐든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연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연대의 중심이 어머니 집이었어. 내가 1기도 갔고 2차도 갔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때 아는 사람들이 창동에 가서 자고 가면 거의 그쪽에 노동조합이 활발해졌으니까. ‘콘트롤데이터’도 그렇고, 많은 곳이 왔었어요, 그때.

**사회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든 투쟁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먼저 스스로 의식을 하느냐 방법론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행동하는 노동조합원들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청계노조가 대한민국에서 민주노조를 설립하는데 있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투쟁을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도 학습을 통해서 의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승철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동 집에 모여서 밤새는 일이 뭐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승철** 거의 매일이죠.

**사회자** 알게 모르게 청계노조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민주노조를 만들었던 지도급 리더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이승철** 많이 왔죠. 그러니까 원풍모방이든가? 거기 장춘자라는 분도 간부였어. 그분도 와서 자고 가고, 콘트롤데이터에 있는 몇 사람도 자고 가고. 또 동일방직에 있던 사람들도 와서 자고. 그러면 그들이 어머니하고 우리들, 우리 조합원들하고 털어놓고 얘기하면 이런 세계가 있는지를 처음 알아요. 쉽게 말해 나중에 엄청난 투쟁가가 된 이필남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전태일 이야기만 하면 ‘저 사람 빨갱이인가?’ 그랬다는 거야. 그렇잖아, 아카데미 교회 가서 교육을 받고 밤에 이야기하는데. 이필남 씨가 얼마나 술을 잘 먹나, 밤을 새우면서도 술을 먹어. 난 같이 이야기하다 아주 질린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투사가 되고, 지금도 만나면 무지하게 반가워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 이승철 씨 간첩인 줄 알았어. 하도 전태일, 전태일 해서” 그러니까.

**사회자** 그런 게 다 연대로 봐야 되는 거죠.

**이승철** 그러겠지 뭐.

**사회자** 75년 이후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연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지금 이승철 선배님 말씀대로 창동 집에 모여서 이소선 어머니, 청계노조 지도부와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토론을 하면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또 일어나고.

**이승철**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들으면 앞장섰다고.

#### 4. 한영섬유 연대 투쟁

**사회자** 또 그러면 거기 가서 투쟁 지원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

었다는 건데요. 그 당시 이소선 어머니가 많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모사가 잦아야 공사를 이룬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걸로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동지는 작은 방이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비비면서 한술밥을 먹어야 우리가 같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배경 아래에서 이승철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토론이나 일들이 창동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연대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전태일 분신 항거 이후에 청계노조가 설립되고 이를 계기로 곳곳에서 민주노조 설립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과도 많이 있었지만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났었죠. 예를 들어서 한영섬유에서 노조 설립을 주도하다 사측의 폭력에 의해 사망을 한 김진수 노동자 사건도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사건 이후에 노조가 설립되지는 못했지만 당시 청계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성명서 발표도 하고 또 이소선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농성을 하는 등 어떻게 보면 한영섬유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연대하여 투쟁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승철 선배님, 그리고 최종인 선배님께서 당시에 노조 간부로 함께 참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죠.

**이승철** 그때 최종인하고 내가 창동 어머니 집에 살았죠, 사건이 났을 때 장 형(장기표)이 집에 왔어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그때는 TV도 없으니까 그런 소식을 잘 알 수 없었죠. 우리는 노조 간부 하면서 그저 월급 받아 주고 어떻게든 조합원 한 사람이라도 늘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라 외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상태가 아니었죠.

그런데 한영섬유 거기에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사대, 노조를 깨려고 하는 구사대들이 김진수 그 사람한테 노조를 탈퇴해라 그러니

까 그 사람이 나는 탈퇴를 못 하겠다 하니까 11일에 드라이버로 머리를 찌른 거죠. 그렇게 쓰러져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있으니까 장 형이 두 친구하고 어머니가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날 찾아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환자는 코에 호스 꽂고 침대 위에 누워 있고 그 밑에서 어머니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깨운 다음에 우리는 누구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 게 뭐겠어. 어쨌든 왜 이렇게 있냐 물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준대. 누가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게 없으니까 안 해줘. 그래서 셋이 난리를 쳤지. 빨리 가서 하라고. 그래서 이소선 어머니가 김진수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장한테 쫓아가고, 우리는 밖에서 도대체 사람이 죽게 생겼으면 치료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난리를 쳐서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마침 우리 나이 또래 되는 김진수 친구들에게서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왔어. 그때 기록을 보니까 임현재가 있던데 지금 그건 기억이 잘 안 나. 하여튼 우리가 그 친구들과 만나서 너희들이 한국노총에 가서 항의를 해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나 묻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꼭 70년 11월 22일에 했듯이 속옷에다 김진수를 살려내라, 한국노총을 어찌해라 쓴 다음 위에 겹옷을 입고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사무총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실이 있다고. 거기 들어가서 위원장님을 만나러 왔다 해라, 그렇게 보냈어. 그렇게 가서 항의를 하고 안 되면 거기서 농성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 친구들도 젊으니까 거기를 갔나 봐.

그런데 그때 거기 누가 있었냐면 서울대 법대랑 법대 대학원을 나온 이영희 교수라고 있었어요. 나중에 노동부 장관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돌아가시고 없어요. 하여튼 그분이 우리하고 인연이 좀 있어서 70년 12월 22일 우리가 농성하는 데 같이 있다가 그 양반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법관이 될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거기 한국노총에 들어갔어. 무슨 조사부인지 하여튼 차장 인가로 갔어요. 당시 한국노총이 명동에 미

도파백화점, 그러니까 지금 그 롯데 본점 근방에 있었던 것 같아. 거기에 그 양반이 있었는데 8명이 쑥 들어오더라요. 그러더니 위원장 만나러 왔다, 그랬다네요. 정중하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또 너희들 뭐냐, 어찌냐, 해서 거기서 싸움이 붙은 거야. 사무실이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사무총장실, 거기서 또 들어가야 위원장실인데. 그전에 붙으니까 그 친구들이 기물을 모조리 다 깬 거야. 그리고 서류를 다 물에다 버리고. 이영희 씨가 다 봤대요. 너무 성급하게 와서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경찰서에 다 잡혀갔어. 이제 거기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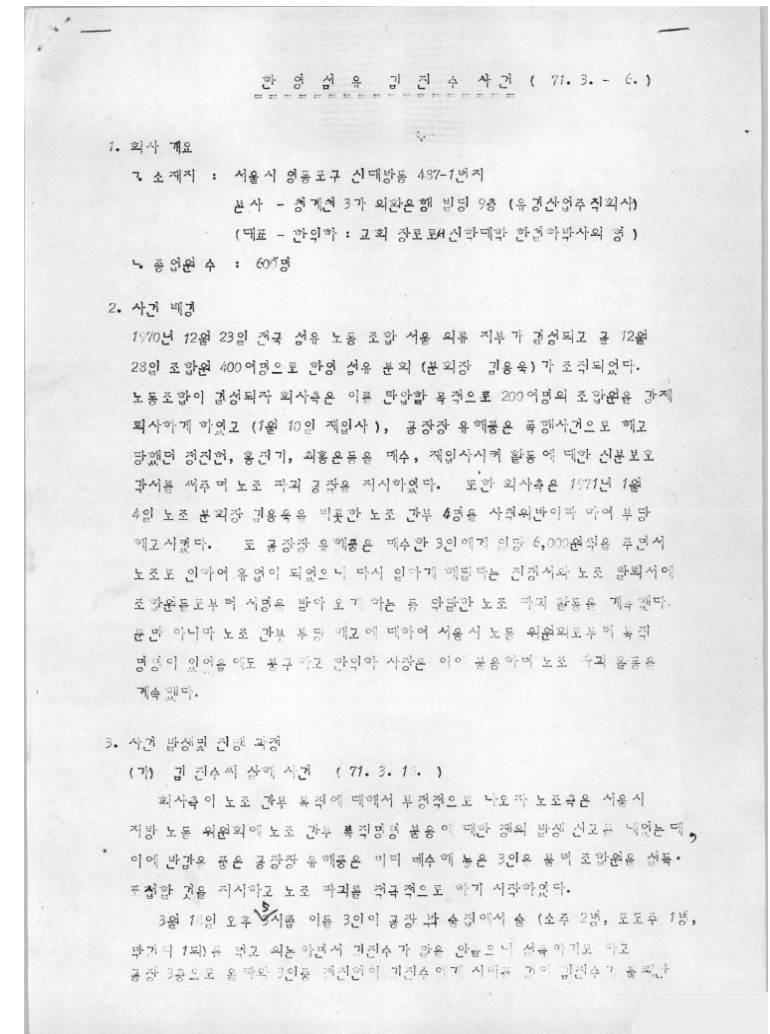
**사회자** 그날 갔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청계노조 조합원?

**이승철** 아니. 다 김진수 친구들이야. 그들이 다 잡혀갔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녁에 청계노조 전태일 친구들과 만나서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런 거야. 이제 거기서 난리가 난 거지. 당시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운영재였던가. 그때 운영재가 우리한테 자기네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부수는 게 어디 있나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

우리가 이제 잡혀갈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우리를 안 건드려. 건드려야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성명서를 내야 된다 해서 장 형이랑 상의를 해서 우리 의견을 넣은 성명서를 내고. 또 추도식에는 우리는 못 가고 어머니가 대신 갔지. 그렇게 거기하고 연대를 했지. 그때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장례를 지냈어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내가 저번에 몇 년 전인가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한테 한국노총에 가입된 조합원이 죽었으니 한국노총에서 추도식을 해야 하지 않냐 했더니 “알아볼게요” 했거든. 그런데 소식이 없네. 지금은 70민노회에서

매년 묘에 가서 추도식을 하고 있지.



한영섬유 김진수 사건 기록, 전태일재단, 1972.

**사회자** 모란공원에 있죠?

**이승철** 네, 모란공원에 있어요.

**사회자** 그 이후에 청계노조가 성명서 발표하고 시위를 다시 또 한 번 했나요?

**이승철** 우리가 시위한 거는 없어요.

**사회자** 시위를 한 거는 없고요?

**이승철** 내가 성명서 발표는 했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여성 조합원들을 또 몇 명 데려갔을지도 모르겠어. 그때 좀 일찍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회자** 그래도 그 당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김진수 사건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건데. 그때 최종인 선배님이 청계노조 지부장이셨나요?

**이승철** 지부장은 아니었어요.

**사회자**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이.

**이승철** 그때 구건회가 지부장이었어요.

**최종인** 난 부지부장이었어요.

**사회자** 아, 구건회. 그 당시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최종인** 아니, 친구들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승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김성길 씨가 물러나게 된 동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의도로 그 양반을 보냈는데, 또 자기 마음에는 젊으니까 불이 타올라 가지고 어쨌든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자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1월인가 우리 친구들을 모아놓고 지금 청계노조 기사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니까 노동청장실에 들어가서 한번 화끈하게 농성을 해야 기사들이 기사를 쓰고 그래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우리가 술하게 토론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농성에 들어가서 잘못하다 보면 이놈들 잘 걸렸다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싹 잡아가면 청계노조를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어. 그래서 김성길 씨한테 우리는 못 하겠다 했더니 그럼 나는 그만두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된 거예요.

**사회자** 청계노조가 생각보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상당히 투쟁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김진수 사건과 친구들의 역량으로 인해서 이후 한영섬유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거나.

**이승철** 아니 이미 거기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었어. 한국노총 산하에 있었는데. 거기가 우리 쪽하고 조금 다른 게 김진수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을 믿었어. 그 사건 때문에 특별히 위자료를 주니까 그 양반이 그걸로 딱 끝나버렸어요. 우리 이소선 어머니처럼 그 아들들을 챙겨서 운

동을 했으면 거기가 좋아졌을 건데, 그 양반이 손 떼고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김진수 친구들이 구류도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겁을 조금 먹었지. 우리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들도 다 흩어지고. 그 이후 우리는 그쪽의 소식을 몰라요.

**사회자** 그러니까 내부에 한국노총 소속의 어용 노조가 있었는데 결국 민주노조까지는 성공 못한 거네요.

**이승철** 그래도 당시 그 사건이 커지니까, 많은 사용주들이 함부로 조합원들을 해고시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각성은 충분히 컸을 거예요. 그 사건이.

**사회자**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노동운동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이어갈 수는 없었다는 거군요.

**이승철** 그 이후에 한영섬유에 탄압이 있었다 이런 얘기.

**사회자** 청계노조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 같은 것이 있었나요?

**이승철** 그 일은 공식적으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어요.

## 5. 체불임금 연대 투쟁

**사회자** 그러면 또 그 당시 노동교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연대를 요청하고 했는데, 그 노동자들이나 단체들의 현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태일과 이소선의 이름은 또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요.

**이승철** 노동교실이 유림빌딩으로 가고 나서부터 조합원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그전에는 노동조합 사무실밖에 없었잖아요.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교실을 유인규 사장이 뺏어 갔으니까. 노동교실이 유림빌딩으로 간 다음에 그곳이 활발한 공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최종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평화시장의 근로 환경이 어려우니까 노동조합 간부들이 근로기준법 비슷하게라도 가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노사 간 협약을 해서 몇 시까지만 근무하자, 일요일은 놀자, 이렇게 노동조합 간부들이 활동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조합에 대한 의식이 바뀐 거예요. 교육보다도. 청계노조 때문에 실제로 근무 시간이 단축되고 일요일에는 간부들이 시장을 조사하면서 일을 하는 곳은 불을 내리고, 싸움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해야 할 일인데 청계 간부들이 일요일마다 나오고, 우리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의 의식이 바뀌는 거죠. 아, 노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또 한 가지는 평화시장에는 임금이 체불되는 게 많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주인이 해고해서 임금을 받으러 가면 나중에 오라고 해요. 그렇게 몇 개월 후에 가면 또 다음에 오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노조에서 중점을 둔 것이 임금을 받아 주는 역할을 하자, 체불 임금을 처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복지부장인가 누군가가 위원회의 책임을 맡고 임금 처리 특별반을 만들었어요. 매일 진정이 2건, 3건씩 들어와요. 그러면 주인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합원들이 잘못해서 나갔으면 대신 사과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애들

을 선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업주들이 의기양양해서 나간 애를 막 욕을 합니다. 쌍욕을 해요. 그러면 내가 “야! 저놈 나쁜 놈이야” 하면 바로 임현재, 이승철, 신진철이 불러내서 호되게 다뤄요.

**이승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웃음)

**최종인**      그리고 즉결 처분을 해요. 금방 해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약속을 하고 전화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안 하면 초창기에는 진정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하루에 20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서울 시내 의류 계통 종사자들이 다 노조에 진정을 온 거예요. 그걸 처리를 했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식화된 거죠. 또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간부들이 진짜 물심양면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든 것이 교육이지, 우리가 뭐 노동법이 어떻고 하는 이런 교육은 일상적인 얘기뿐이에요. 교육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하고 이걸 실제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은 밤에 조사하러 다니는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들 5명이 파견됐어요, 우리한테. 몇 사람은 내가 이름도 아는데 지금 기억이 오래돼서. 5명이 파견됐는데 매일 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이.

**이승철**      낮에 2명씩 와서 실습한다고.

**최종인**      그렇게 실습을 와. 우리 평화시장을 선택해서 실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저녁에는 우리 조합 간부가 같이 된 거예요. 같이 쫓아다니면서 행동을 해요. 이야, 이런

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신앙인들이구나, 신학대학 학생들이구나,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로 조건 개선하는 데 행동으로 불 내리고, 싸우고, 치고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조합을 믿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거지, 교육은 그중에 일부분인 조직 과정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이 컸죠. 저녁에 일 마치면 어머니 집에 가서 스스로 교육하고 토론하고. 나하고 이승철하고 1년 동안 어머니 집에 있었으니까. 이승철은 그다음 더 있었지만. 어머니가 우리한테 코치하고 이제 빠지면 우리끼리 또 토론하고.

우리가 6개월인가 1년인가를 전혀 외부 지원을 못 받아서 배고프게 보낸 지가 한 1년이 돼요. 먹지를 못해서. 그때 창동에 가면 밥 한 끼 먹는데, 마침 사회자(전순옥)가 여기에 있네. 그때 사회자가 조금 어렸을 때야. 이승철과 내가 들어가면 콩나물국에다 소금 쳐가지고.

**이승철**      콩나물무침을 잘했지.(웃음)

**최종인**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전순옥이야. 아침에는 그거 하나에 다 밥 먹고 그냥 그런 식으로. 저녁은 안 먹죠. 아침만 그거 먹고 나와서 점심, 저녁은 라면을 먹었어요. 근 1년 가까이를. 그렇게 노조 간부들이 희생적으로 한 거죠. 사회가 어떻고 노동운동이 어떻고 저는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저는 뭐 교회, 단체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순수하게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간부들은 오직 태일이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이 딱 박혀 있었어요. 그 사고방식으로 일을 했지. 뭐 의식화가 돼서 이렇게 일한 건 아니에요.



**사회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의 주제인 청계노조와의 연대, 지금 최중인 선배님이 핵심을 말씀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나면 청계노조 조합원들은 처음에는 전부 평화시장, 통일상가 이런 데에만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서울 지역에 있는 공장들에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까지도 가서 월급을 받게 해줬다,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시장이나 통일상가에서 일을 안 하고 서울 지역 다른 데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최중인**      그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딱 되어야 해요.

**사회자**      네. 그러니까 가서 청계노조가 가면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와서 호소를 하는 거죠. 우리도 월급 좀 받아달라. 그거저는 실질적으로 일차적인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중인**      연대고 그런 건 모르겠고.

**사회자**      그러니까 연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중인**      연대는 모르겠고.

**사회자**      나가서 받아줬잖아요. 임금을.

**최중인**      나가서 받아준 게 아니라 전화로 연락만 해도. 저희들한테 서울 시내 사용주들이 다 옵니다.

**사회자**      그러니까요.

**이승철**      내가 대표적인 거 하나 이야기할게. 76년도인데, 지금 뱅뱅 있잖아. 뱅뱅 독점 공장에 몇백 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대학생들이 노조 만들려고 들어갔다가 다 실패했어. 그런데 거기 노동자 한 명이 3년 인가 있다가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안 줬어. 그런데 진단을 받으니까 폐병이야. 폐병인데도 퇴직금을 달라고 해도 안 준 거야. 최종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사건이 왔어. 그래서 그 사장한테 당신이 처음 들어올 때 건강 진단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폐병이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 공장에서 폐병이 생겼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라, 그래서 그때 싸워서 퇴직금하고 그때 돈으로 35만 원인가 받아요. 부모들이 돈 받으러 왔는데, 그때 상계동에서 보증금 15만 원에 8천 원인가에 사는 집이에요. 그 집에는 35만 원이 어마어마했거든. 그래서 평평 울고 가더라고. 그것도 지금 기억나고.

돈 받은 이야기 또 하나만 더 하면 70년 12월인가 그랬는데, 한 공장 사람들이 다 월급을 못 받아서 몰려왔어. 공장이 창신동이래. 그래서 그거 받아 주자 했지.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이 오고 우리가 그걸 받아 주면 저놈들이 뭐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면 가입원서부터 받아. 전에 가입한 걸로 해서. 우리 조합원이다! 이렇게 하려고. 창신동 공장도 그랬어. 그래서 가입원서 다 받고 주인을 만났어. 그랬더니 주인이 원단장사한테 이미 기계를 다 근저당을 잡혀버렸어.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공증이든가. 하여간 바로 가져가는 거 그걸 다 해놨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그걸 해놨든 말든 당신이 이것을 임금으로 준다고 써라,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 각서를 써줬어. 그래서 그 공장에 가서 있다가 새벽 4시에 사람 불러서 그걸 싹 팔아가지고 개들 월급을 주니까 애들이 다 나가, 그렇게 끝났지. 그런데 좀 있으니까 검찰청에서 연락 왔

어. 그래서 최종인, 임현재, 양승조 다 잡혀갔어. 갔더니 무릎 꿇으라고 하더니 막 험하게 다루는 거야. 법원이 공증해놓은 거를, 지금은 뭐라더라, 강제집행면탈죄야. 그래서 뒤지게 맞았어. 그런데 내가 원래 49년생인데 호적에 53년생으로 돼 있었거든. 다른 사람은 2만 원씩 벌금이 났는데, 나만 안 나왔어요. 그때 미성년자라고.(웃음) 그런 적도 있었고.

**최종인** 그 당시에 2만 원이 컸어요.

**이승철** 엄청 컸지.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에서 동냥하고 남은 돈 내서 벌금 냈다니까. 누가 내? 개인이 낼 수가 없잖아.

**최종인** 그 사건은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데, 주인이 뺨질이라 저녁에 각서 받은 다음에 지키고 있다가 새벽에 말 그대로 팔아서 치워버렸어요. 근데 검찰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브로커로 봐요.

**사회자** 아, 브로커.

**최종인** 팔아먹고 돈 받아 주고 얼마를 받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 걸로 계속 뭐라고 해. 아니라고 하니까 옆을 치는 거야.

**이승철** 엄청 맞았어.

**최종인** 내가 책임자니까 나를 중심으로 더 때려요. 당시 내가 노조 지부장이었거든. 그러니까 검찰들이 브로커로 보더라고. 그런 상황이었고.

돈 받아낸 이야기가 또 있는데. 당시 시장 5개 상가에 사용주 대표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대표가 16명 정도 돼요. 노조 간부들도 16명이 노사협의회로 갑니다. 그중에 월남 파병 간 대위 출신이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해요. 사용주 대표로도 나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 사람이 좀 노조를 안다고 건건마다 시비를 하니까 회의가 진행을 못 해. 또 상가 대표는 간접적으로 협력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시비를 거니까 진행을 못 해. 그래서 저놈 참 너무하다, 그때 우리는 어리잖아요. 사용주 대표들은 40대고 우리는 20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저놈 언젠가 걸리면 진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차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일한 애가 노임 체블로 진정서가 들어온 거예요. 3개월 있다 오라고 했다는 거야. 우리가 진정서 받고 그 사람이 사용주 대표니까 내가 맡았어요. 먼저 점잖게 그 애가 먼저 나갔으니 대신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선도합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썻”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하라 했어. 그래도 욕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욕설을 하고 쳤지.

**사회자** 이런 거는 기록에서 빼주세요.(웃음)

**이승철** 그러면 안 돼.(웃음)

**최종인** 치려고 하니까 바로 주먹이 올라온 거지. 나는 원래부터 그 사람에게 감정이 다 있었어. 그냥 탁자가 다 부서진 거야. 그대로 잡아서 우리는 그때 신진철, 임현재가 있었고 이승철은 그때 있었는지 몰라. 그 애들이 딱 붙잡아.

**이승철** 너희들이 때렸지. 나는 안 때렸어.

**최종인** 이렇게 머리를 차였어요. 그게 4주 나왔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파출소 가서 여기를 찼죠. 쌍방 고소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임 처리하는데 개들하고 싸우다가 간부들 이빨이 나가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간부들의 의식이 오직 태일에게만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우리는 의식화를 하고 사회가 어떻게 누가 와서 뭘 하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직 이 노동조합이 잘돼야 한다, 이거 외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야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그게 우리들의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별 의식이 없어요.

**사회자** 이승철 선배님 또 최종인 선배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전태일 정신으로 무장이 돼 있어서 노동자들의 아픔이 있거나 착취를 당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라도 가서 전태일이 한 것처럼 노동자들을 대변해주신 거라고 느껴집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아까 창신동의 물건들을 다 팔아가지고 검찰까지 갔잖아요. 그 이후에 그 마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철** 벌금 물고 끝났어.

**사회자** 2만 원 물었다는 거?

**이승철** 2만 원씩 나왔어요. 나는 안 나왔는데 총 6만 원이 나왔을 거야, 그때 노조에 그래도 돈이 조금 있었어. 왜냐면 늘 어머니가 교회나 어디 다녀오면 돈을 모아오면 그 돈을 금방 쓸 수 없으니까 좀 남겨둔 거지. 라면을 사다가 여러 명이 먹는다든지. 그렇게 남겨둔 돈인데 별수 없이 벌금을 물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때 임현재는 안 갔어. 아마 갔으면

개도 53년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벌금을 안 물었을 거야. 나만 면제되었던 것 같아. 그것뿐 아니라 돈 받아준 이야기 하면 끝도 없어. 우리 간부들이 가면 소금을 막 뿌려. 그러면 사장 데려다가 월급도 안 주는 새끼가 마누라 시켜 소금까지 뿌렸다고 뭐라 하면 또 받아내기도 하고.

**사회자** 그러니까 이렇게 돈 못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받아 주고.

**이승철** 그 사람들이 가입도 하고 조합비도 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노조에 가입 시켰는데 1년 만에 4,500명 정도 가입이 되었어요. 그다음 만 2년 만에 7,828명인가 가입을 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이승철, 최종인이 75년도에 조합원들의 하는 일을 뒷바라지 못해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을 해본 사람들이 이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로 고생을 했다 그래.

**사회자** 그렇죠,

**이승철** 7,828명이면 전 조합원의 절반이야.

이야기 나오니까 하나만 더 할게. 그런데 이 조합원 명부를 가지고 가서 조합비를 내어달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 매일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이걸 유니언숍으로 하는 게 최대 과제였어. 그래서 내가 지부장이 돼서 그때 체결을 했어. 임금 인상도 32.5%로 하고. 그때 내가 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갈등이 났지. 나는 한번 회의해서 안 되면 그때 리본을 달자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다 리본을 달아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날 싸움만 되고 말았어.

아까 최종인이 얘기했듯이 생각해보면 우리 간부들은 노조가 계속 원만히 잘 갈 수 있을 때만 싸울 장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더욱 컸고. 외부

인사들도 말하길 이 나라는 조합만 잘될 수 없다, 독재 정권이 망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지. 거기에 동의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아까 얘기했듯이 근무를 8시에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8시에 딱딱 끝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사용주들이 한 1,000명 되니까 여기서 어기고, 또 저기서 어기고, 그러면 매일 단속만 해. 그러니 우리도 정말 지칠 대로 지쳐. 그런데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면 세상이 시끄러워지니까 근로 감독관들이 가서 단속하잖아.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잘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뒷 사람들이 그때 이후에 어용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놈들은 말이 좀 잘못된 거고. 어찌 되었든 우리는 조합도 잘돼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유니언숍에 관심을 가진 조합원들은 정말 몇 명밖에 없었을 거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마포구청장 하던 박홍섭이라고 있어. 그 사람이 한국노총에서 무슨 차장이었고. 또 그때 부녀부장이 또 있어.

**사회자** 이필원.

**이승철** 어, 이필원. 그 사람들이 나를 아주 최고로 쳤어. 그야말로 그거는 정말 잘했다,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데 최고다. 그다음부터는 사업장에 가면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명단 다 써내라 해서 조합비를 받을 수 있었지.

**사회자** 말씀 중에 청계노조 간부들이 어용을 했었다, 그건 아마 좀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 같고요.

**최종인** 어용이라는 얘기 하지도 말아. 어디 어용을 해본 적 없고.



정인숙

“우리가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후배 봉제 노동자들이 그 당시 봉제인들처럼 계속 고통받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전태일 정신 가지고 일했던 사람인데, 어용이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용이에요.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자** 그래서 저도.

**최종인** 어용이라고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이 어용이고 잘못된 사람이야. 어용이라는 사고방식도 모르고, 용어 자체도 모르고. 오직 이 노조가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사명감밖에 없었죠. 그래야 전태일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정인숙**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70년대에 우리 민주노조 했던 사람들에게 어용이라는 말은 잘 안 하지만 민주노총이 볼 때에도 70년대 노동운동을 하던 선배들을 개량주의로 보고 경제적 투쟁만 했다, 뭐 이런 역사적인 평가를 저도 들었는데 우리 노조에서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저도 인정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70년대 노동조합운동을 할 때 진짜 선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초기에 민주노조운동을 하면서 정말 투쟁을 많이 했다고 봐요. 노사협의회 때도 간부들은 단체협약 갱신할 때마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그게 또 투쟁이 없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조합원들은 따로 또 투쟁을 하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투쟁의 역사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런 평가는 조금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를 당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연대도. 그 당시는 지금처럼 서로 연대 활동, 함께 투쟁하고 공동으로 어떤 것들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지식인들이나 먼저 느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노조에 관심을 가지고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의식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온 것이 당시 자연스럽게 중요

한 연대 활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사회자** 사회자로서 입장을 조금 보태자면 70년대 노동운동을 가리켜 경제주의, 조합주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그 지식인이 노동조합을 투쟁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폄하하는 건데. 사실 지금 두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월급 못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인숙**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사회자** 그게 다반사였죠. 내가 여기서 일을 못 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그 전에 보름 동안 했던 일에 대한 대가는 못 받는 거고. 하루하루 벌 어먹고사는 사람들이 15일, 또는 한 달 동안의 월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생활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 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당시 상황에 대해 이해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나온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비판들은 조금 있었기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정리가 되었을 것이라 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기억을 되살려 이야기를 시작하면 너무 할 얘기가 많다고 봐요. 통일상가, 평화시장, 그다음 동화시장, 그리고 서울 전역에 청계노조가 미친 영향이 상당히 많고. 또 그런 데에 가서 노동자들 체불임금을 받아 주면서 정말 투쟁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형사 고발 당하고. 벌금을 내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다는 것. 이런 역할들을 맡아 온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야기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기록으로 더 많이 남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김대현 작가님께서 보충해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좀 해주시죠.

**작가**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특별히 보탬 말은 없었는데요. 최종인 선생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학습이나 의식화를 통한 조직도 중요하지만 일단 행동을 통해 임금을 받아 주는 식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 선생님들께서는 극구 부인하시고 연대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가장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전태일 정신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을 통해 나중에 청계노조가 더 큰 연대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 씨앗들이 이미 선생님들의 활동에 들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6. 결어

**사회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태일 정신에 따라 청계노조의 설립 및 초기 활동 과정에서 이소선 어머니와 함께 투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신 최종인 선배님, 이승철 선배님 그리고 또 함께해주신 정인숙 선배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청계노조와 연대 활동의 이야기들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 분 선배님들께서 함께해주셨는데 혹시 못다 한 이야기, 또는 오늘 함께한 소감이나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숙** 저는 오늘 전태일 열사 친구분들의 삶을 들으면서 그 삶이 전태일과 함께 살아온 삶이었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게 된 것과,

또 그 가운데 제가 몇 년 동안 청계노조에서 역할을 담당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후배 봉제 노동자들이 그 당시 봉제인들처럼 계속 고통받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살피고, 이 사회를 조금 더 좋은 사회,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인** 저 같은 경우는 노조를 전혀 모르고 시작했는데, 지금도 노조에 대해 깊이 알고 싶은 건 없고. 오직 태일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이렇게 토론도 하게 된 것은 태일이의 뜻을 널리 알리고 그 뜻이 올바르게 가기 위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온 거고요. 또 기념관, 태일이 기념관, 이것은 저에겐 꿈같은 이야기예요. 기념관에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제게는 너무 꿈같은 이야기이고, 70대 중반에 들어서서 꿈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나? 앞으로는 더 이상 불러주지 마라, 이런 생각을.

**이승철** 나는 늘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운동을 한 지가 50년이 넘었거든요. 최종인 말처럼 그때 초창기에 했던 사람이 이제 70 중반인데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는 다 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한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생각에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후배들이 많아요. 기념관의 예산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그들이 살았던 기록을 남기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싶고요. 앞으로 후배들이 나올 텐데 그들이 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대가 아니더라도 그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사회자** 고맙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참 기억을 잘 살려주셨고요. 또 같이 이야기를 하니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철 선배님 기억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3년 만에 7,828명을 조직하셨다고.(웃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해주신 거는 후배들, 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노동자가 되었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충언도 해주셨는데요.

청계노조 노동자들은 그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덜 알려진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상세하게 담아내라는 말씀으로 들겠습니다. 그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처음에는 다들 “할 이야기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또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우리가 듣지 못했던 당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연대의 정신이나 노동조합의 투쟁의 정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전태일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시간 저희들이 확인한 바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이 청계노조를 중심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굉장히 감명 깊고 뜻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좀 더 충실한 기록으로 남아서 후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부

# 청계피복노동조합 x 원풍모방노동조합 연대

인터뷰 2회차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10:00



왼쪽부터 이숙희, 전순옥, 양승화, 박순희

“그날 밥을 처음 먹었는데, 이렇게 단결하고 여럿이 함께하니까 경찰들이 우리를 데려다 주기도 하고 잡아가지도 않고 밥도 주고 그 밤에. 그래서 와, 이게 뭉치면 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노동조합을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1. 노동조합에 눈을 뜬 여공들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970년대 당시 노동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분들의 구술을 통해 민주노조의 시작인 청계피복노동조합(이하 청계노조)이 미친 영향과 연대 활동을 기록하는 제4차 전태일 노동구술기록 사업의 2회차 시간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동지의 분신 항거 이후 청계노조를 시작으로 민주노조 설립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긴급조치를 선포한 유신정권은 어용노조를 앞세워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마저 자신들에게 굴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청계노조와 원풍모방노동조합(이하 원풍노조)을 비롯한 일부 민주노조들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투항하지 않고 노조를 사수하며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노동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투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조합의 곁에서 함께 서고 싸워주신 또 다른 노동자, 지식인, 종교계 등과의 연대 활동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계노조에서 활동한 이숙희 동지와 당시 청계노조와 함께 민주노조 운동의 선봉에서 치열한 투쟁을 벌였던 원풍노조에서 활동한 박순희 선배, 양승화 동지를 모시고 두 노조 사이의 연대와 인연, 영향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두 노조의 다른 주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기록물들에 충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노동조합원들의 활동사 및 노동조합이 미친 영향, 그리고 함께 한 연대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인사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당시의 역할, 어떤 위치에서 활동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순옥입니다. 먼저 박순희 선배님부터 당시 활동을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박순희** 오늘 인터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잠을 설친 사람 이에요. 아무리 큰 투쟁을 해도 내가 잠을 못 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잠을 설치고 왔습니다. 더듬어 보니까 52년 전 일이에요. 전태일 동지가 살아 있으면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제가 한 살 더 많거든요. 47년생. 저는 그 당시 그 전태일 동지의 분신 소식을 듣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운동이란 용어도 몰랐고, 운동은 더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게 운동인 줄 알았지.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원풍 들어가기 전에 대한모방을 다니면서 당산동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JOC) 활동을 했습니다. 67년부터 시작했고. 우리는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선서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렇게 공부한 다음 68년에 저도 선서를 했어요. 그 정신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중요성은 같이 가야 하는 건데, 노동자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상품은 고급품이지만 일하는 노동자 자체는 쓰레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노동조합을 하도록 노동자를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노총이 대한독립촉석노동총연맹 후신으로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완전히 100% 넘게 어용이었거든요. 다 회사 편이고. 노동자들은 그냥 착취와 수탈의 도구로 정부가 하는 대로 맞장구를 치면서 앞잡이 노릇을 한 게 한국노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JOC 정신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게 뭔가. 그렇게 시작한 사람으로서 전태일 동지의 분신은 제 삶을 바꾸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사회자** 앞으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양승화 동지께서 소개를 좀.

**양승화** 저는 충북 제천이 고향이에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려면 서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옥수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산비탈에 있는 세를 얻어서. 이사하고 취업을 한 곳이 원풍모방인데, 제가 72년 7월 7일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때 나이가 열다섯 살이었어요. 노동조합이 뭔지 노동운동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유니언숍이라 들어가면 바로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 가입됐어요. 그때는 취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살고, 또 동생 공부도 가르치고. 이러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입사를 하게 된 거죠.

노동조합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72년 7월 7일 제가 입사했을 때, 그러니까 퇴직금 받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던 상황이었기도 했고. 또 그다음 민주노동조합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8월 8일에, 여름이다 보니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운동장으로 몰려와서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라고 외치는 것을 봤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때라 잘 모르고 우산을 들고 쫓아다니니까 회사 직원들이 야, 너네는 뭐 알지도 모르면서 왜 거기 쫓아다녀? 거기 낄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9월 3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 이제 노동조합이 뭔지 알겠다며 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원

풍에 입사했을 때 12시간씩 일했거든요. 근로 조건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회사보다 임금이 30%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원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임금이 더 높은 대한모방이나 이런 데로 이직을 많이 할 정도로 굉장히 근로 조건이 나빴어요. 제가 입사할 때는 일요일도 18시간씩 일을 했어요. 일당이 140원이었는데 한 달 월급이 한 4,700원. 일요일은 쉬는 날이 없었어요. 다 잔업을 하거나 특근을 하거나 했었죠. 그런데 9월 3일에 노동조합 준비하는 분들이 잔업을 다 거부하니까 회사에서 밥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안 줘서 아침부터 기숙사에서 뒹굴뒹굴하며 굶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누가 밖에서 정문까지만 나와라,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정문까지 뛰어서 나가 보니까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이 명동성당이었어요. 정말 방에서 뒹굴던 옷차림 그대로, 신발도 고무신 신고, 거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명동도 처음 가봤고, 성당도 처음 가봤고. 그날 하루 종일 거기에 있었죠. 한 600여 명이 갔거든요. 하얀 미사포를 쓴 분은 신도고 까만 머리는 우리 원풍 사람이었어요. 저녁까지 경찰하고 대치하고 있다가 밤 12시 넘고 1시 다 돼서 경찰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경찰차로 저희를 데려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밤에, 1시나 된 그 밤에 밥을 주더라고요. 아, 그날 밥을 처음 먹었는데, 이렇게 단결하고 여럿이 함께하니까 경찰들이 우리를 데려다주기도 하고 잡아가지도 않고 밥도 주고 그 밤에. 그래서 와, 이게 뭉치면 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노동조합을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제 이숙희 동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숙희**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69년에 시다로 평화시장에 들어왔고요. 전태일 씨 사건이 나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사건이

났을 때도 사장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깟패가 일하기 싫어서 자살했어, 폐병 걸려서 취업이 안 되니까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그깟패 엄마하고 친구들이 평화시장 옥상에다 노동조합을 만들어놓고 맨날 모여서 찬송가를 부른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화시장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에 되게 열렬한 아이였으니까. 찬송가 부르면 나쁜 사람들 아닌 거 같은데?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조합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서 노동조합도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때문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구요.

그래서 71년 11월 13일 1주기 때 정말 놀라웠던 게 아침에 출근했는데 상가마다 다 불을 내리고 그날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화시장에는 그때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일하다 불이 자주 나갔거든요. 그래도 집으로 바로 안 보내고 한전에 연락해서 몇 시간 후에 들어오는지 물어보고 그때까지 공장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했고 오히려 더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가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작년에 죽은 그 사람 추도식이라서 오늘은 일 못 한 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화시장 앞으로 나왔는데, 그때 선배님들을 처음 본 거죠.

**사회자** 그때가 71년도네요?

**이숙희** 네, 11월 13일. 그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죽었고 오늘이 1주기인데 모란공원으로 추도식을 하러 간다, 만약 간다고 하면 우리가 버스로 다 태워다 줄 거고 빵하고 우유도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모처럼 일찍 끝나면 웬지 집에 가기 싫은 거.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어딘가 좀 가야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우리 모란공원 가자, 그래서 친구들과 셋이서 그 버스를 타고 모란공원엘 갔죠. 거기 가서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알게 됐고.

**사회자** 아, 1주기 추도식에 가세요?

**이숙희** 그래서 어머! 우리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노동조합이라는 데에 그렇지 않아도 관심이 있었으니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 2. 민주노조 설립 전후의 상황

**사회자** 그 당시는 일이 일찍 끝나면 뭘 해야 할지, 또 집에 가기 싫으면 뭘 해야 되겠는지, 이렇게 여가 시간에 대해서 전혀 뭘 해야 되겠는지 그런 생각이 없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배님, 동지들께 당시의 환경과 여건, 민주노조운동 전후의 지형도에 대해 간단히 듣고자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큰 틀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당시 노동 조건, 노동 환경. 특히 여성 노동자들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풍모방이나 동일방직. 그래서 왜 이렇게 민주노조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선배님들께서 직접 또 간접적으로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먼저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노동자들이 해당 사업장에 들어오게 된 경로,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또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본인들의 생각을. 또 주변에서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민주노조 설립 또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자발적인지 누구의 권유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경험을 통한 것인지. 예컨대 박순희 선배님은 전태일 때문에 하게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생각나는 내용들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선배님?

**박순희** 감회가 새로운데, 사실 지금 노동자 얘기는 과분한 거죠. 당시에는 노동자라는 소리도 못 하고. 반공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는 북에서 쓰는 용어이니까 반드시 근로자라고.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근면하게 일하면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해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와 기업주는 주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나라가 봉건시대부터 양반과 쌍놈, 머슴과 주인 양반, 그 내력으로 사실상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노동자 관계는 더 주종 관계라고. 그때는 표현을 주종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67년도에 JOC를 통해서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아주 완전히 놀랐죠. 노동자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 법은 노동법이야. 그래서 이게 뭐가 있구나, 법은 노동법인데 노동자 소리는 하지 못하게 근로자라고 해야 하고. 그때부터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때는 육법전서라 해서 그 안에 한글이 없었어요. 노동법도 한문으로 짝 되어 있었지. 그걸 보고 내가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이 한문을 어떻게 읽어? 이거 누구 보라는 거야? 이러면서 활동을 했는데. JOC 활동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또 70년에 전태일 동지가 목숨을 내걸면서 노동법도 한글로 나오게 되고.

그런데 저는 노동조합을 직접 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의식화시켜야 되겠다, 노동자들이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들 자기 팔자가 사납고 엄마,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다 하는 절망과 함께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존엄한 인간인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은 필수적인 거다, 하느님께서 창조 사업을 노동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창조자니까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 기본 의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나는 어디 한 직장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특히 더 대접을 못 받는 소규모 노동자들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했고, 그런 정신은 지금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원풍모방에 들어가시게 되고.

**박순희** 저는 전태일 동지, 조금 전에 내가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제가 가톨릭 신자니까 수녀원을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살기에는 나는 전태일 동지처럼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무장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수녀원에 갈 준비를 합니다. 1, 2년 수녀원 가는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71년에 내가 JOC 남부연합회 회장이 됐어요. 당시 돈보스코 청소년센터가 남부연합회 앞에 있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 신부님이 저녁에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거기 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소선 어머님하고 바보회 친구들, 임현재, 이승철, 김영문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들은 거야. 어머니 말씀을 통해서 전태일 동지의 삶과 분신하게 된 리얼한 장면까지. 그랬는

데, 나는 지금도 웃음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어머, 내가 더 수녀원을 가야겠구나, 여기 있다가는 저 사람들처럼 되겠구나.(웃음) 오히려 신부님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네 마음이 변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역반응이었죠. 수녀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젊은 청년, 교육사업도 있고 노동자 사목이 있고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린 노동자들, 청년들과 함께하는 수녀원을 가서 내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고 짐 보따리까지 다.

하여튼 그렇게 있다가 이제 원풍모방에 들어갔죠. 그때는 한국모방이었어요. 원풍모방은 75년도에 됐고, 부도나서 다시 넘어갔지. 그런데 한국모방 가까운 데에 수녀원이 있어요. 수녀원에서 소모임을 했어요. JOC는 소모임을 하는 거거든요. 두 팀을 했어요. 무궁화팀, 소나무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의해 퇴직금 받기 투쟁에 참여를 하죠. 아까 양승화 동지가 얘기한 대로 9월 3일 명동성당.

**사회자** 퇴직금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그래서 노동운동을 안 하려고 했고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또 노동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양승화 동지께서도 좀 말씀해주시면.

**양승화** 일단 회사에 입사하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한 방에 많을 때는 15명씩. 이렇게 쪽 A, B, C 반으로 나뉘서 3층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배워가는 거잖아요. 보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 충청도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리고 부산이나 이런 쪽은 어찌다 있기는 한데 그쪽에는 구미공단이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갔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처음 원풍에 들어

갈 때 저도 그렇고 우리는, 노동자들은 태생이 이렇게 태어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났고 노동자로서 월급 받고 돈을 벌어서 그냥 자기 삶을 잘 이뤄나가면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운명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만나지는 친구들도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원풍에서 민주노동조합으로 뭔가 변화가 되고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게 되었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서 해주는 건 없고, 특히 알아서 해주는 사업장은 없다, 달라고 해야 주는 거다. 이런 것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처음 입사해서 18시간씩 또 12시간씩 일하던 것들을 민주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8시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일요일, 휴일도 18시간이 아닌. 뭔가 변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알아가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또 소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흡수돼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산업선교회 가서 청소년기에 우리가 배울 수 없었던 것,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아주 기초적인 어떤 것들,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일반 공장에 갔었더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노동자가 정말 귀하다는 것, 또 노동자도 사람이라는 것, 인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그때 노동조합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의식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사회자** 그 당시에 입사하셨을 때 원풍모방에는 몇 명의 고용된 노동자가 있었나요?

**양승화** 고용된 노동자, 한 2,000명 되지 않았어요?

**박순희** 아주 큰 사업장이었어요.

**양승화** 엄청 많은 숫자였고. 또 원풍에 들어가려면 시험도 보고 이랬는데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A, B, C, D도 써야 되고 한문으로 이름도 써야 되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학교를 꼭 나와야 된다, 키도 커야 한다, 미인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웃음) 그래서 합격되는 게 쉽지 않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나이가 사실은 근로할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15살이면.

**사회자** 한참 예뻐졌어요, 키도 크고.(웃음)

**양승화** 예, 떨리는 가슴으로 갔는데. 대체적으로 입사하게 된 과정들을 보면 우리 노무과장들에게 돈을 얼마씩 주고 입사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소개란에 소개자를 꼭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저는 초창기에 지부장을 했던 지동진 씨가 저희 아버지랑 친구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백으로. 또 나이도 속여서 입사하게 된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입사해서.

**사회자** 아버지의 백으로 입사를 하신 분이예요? 그 당시에.(웃음)

**이숙희** 거기는 중학교 졸업장에 있어야 돼서.

**양승화** 예, 그랬었어요.

**사회자** 저도 어렸을 때 오빠가 죽고 그래서 평화시장에서는 일을 하기 싫어서 다른 데 다니려고 제가 도요안 신부님도 찾아가고 거기도 몇 번 갔어요. 어디 다른 데 큰 회사에 들어가고 싶더라고. 저는 그때 국민

학교 졸업장도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도저히 어디 원서를 내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인천에 있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죠. 하여튼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풍모방, YH, 반도상사, 콘트롤데이터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좀 자격을 갖춘 여성들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한 달에 4,700원, 12시간, 16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퇴직금도 없었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박순희**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할 거는 방금 소개자가 나왔는데, 소개자를 만드시 누구를 써야 한다는 건 입사한 후에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 데 대한 보증이에요. 노동운동을 한다든지, 노조에 가입한다든지, 그러면 소개자를 죽치는 거야. 그런 역할로 소개자를 꼭 쓰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숙희** 그때 사회자는 순진했나 보네요. 저기 학력, 탄 사람 졸업장 가지고 이름 바꿔서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는데.

**사회자** 그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웃음)

**이숙희** 나중에 원풍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양승화** 그래서 나중에 노동조합이 정상화 궤도에 올라오고 75년도에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주는걸.

**박순희** 자기 이름 찾기 운동.

**양승화** 남의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합원들 중에. 그러니까.

**박순희** 민주노조 되면서 조합원들 이름을 찾아주지.

**사회자** 그런 데는 들어가기가 그래도 조금 어려운 회사. 그래서 아빠 찬스로 취직을 할 수 있었고. 사실 평화시장이나 이런 쪽은 시골에서 그냥.

**이숙희** 그런 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학력을 보지 않았으니까.

**사회자** 학력을 안 보니까 추석 때, 설 때 자기 집에 가서 사촌도 데리고 오고 동네 친구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그냥 한 거죠.

**이숙희** 그리고 사장들이 추석이나 이럴 때, 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러면 자기들이 가서 다 데리고 오고 그랬지.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대우를 낮게 했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취직한 친구들은 방을 얻어서 살지 못하면 공장 2층 다락에서 원단 더미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사회자** 공장 다락방에서.

**이숙희**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에서 그냥. 평화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벌이나 이런 걸 안 보고 구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학벌을 보는 공장을 제외한 곳 중에는 이쪽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되었고요. 또 제가 신당동에 살았는데 그때 소문이, 가서 1년만 일하면 기술 배워갖고



박순희

“나는 그때 JOC 정신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게 뭔가. 그렇게 시작한 사람으로서 전태일 동지의 분신은 제 삶을 바꾸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막 소문을 내서 저는 진짜 1년만 일해서 기술 배워갖고 학교 가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다 뺑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사회자**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된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과정과 노동 조건에 대해 현장에서 일을 했던 선배님들, 동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고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OECD 국가에서 11위 12위 정도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것이 당시 12시간 16시간 노동을 한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치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희** 민주노조 설립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청계노조는 처음부터 민주노조였기 때문에 다른 게 없었고요. 그래서 조합원이 되고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다른 노동조합도 다 우리 노동조합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원풍 같은 경우 지부장이 지동진 씨로 바뀌고 또 이제 방용석 지부장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노동조합이라는 게 다 우리 노조 같은 건 아니었구나, 이런 걸.

**박순희** 청계노조 같은 경우는 어용노조 맛을 못 봤지.(웃음)

**사회자** 아예 어용노조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없이 완전 착취 구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거니까.

**박순희** 따라서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모방이 어떻게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만들게 된 계기는 그 얘기 이어서.

### 3. 퇴직금받기투쟁 연대

**사회자** 네, 이어서 그 과정을 얘기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본격적으로 청계노조와 원풍모방 투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청계노조와 원풍모방, 그러니까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각 노조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노조들이 처한 여건이나 추구하는 목표는 달랐겠죠.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른 거.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을 거고, 청계노조는 노조가 아예 없는 곳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그게 민주노조의 역할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투쟁의 내역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72년 원풍모방에서 벌어진 퇴직금 받기 운동, 그 투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 원풍모방 민주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 퇴직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퇴직금받기투쟁위원회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연대를 위해 청계노조에 서신을 보내 연대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청계노조 집행부에서도 지지 답신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 당시 청계노조 집행부에서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 대해 혹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퇴직금받기투쟁위원회에서 청계노조에 서신을 보낼 때 어떤 경위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답신은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지 서신이 민주노조 설립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또 당시 전태일, 이소선의 이름은 민주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기록하는 것이니까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기억하시는 만큼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희** 아니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건 처음 듣는 질문이고, 그때는 서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형편은 아니었다.

**사회자** 아,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까?

**박순희** 그리고 한국모방 퇴직금 받기 운동이 벌어지게 된 계기 이전에, 어용노조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71년도 대의원대회인가, 그때 대의원들이 발언을 합니다. 어용 지부장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가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였어요, 정영오라고. 이 사람에 대한 감사보고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해에 이거 올바르게 않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대의원들이죠, 대의원들의 호응이 있고 그러니까 정영오가 더 겁을 먹어서 더 탄압 일변도로 나갔죠. 문제 제기를 한 남자 대의원 4명을 해고를 시킵니다. 조합원 자격과 함께 회사랑 함께 해고까지 시키는 거예요.

한국모방은 그 과정을 통해 변화를 시작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의원대회에서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 당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태일 동지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태운 것의 대가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야, 우리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다 이래서 깨우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모방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대로 살 수 없다, 구호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게 해라. 그 역량을 받아서 주로 의식된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 여파가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태일 동지는 꼭 어디에

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자를 깨우치고 살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당시 원풍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바깥에서 JOC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많이 알았죠. 그리고 우리 JOC는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전국의 상황을 좀 볼 수 있죠.

그러다 한국모방 대의원 대회에서 해고를 시키니까 복직 운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주게끔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데, 몇 달씩 또 1년씩 밀린 사람들이 하여튼 몇백 명 됐어요.

**사회자** 그러면 늦게라도 퇴직금을 주기는 했습니까? 1년 후에라도 주기는 했는지?

**박순희** 그렇죠, 줬죠.

**사회자** 근데, 퇴직금을 계속 미루고 안 주니까.

**박순희** 그러니까 법대로 해라, 이거야. 14일 이내에 주는 걸 왜 그렇게 미루나? 그때는 그 지역에 노동자 지원하는 단체도 없었어요. 구로 공업단지 들어가는 경수 산업선교회, 영등포 산업선교회, JOC, 그리고 노동문제연구소가 있었어요. 거기랑 우리가 대책 회의를 했는데, 퇴직금 받기는 당사자들의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확확 되는 거야. 아, 노동조합이랑 같이하면 우리가 돈도 받을 수 있고 손해 보지 않는다, 이래서 영향을 많이 끼친 거죠.

**사회자** 그러면 박순희 선배님은 전태일 정신을 JOC 활동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현장까지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우리

도 민주노조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박순희** 그렇게 하면서 바로 청계노조가 생기잖아요. 연합노조로 해서. 연합노조 본부도 사실상 어용이거든. 어용의 표본이 연합노조. 연합노조는 섬유도 금속도 화학도 못 가는 노동자들을 묶어서 만든 게 연합이거든요. 그렇게 노동조합 만들 때도 우리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사회자** 오히려 더 측면에서 알게 됐군요.

**박순희** 그렇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자** 아까 우리 양승화 동지께서는 퇴직금.

**양승화** 제가 조금 전 질문, 그러니까 원풍에서 서신을 보냈고 청계노조에서 답신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우리 방용석 지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쭙봤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분이 기억력도 워낙 좋으시고 또 중심에서 활동을 하셨고.

**박순희** 그럼, 초창기 멤버니까.

**양승화** 그래서 여쭙봤는데, 보니까 71년 1월부터 72년 4월까지 퇴직금을 못 받은 사람이 261명이었어요. 총액이 1,510 몇만 원 나가는 돈인데, 그때 돈으로 엄청 많은 거였죠. 261명, 그 사람들의 퇴직금이었는데. 회사가 계속 퇴직금을 안 주고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하니까 72년 4월 18일, 28명이 퇴직금받기투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청원서를

사회 각계각층으로 보내고 한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되니까 8월 22일 다시 또 진정서를 만들어서 대통령, 정부, 종교단체, 노동단체, 학생, 이런 데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한테 계속 퇴직금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안 있겠다 한 거예요. 아마 이때 청계노조에도 간 것 같아요.

**사회자** 요청서나 진정서 이런 거 받고, 청계노조가 우리도 지지한다는 지지 선언을 해준 거네. 그런 거는 팩트는 맞네요.

**양승화** 예, 아마 그때 보내고 서류 받고 이랬을 건데, 그때는 정영오, 그러니까 어용 지부장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뭐를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 개별적으로 이 퇴직금 받기가.

**박순희** 그렇지, 각계각층에 보낼 때.

**양승화** 아마 주고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을 받게 된 건 72년 10월 9일에 받게 됐는데, 이 돈도 회사에서 주지 않고 산업선교회 조지송 목사님이 그때 우리와 굉장히 밀착해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때 회사에서 윤원희 부사장이 조지송 목사를 불러서 돈은 내가 줄 테니까 산업선교회에서 이걸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에 걸쳐서 회사 직원들을 산업선교회에 파견을 해서 경찰입회 하에 3일간 지급을 했어요.

**사회자** 근데, 왜 직접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왜 산업선교회를 통해서?

**양승화** 왜 산업선교회에서 그 돈을 주게끔 했는가?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회사에서 퇴직금을 줬다는 소문이 나면 퇴직금 받아 갈 사람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암암리에 산업선교회를 통해 몰래 준 거예요. 이게 퇴직금 받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조지송 목사님을 통해서 정리가 됐다, 퇴직금 받기 운동은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사회자** 그러면 퇴직금 못 받고 있던 사람들, 또 운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소문이 나면 받으러 올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양승화** 그런데 그때 당시 퇴직금 못 받은 261명은 다 줬다고 하니까 아마 정산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회사 내에서 퇴직금이 밀리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자** 그럼 투쟁 과정은 어땠습니까?

**양승화** 제가 좀 늦게 들어갔으니까 투쟁하는 것은 잘 모르고. 제가 그래서 우리 책을 좀 들여다보면서.

**사회자** 그래서 명동성당도 가시고.

**양승화** 예. 그런데 보니까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윤원희 부사장이 부사장실에서 금고를 열어서 돈을 줬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돈



**양승화**

“원풍에서 민주노동조합으로 뭔가 변화가 되고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게 되었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서 해주는 건 없고, 특히 알아서 해주는 사업장은 없다, 달라고 해야 주는 거다. 이런 것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이 없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노동자들에게 안 주고 버티고.

**사회자** 박순희 선배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네들이 전부 다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박순희**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첨부할 거는 한국모방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냐면, 그전에는 은행에서 돈을 갖다 쓰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렵잖아, 주지도 않잖아요. 담보도 있어야 되고. 회사가 그 약점을 이용을 해서 돈놀이를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예수금이라는 건데, 노동자들에게 은행에 가지 말고 회사한테 돈을 맡기면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쳐주겠다, 이래 가지고 회사에 돈을 맡기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금도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싸움을 통해서 그 예수금도 다 받아쥔지.

**사회자** 그러면 그때 어쨌든 연대 투쟁을 많이 했네요. 각계각층에 도움을 청하는 요청서도 보내고 또 진정서도 내고 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이 함께해주셨기 때문에 연대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원풍모방이 힘을 받았고. 또 그때는 상당히 가톨릭에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명동성당에는 하루만 갔습니까? 또 거기에 다른 노동자들도 많이 왔습니까?

**양승화** 아니요. 원풍만. 그런데 워낙 원풍이 숫자가 많았잖아요. 기숙사생들이 600명이 갔으니까. 그런데 기숙사에서 막 내려오는데 애네들이 못 가게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가 기숙사 문을 잠갔어요, 정문을. 그러다 비상계단으로 타고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다치게 생겼잖아요. 그러

니까 나중에 열어놓은 거예요. 그때도 여기 앞장섰던 얼굴도 잘 모르는 그런 언니들이 나오는 사람을 몇 명씩 데리고 버스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토크이었나, 하여튼 돈을 내는 게 있었는데 그 언니들이 다 내주고 우리는 그냥 따라간 거지. 따라갔다가 가서 보니까 명동성당이에요. 사람들이 해서 우리를 다 쳐다봤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같이 생긴 사람들이 명동을 활보하고 지나가니까.(웃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랬어요.

명동성당 안에 있는데도 엄청나게 겁을 많이 쫓았어요. 경찰서장이 와서 다 해산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방용석 씨가 지부장이 아니었는데 일어나서 우리가 가기는 갈 건데 김수환 추기경이랑 예배는 한 번 보고 가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저놈이 주동자라고 잡으라고 그래서 우리 여자 조합원들이 치마 밑으로 숨겨주고 그래서 안 잡혀간 일이 있고 그랬어요. 그때는 무섭고 두렵고 이게 잘 되거나 할까? 불확실한 것들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방용석 씨랑 정상범 씨랑 또 같이 연행돼서 조사를 받았어요.

**박순희** 그때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발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국모방 간부들이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조사받고 나오긴 했는데. 또 한 가지 첨부할 거는 명동성당을 갈 때 나는 바깥에서 작전을 짜고 같이 행동했는데, 경찰들이 너무 따라붙으니까 작전을 짰 거죠. 우리가 명동성당으로 간다면 경찰이 거기를 점거할 거 아니냐, 그래서 영락교회로 간다고 소문을 내고 쳐들어가는 것은 명동성당으로. 그렇게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지.

**사회자** 명동 성당에 들어가서 성공을 한 거네요. 그런데 양승화 동지는 아버지 찬스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혹시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않

왔나요? 그런 데 참여하면 안 된다고.

**박순희** 그때 지동진 씨가 민주노조 위원장이 됐는데. 회사 편이 있으면 탄압받았겠지.

**양승화** 우리 아버지는 저 때문에 해고도 당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제가 감옥 가 있을 때에도 면회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엄청 오셨어요.

**사회자** 아버지는 다른 직장 다니시다가 그 사건 때문에 해고?

**양승화** 예, 현대해상을 다니셨는데, 제가 노동조합 하는 것 때문에 해고를 당해서가지고. 그런데 제가 또 그 부장님을 만나 가지고 가서 조곤조곤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왜 해고를 당해야 되는지, 아버지 해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 나중에 복직이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를 조곤조곤하게 할 말은 다 하더라,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시 복직이 돼서 정년 퇴임도 하시고 이랬어요.(웃음)

**사회자** 역시 훌륭한 여성 노동자로서 현장의 민주노조도 만들어 내고 또 당시 노동자들의 권리도 찾는 데 앞장서고. 또 아버지의 권리도 다시 찾아드리고.(웃음)

**박순희** 엄마 아버지가 다 의식이 좋으셔서가지고.

**양승화** 예, 저를 통해서 변하신 거였어요.

**이숙희** 그럼, 온 가족이 다 그런 거네.

**양승화** 충청도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고 또 되게 보수적이고 이래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가족이 다 의식이 된.

**박순희** 그래서 엄마가 쌍용자동차 투쟁할 때도 가서 막 철조망 흔들고 싸우시고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사회자** 그 당시 70년대에 우리 민주노조 운동했던 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큼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데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이숙희** 그러면 퇴직금 싸움 이후에 위원장이 바뀐 거예요?

**박순희**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용노조를 갈아치운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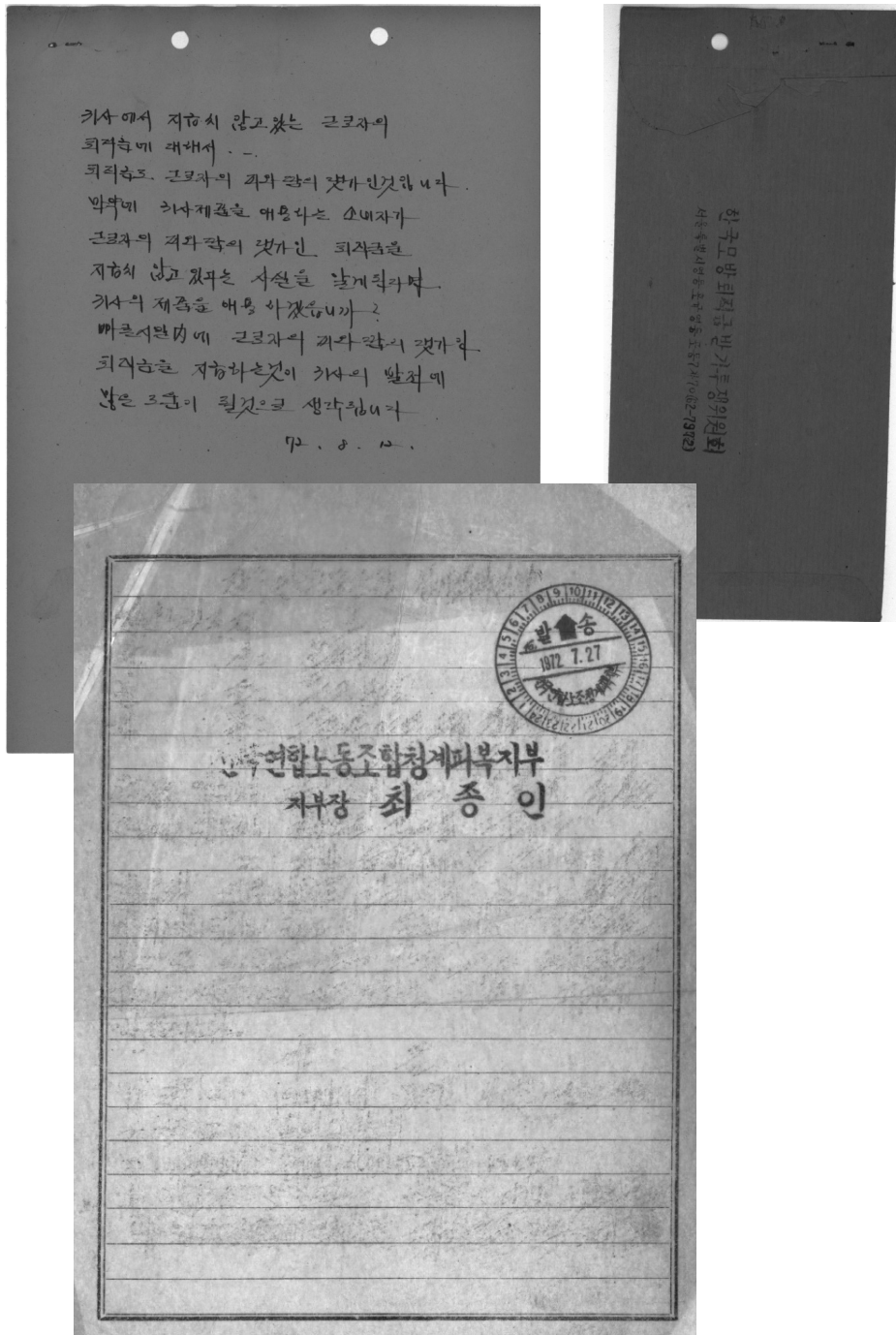
**사회자** 그때 어용노조를 확실히 제거하고 민주노조로 바꾸면서.

**박순희** 그래서 지동진 씨가 민주노조 위원장이 된 거죠.

**사회자** 첫 번째 지동진 민주노조 위원장. 방용석 지부장은 그 이후에.

**박순희** 방 지부장은 그 당시에 교선부장이었습니다.

**사회자** 교선부장이었고 그래서 그게 74년도인가요? 그럼?



청계피복노동조합 지부장이 한국모방 퇴직금 받기 투쟁을 지지하며 보낸 서신, 전태일재단, 1972.

박순희 73년.

양승화 72년도에 민주노조로 바뀌어요. 명동성당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대의원 선거를 해서 대의원들이 이쪽 진영들이 대거 뽑히고 그리고 지부장이 정영오에서 지동진으로 바뀌는 과정이.

사회자 그때 원풍모방에는 남성 노동자들이 많았나요? 여성보다?

양승화 아니요, 여성이 훨씬 많았죠.

사회자 70년대 민주노조 운동 현장들을 보면 거의 다 남성 중심의 어용노조에서 여성 중심의 민주노조로, 다 여성 지부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원풍은 그래도 지동진 초대 위원장이나 방용석 지부장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여성들과 함께 앞장서서 그들이 투쟁을 한 거네요, 남성들이.

박순희 사실 앞장선 것도 아니지 뭐, 따라왔지.(웃음)

사회자 그런데 근데 왜 남성을 지부장으로?

박순희 그러니까 그 사회가 남존여비 세상이었잖아요. 남자 존경한 거, 그리고 딸은 덤으로 난 거지. 아들 사상이지. 그게 산업 현장에까지 그대로 답습이 된 거예요.

사회자 그렇죠, 그게 어용노조의 뿌리인데. 그런데 YH나 반도상사, 콘트롤데이터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거든요,

남성에서. 항상 나는 궁금하더라고. 왜 원풍만 남성 지부장으로 계속 이어졌나?

**박순희** 남성도 올바른 사람이면 남성을 시켜야지 뭐. 꼭 여자가 해야 바뀌는 건 아니지, 우리의 사고는 그랬어요.

**양승화** 그래도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회자** 그러니까 지지를 받았겠죠.

**양승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자** 그때 청계노조에 있으면서 우리 이숙희 동지는.

**이숙희** 저는 방 지부장이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원풍하고 대책 회의를 하는데 제가 갔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빼와야 된다. 검찰로 넘어가면 조합원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으니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 빼내야 수월하다, 그런 발언을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부러웠어요. 우리가 원풍 가서 보면 우리 평화시장하고는 될 것도 아니잖아. 거기는 패션쇼하는 런웨이고 있고, 또 대의원대회 장소도 엄청 좋고. 그때 이순자 부녀부장하고 저하고 가서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엄청 부러워하고.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거기는 대의원대회 하면 선물도 크리스털 같은 걸로 된 재떨인가를 주고. 우리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양승화** 아, 대의원대회 하는 데도 오셨었어요?

**이숙희** 예, 여기는 진짜 부자 노조다, 이러면서 우리가 부러워했지. 제일 부러워했던 게 3교대였어요. 왜냐하면 청계노조는 3교대가 아니기 때문에 싸움 한번 나가려면 자기 그날 일당을 포기하고 나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나가는 순간 사장한테 찍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다 3교대 2교대니까.

**사회자** 방직 공장들이 다 3교대를 했어요.

**이숙희** 3교대, 2교대이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참 부러워했죠.

**사회자** 자기 비번 때 참여하면 되니까. 어쨌든 청계노조를 중심으로 서울시에 그 조그만 사업장들, 평화시장 이런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원풍모방. 그렇게 큰 회사는 대문도 크잖아요. 여기가 우리 회사라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부러워했고. 또 그런 회사에 취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즘 대학 들어갈 때 서울대 가는 것처럼 하여튼 그분들이 자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양승화** 예, 맞아요.

**사회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부러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는 아까 일당이 140원? 그래서 4,700원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퇴직금도 밀리는 걸 보면 노동 조건은 다른 데 하고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양승화** 예, 오히려 적었어요.

**이숙희** 평화시장보다는 많았지.

**사회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양승화** 평화시장도 그때 그쯤 되지 않았어요?

**사회자** 평화시장은 그래도 한 1년, 2년 지나면 한 5,000원은 좀 넘지.

**양승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님 계실 때 이렇게 보면.

**사회자** 아, 그때는 이제 재단사니까.

**이숙희** 제가 69년도에 들어왔을 때 일당 90원 받았어요. 한 달에 2,700원.

**사회자** 나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평화시장이 그랬죠.

**이숙희**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우리가.

**사회자** 그런데 그게 초급은 아니었잖아요, 4,700원이. 원풍 초급이었어요? 초급? 그러면 훨씬 많았지, 우리들보다. 우리는 2,500원 그냥.

**박순희** 아무튼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한국모방이 어용노조일 때

는 다른 모방 업체보다 30%가 적었어요. 상여금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근데, 민주노조가 되고부터는 그거를 더 초월했죠. 그만큼 우리가 근로 조건을 좋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뭔가를 더 느끼게 된 거죠.

**사회자** 원풍모방이 민주노조로 전환하게 된 계기도 퇴직금 투쟁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각성이 된 거고, 또 노동자들은 퇴직금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뭉치니까 뭐가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됐고. 그래서 지금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전태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영향을 받은 것이 크고, 다음 두 번째는 퇴직금 투쟁을 할 때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각계 각층에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연대 요청도 하고. 또 거기에 청계노조도 우리는 지지하겠습니다 하면서 성명서도 같이 내준 거라든지. 알게 모르게 그 과정들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이 사회와 연대하고 서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잘 버티고 힘을 받아서 끝까지 싸웠던 것 같습니다.

**박순희**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이야기할 내용은 크리스찬아카데미가 생기게 된 배경도 전태일 동지…….

**사회자** 크리스찬아카데미 생기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까?

**박순희** 크리스찬아카데미, 경동교회가 바로 평화시장 길 하나만 건너면 경동교회잖아요. 거기 강원용 목사님이 전태일 동지의 분신을 보고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내가 설교문도 가지고 있는데, 설교를 할 때 막 통곡을 하시면서 교인들한테 우리는 예수를 헛민었다, 예수를 믿은 사람



은 전태일이다. 길 하나만 건너면 그렇게 13살, 14살 어린 노동자들이 저기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알았냐, 우리는 죄인이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설교를. 그야말로 말하자면 회개, 회개를 시킨 거지. 그래서 경동교회가 유명해진 거고.

크리스찬아카데미가 독일인가 어디에서 교육 프로젝트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나 보고 기도나 하고 철야 기도나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독일 교회 교육기관을 통해 농민, 노동, 청년, 학생, 여성 5개 분과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받아서 처음에는 경동교회에서 하다가 수원에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관을 짓잖아요. 그게 내일을 위한 집. 사실상 70년대 노동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연대도 하고 의식화가 됐고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전태일 동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이 전태일 동지의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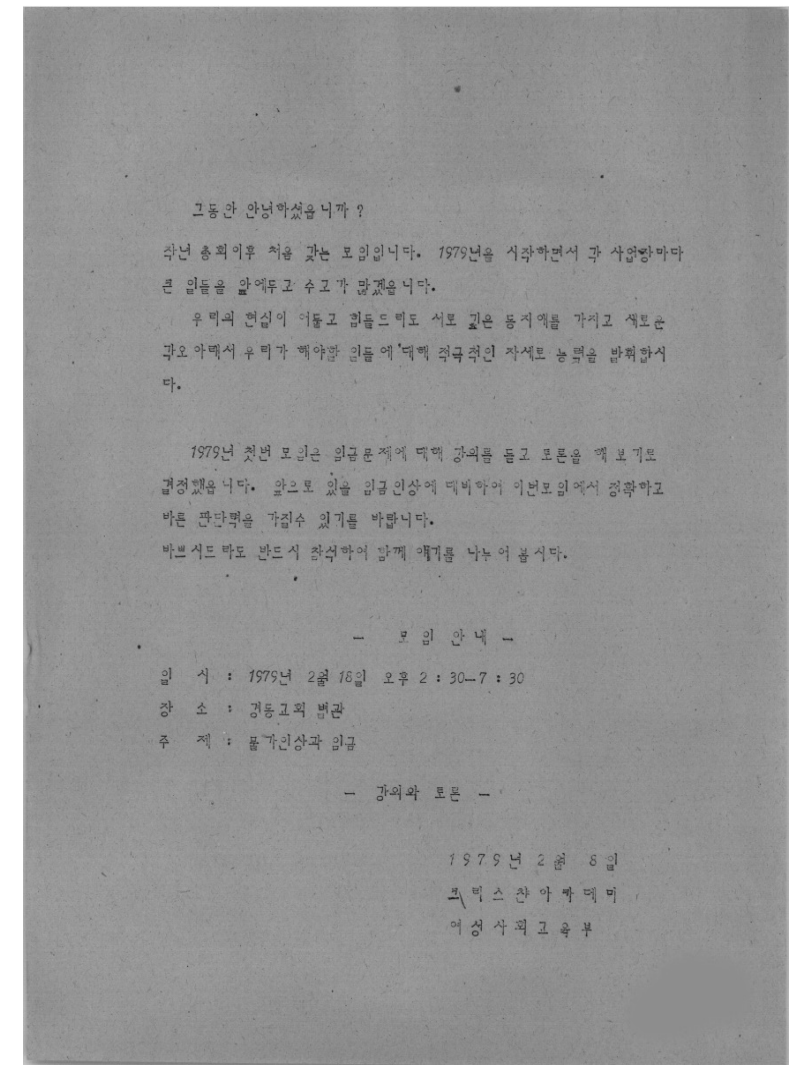
#### 4. 학습 과정을 매개로 한 연대 활동

**사회자** 박순희 선배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학습 과정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노동자들이 연대 활동을 하고 함께 투쟁을 할 수 있었나?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크리스찬아카데미의 학습을 통해서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인과 종교, 종교계를 매개로 한 노동조합 활동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민주노조운동의 주위의 지식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찬아카데미로 대표되는 그런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이러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노

동조합 교육을 많이 지원하고 또 수행을 했고.

**박순희** 학생 출신 중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성장을 그때 많이 하게 되었죠.



물가인상과 임금 주제 크리스찬아카데미 모임 안내문, 전태일재단, 1979.

**사회자** 네.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청계노조, 원풍모방 등 많은 민주노동조합을 만들었던 지도급의 임원들, 조합원들, 간부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교류를 나누면서 서로 폭넓게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동지들께서는 이 과정에 참석하면서 나는 어떤 내용을 함께 배우고 연대할 수 있었다, 또 이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또 커리큘럼과 교육 내용, 주요 강사들은 어떠했고 이들이 민주노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이외에 교류하는 과정이 향후 민주노조들의 연대투쟁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지식인, 종교인들이 민주노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순희** 제가 하지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강원용 목사님이 주임 목사로 계셨던 경동교회가 노동자들의 교육. 물론 산업선교회, JOC를 통해서 알음알음 학습도 하고 그랬지만 여기는 전문 과정 교육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73년도에 한국모방이 어용노조로 몰루랄라하고 재미를 보다가 민주노조가 되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이놈들이 환장하는 거지.

**사회자** 회사 측에서?

**박순희** 노동자들을 생전 종처럼 부렸는데 이건 아주 거꾸로 됐다고 생각했겠지. 그렇게 하면서 탄압을 시작했어. 그런데 민주노조가 딱 들어서니까 조합원들 대상으로는 탄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조합

원들이 의식이 되었으니까. 그랬는데, 뭐였더라. 원풍모방은 노무과가 1층에 있고 2층에 쇼룸이라는 게 있어요. 어용노조 때는 쇼룸, 쇼룸 해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민주노조가 되면서 다 개방이 돼서 가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술집이야, 번쩍번쩍하고 컵도 너무 멋있는 유리컵,

지네들끼리 거기서 쇼판을 벌인 거야. 모든 여흥은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밑에는 노동자 착취하는 노무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 막히지. 그런데 73년 민주노조가 돼서 망년회를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사회자** 아, 노동자들도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박순희** 노동자가 아니라 노조 간부들이랑. 회사가 초대를 한 거지. 기가 막힌 거지. 그게 술이 술이겠어? 독약이지. 그래서 끝내고 나오는데 회사 측의 상무가 2차를 가자고 그런 거야. 지동진 지부장한테. 그니깐 2차를 저놈들이랑 왜 가? 속이 뒤틀려 죽겠는데. 그래서 안 간다고 거부를 하니까 경비실에 가서 패기나 하지. 경비실 가기 전에 뺏어. 그래서 얼굴을 패가지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 해병대 알반지 끼고 있었잖아. 하필 그 알반지로 여기를 쳤어. 눈이 쪽 찢어지면서 그냥 눈탱이가 뺨탱이가 된 거야.

**사회자** 누가 누굴 쳤다고?

**박순희** 지동진 지부장을. 눈이 쪽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난리가 났지.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병문안 갔다가 지동진 지부장이 원풍, 한국모방에 입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때 나는 원대한 꿈이 딴 데 있는데 그래서 갈 수가 없다 했지. 하여튼 그런 연유로 내가 74년도 1월에 원풍에 입사를 합니다. 내가 기술자거든. 양복 기지 짜는 기술자. 근데, 모방 회사에서는 양복 기지 짜는 기술이 최고거든. 그 기술은 진

짜 1, 2년 배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노조에서 소개한다는 걸 그러지 마라, 오히려 기술자 뽑을 때 내게 알려나 달라, 그렇게 하여튼 시험을 보러 가서 내가 됐어요.

그렇게 입사를 해서 조합원이 됐는데 내가 75년에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을 갑니다. 그때 공무원 노조, 은행 노조, 제조업 등 각계각층에서 왔어요. 당시 분위기는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을 가지 않으면 어용 노조인 걸로. 그렇게 암암리에 소문이 나 있을 때야.

**사회자** 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박순희** 네. 그래서 은행 노조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때 기업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이런 데가 왔는데 거기는 뭐가 있었냐 하면 은행 노조는 결혼과 동시에 각서를 썼어. 결혼 사표 각서. 결혼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표를 써야 되는 거야. 그 문제가 우리가 교육을 받는 중에 주제가 되어서 그 주제를 투쟁으로 엮어서 각서 포기 운동을 했어요. 성공했잖아. 그래서 지금 은행원들이 결혼해도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과 연대뿐만 아니라 투쟁에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고.

특히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의 전문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사례 발표였어. 어느 사업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 어느 사업장에 어떤 노동자가 어떻게 착취 수탈을 당한다, 이런 사례를 직접 던져놓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거를 다루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됐고.

**사회자**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연대가 이루어졌겠네요?

**박순희** 그렇죠. 거기에는 지식인도 오고 학생 출신도 오고 노동

자도 오고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다.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벌컥 뒤집어졌지. 그래서 청계노조랑도 한국노총에서 탄압이 있을 때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크리스찬아카데미를 79년도에 빨갱이 조직으로 몰잖아요. 3월에 실무자들을 다 반공법 위반을 했다고 다 구속시키지요. 그때 고문도 너무 심했고. 그렇게 하면서 YH가 터진 거죠. YH는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도 받았는데, 사측에서 엄청난 돈을 외국에 보내놓고는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운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70년대 민주노조를 깨기 시작하는 신호탄이 크리스찬아카데미 깨고, YH 그렇게 깨고 차례차례로. 이제 82년 9월 27일에 원풍노조를 마지막으로 민주노조를 박살을 내는 그런 역사가 짝 있는 거죠.

**사회자** 청계노조도 80년 전두환이 들어오면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했고 많이 수배도 당하면서 81년도에서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죠.

**박순희** 노동교실은 언제 해체시켰죠?

**사회자** 노동교실은 77년도에. 우리 청계노조가 노동교실 탄압 반대 투쟁을 한 게 77년도 9월이니까. 어머니 구속되고 나서부터 닫혔죠, 거기.

**박순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더 가열차게 해야 하는데.

**사회자** 그때는 너무 엄혹했고 진짜 잡혀가면 다 죽는 거죠.

**이숙희** 청계를 도와주던 외부 분들이 오셨어요, 처음에 같이 투쟁하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분들한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분들한테도 폭력을 휘둘렀어요. 막 밀어내고 그래서 교실 앞까지 오셨다가 갈 수밖에.

**박순희** 외국인한테도?

**사회자** 그럼요. 외국인 신부님들도.

**이숙희** 민주 인사들을 다 그렇게 몰아내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싸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회자** 77년도에는 노동교실 앞까지 오셨어요. 공덕귀 여사. 공덕귀 여사가 전태일기념사업회에 그때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셨고. 그 다음 문익환 목사님. 신부님들 다 오셨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명동성당에서 지지 선언문 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다 깨졌죠. 그 당시는 그랬던 거지.

**이숙희** 어쨌든 그전까지는 재야인사, 민주 인사들한테 함부로 손을 안 댔는데 그때는 이제 박정희가 돌았나 보더라고.

여하튼, 청계노조 학습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해요. 크리스찬아카데미교육같이 외부 교육을 갈 때는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으니까 중견 조합원들 중에 의식이 있고 열심히 하는 조합원들을 순차적으로 보내야 됐고. 그다음에 중견 조합원들은 그때 노동교실이 있었으니까 1박 2일 교육으로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조합원들이 자체 내에서 일상적인 그런 교육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강사들은 대학생이나 관심 있는 분들하고 소그룹을 엮어서 교육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경제나 이런 것들은 밖에 계신 분들 중에 지명

도가 있고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청계를 이해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했고. 그다음에 크리스찬아카데미는 이제 3명, 4명씩 이렇게 기수별로 가서.

**박순희** 그렇죠. 각계 사업장에서 오니까 크리스찬아카데미는 한 사업장에 많은 사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원풍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상집 간부들 중심으로 대의원, 그리고 소모임 활동이 그때 당시 7, 80개가 돌아갈 정도니까 소모임 활동 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합원 동지를 보내 가지고. 우리는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을 한 번도 안 보낸 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 그거를 가져다 또 재교육을 시켜서 조합원 교육, 대의원 교육, 상집 간부 교육 그리고 내부 교육. 그리고 우리 원풍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교육생이라고 그랬어요. 교육을 3개월을 받은 다음에 원 직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생들에게 회사, 너희들도 교육시켜라, 그러면 우리도 교육시킨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회사 교육을 받고 노동자 교육도 받고.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이 소모임 활동에 거의 다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현장에 가면 또 그 친구들을 또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사회자** 교육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양승화 동지.

**양승화** 교육 사업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교육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소를 잘 안 빌려줬고. 그래서 우리 관악산 가서 교육한 적도 꽤 있고요. 대의원 교육 이럴 때는 돈보스코센터를 많이 이용했고. 그다음에 영보수녀원에 가서 1박 2일 교육 이런 걸 했는데. 일단 저희가 답답해한 거는 정치적인 상황. 우리가 매번 어떤 일이 생기면서 늘 탄압을



이숙희

“청계노조는 3교대가 아니기 때문에 싸움 한번 나가려면 자기 그날 일당을 포기하고 나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나가는 순간 사장한테 찍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다 3교대 2교대니까.”

받고 이러니까 이 세상이 언제 좋아질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회자** 그때는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했군요.

**양승화** 예, 그래서 교육을 정말 잘 받고 싶고 그런데 또 교육해주는 분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이숙희** 또 비밀로 해야 해서.

**양승화** 맞아요.

**이숙희**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죠.

**양승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신부님이 오셔서 교육했던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외국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흑인과 백인이 나눠져서 흑백 색깔로 나누어 흑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는데, 니네 한국은 색깔도 같은데 어떻게 전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너네들이 미워하고.

**사회자** 지역감정.

**양승화** 그래서 전라도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외국 신부님이 그 강의를 했던 게 머릿속에 남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신인령 교수님. 그땐 신인령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노동법 교육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노동법 공부할 때는 한글도 많

이 있는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노동법 해설책 이런 것들이었는데, 전태일 열사는 그걸 몰라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며 돌아가시게 된 배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강의하셨던 것들. 그리고 임종률 교수님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원보 씨도 섬유 쪽에 계시면서 우리를 교육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정말 힘들었던 때가 언제나 하면 80년도 그 난리가 나고 81년에 돈보스코센터에서 몰래 핵심 간부들만 모아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육하시는 분이 술을 잔뜩 드시고 오셨어요. 많이 속이 상해서서.(웃음)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시원스럽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얘기를. 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들은 발가락이 가려운데 나는 그 발가락을 긁어줄 수가 없고 구두만 긁어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교육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했고 우리도 힘들어했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원풍에는 교육생들 선발하고 이르는 것들에 관련돼서는, 소그룹장들, 그다음 대의원들, 그다음에 연임을 안 하고 대의원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 대의원회의, 그다음 활동가 모임, 이렇게. 또 산업선교회에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산업선교회 활동과 노동자 활동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산업선교회가 우선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걸 정리해주는 것들. 그래서 교육을 정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힘들었다, 교육하면서.

**사회자**      그 당시 교육 활동, 학습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또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장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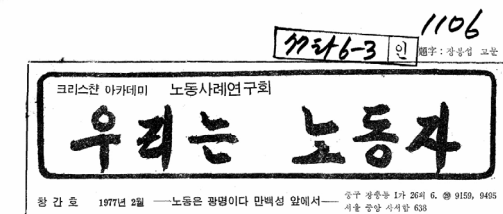
**박순희** 그리고 원풍은 특색이었던 게 노학연대로 한 탈춤반.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탈춤으로 문화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 활

동의 일환으로 기숙사에서 탈출을 하고 또 장소 빌려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국 공연도 다니고 그랬어요.

이숙희      지금도 가끔 하고 있다고, 가끔.

**사회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연대 활동 그리고 학습. 또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사업장들에서 온 다른 노동조합 동지들도 만나고 또 서로 함께 같이하고.

**박순희** 탈춤, 노래 그런 걸로 청계랑 많이 연대를 했지. 지금도 친  
해요.

[illegible][illegible]

- 1 -

442444

크리스찬아카데미 노동사례연구회 「우리는 노동자」 창간호, 전태일재단, 1977.

## 5. 협신피혁 연대 투쟁

**사회자** 학습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 아까 박순희 선배님이 얘기할 때 크리스찬아카데미는 자기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발표한 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을 다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슈를 하나 넘어가서, 그때 협신피혁 폐수 처리 시설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사업주들의 안전 의무 태만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다 죽었잖아요. 요즘에도 산업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청계노조와 원풍노조를 비롯한 경인 지역의 노동조합들이 함께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이 사건에 대해 대학하고 사회단체에서 유인물 같은 걸 만들어서 많이 배포를 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싸우면서 함께 밤도 새우고 그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연대투쟁이 있게 됐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연행되어 폭행도 당하고, 부상도 많이 입고, 또 해고를 당하는 식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대투쟁을 했던 과정들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특히 경인 지역의 노동조합들이 연대를 하게 된 계기와 과정이 어떠했는지, 긴급 조치 상황에서 얼마나 삼엄하고 엄중한 시절이었습니까? 그러면서도 각 민주노조들이 성명서를 발표, 배포하고 시위에 참여했어요.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조합원들은 어떤 희생을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해주시고, 이후 어떤 계기로 경인 지역 노동조합 전체 연대투쟁이 활성화되었는지, 또 노동자들이 함께 싸움하는 계기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숙희 동지가 먼저 시작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숙희** 신광용 동지. 이걸 자기가 나보다 더 잘 알지 않아? 나는 그때 노조 간부여서 토요오락회를 하는데 조합원들이 거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몰고 가다 경찰서 끌려갔던 과정들이 있고, 밖에서 경인 지역 단체 들하고 연대나 이런 내용은 신광용 동지가 더.

**사회자** 그 부분은 지금은 인터뷰를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신광용 동지에게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 이 사건은 우리 총무부장이었던 민종덕 씨.

**사회자** 민종덕 씨의 형.

**이숙희** 민종덕 씨 형이.

**박순희** 민종덕이 당시 노조에서 뭐였어요?

**이숙희** 총무부장이었죠. 총무부장으로 있었는데, 민종덕 형이 협신피혁을 다니며 하수 처리하러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강성심병원에 영안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산재는 제대로 보상을 못 받지만 그때는 더더욱 그럴 때니까 이 사건은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걸 항의하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 그래서 조합원들 하고 계속 거기에 갔던 거죠. 심지어 토요오락회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일찍 끝내면서 총무부장의 형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는 사건 전말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자, 이래서 조합원들을 다 몰고 갔고요.

**방청석(신광용)** 그때 경인 지역 노동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이숙희** 응.

**박순희** 지역 자체가 거기니까.

**이숙희** 유동우하고 박문담 씨가 많은 역할을 해준 거죠. 어쨌든 우리가 가서 장례 치르는 날 향의를 했고 거기서 계속 싸우다가 노동청까지 들어갔죠. 노동청까지 쳐들어가서 노동부 장관 나와라, 이러고 쳐들어갔어요. 영등포에 있었으니까.

**박순희** 사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노동자들의 삶은 완전히 쓰레기였지.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식이 있는 청계나 원풍, 그런 데가 총출동하죠. 사실 열 손가락 안에 꼽히죠.

우리 원풍 같은 경우는 민주노조가 되고 나서 원풍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 사업장의 문제에도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런데 82년도 9월 27일에 우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깨질 때 사실상 그 마지막으로 깨진 것도 문제더만. 깨지려면 일찍 깨져야지.

**이숙희** 아무도 올 사람이 없었어.

**박순희**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 하나가 민주 인사들 다 어디 갔느냐고 소리 지르면서 끌려 나왔잖아.

**사회자** 그때 민주 인사들 다 잡혀가고 수배 당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었어.

**박순희** 민중덕 씨 형, 산재 문제는 그때 우리 원풍에서도 염색과

에 백명자라고 동지가 있었는데, 기계에 손이 끼어들어가가지고 납작궁이 됐어. 여성인데. 그 문제도 걸쳐 있고 그럴 때인데 이 산재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산재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유인물을 여기저기에 뿌린 거야. 우리 조합원들 소모임들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모임한테 다 말해서 그 사람들이 퇴근하면 밤에 뿌리고. 낮에는 다 걸리니까 못 뿌리고. 그전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 다닥다닥 붙은 주택 집이었잖아요. 그 집에다가, 문틈에도 넣고. 그러다 경찰서에 잡혀가고, 또 남부경찰서나 다른 경찰서로 가면 우리 노조 간부들이 가서 꺼내오고. 진짜 우리 조합원들 고생 많이 했어.

**이숙희** 그래서 그때 노동청에 단체들이랑 들어갔다 거기서 다 끌려 나와서 영등포경찰서로 끌려갔죠, 전부 다.

**사회자** 기억에 저도 거기 있었는데, 이소선 어머님만 구속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왔던 청계노조 조합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다 잡아가라, 그래서 전부 다 버스에 다 탔잖아, 그때.

**박순희** 무더기 투쟁을 했지. 왜냐하면 한 사람만 잡아갔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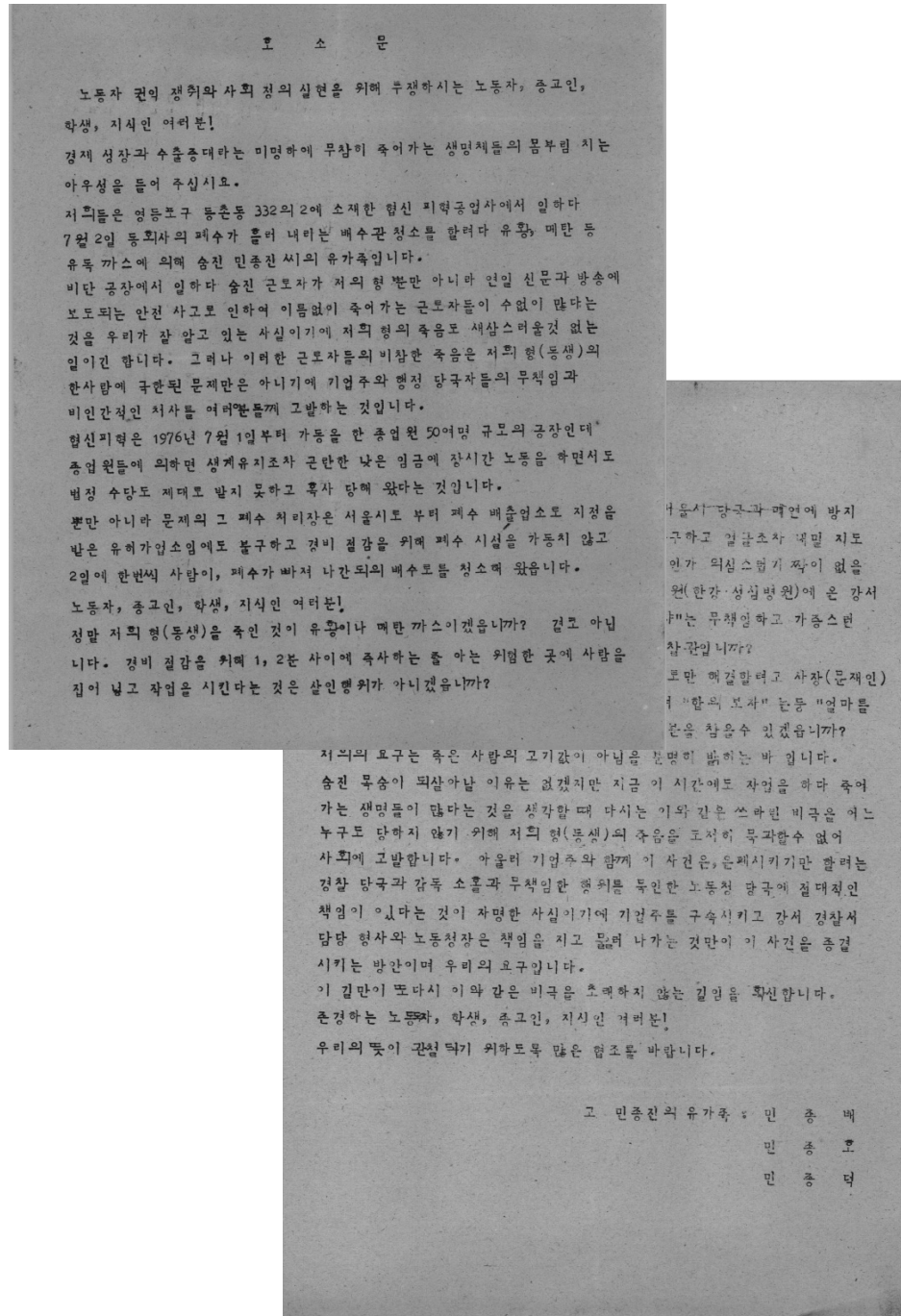
**이숙희** 영등포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중에서 굉장히 심하게 조사를 받은 조합원들은 다음 날 내보내주긴 했는데.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박순희** 투쟁도 너무 많았지. 날마다 투쟁해 날마다.

**이숙희** 그 과정에서 그때 박재익이 조사통계부장이었는데, 우리



창을 깨서 동맥 끊어지고 그런 상황들까지 생겼던 거죠.



협신평협 노동자 민중진의 질식사 관련 호소문, 전태일재단, 1977.

박순희 그림, 신광용 동지 간 건?

사회자 그거는 구국 사건이예요. 76년도.

신광용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탄압을 아주 강하게 받은 게 3·1구 국선언 하면서 었어요.

박순희 맞아, 삼일절 구국선언.

신광용 구국선언 하면서 민주 인사들 전부 다 잡아갔고. 기억나 는 게 함석헌 선생님 수염을 마구 잡아당겨서 수염도 빠지고.

박순희 맞아, 수염 막 잡아당기고. 그래, 그때 고문 많이 했지.

이숙희 이게 끝이야, 노조들이 그러고 끝이야.

박순희 아휴, 그러니까 살인마지, 살인마.

이숙희 그래서 그때 그 연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얘기한 대 로 유동우 씨나 박문담, 그 사람들이 전부 해고 노동자였잖아요.

박순희 해복투, 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였지.

이숙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밖에서 경인 지역이나 노동조합들 과 이야기해서 같이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원풍이나 다른 노조들도. 제가 알기로 원풍 같은 경우는 그 뒤로 삼일절 그런 싸움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구속까지 당하는 걸 봤고.

**사회자** 부활절.

**이숙희** 부활절 사건 때문에. 이소선 어머니하고 저희 몇 사람은 그날 못 나오고 그다음 날 못 나오고, 하루 더 영등포경찰서에 묵었거든요.

**이숙희** 그때 영등포경찰서 로터리 앞에 분수대 있는데, 거기서 또 경인 지역 노동자들이 전부 다 항의하고 시위를 하고 그래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신광용** 휘발유 통 들고 했어요.

## 6.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설립

**사회자** 그 얘기는 지금 잘 녹음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때 투쟁하는 과정에서 정말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일어난 거예요. 명동의 위장 결혼 사건도 있었고, 또 부활절 사건도 있었고. 아마 우리나라의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모든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은 다 참여해서 투쟁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니까 민주노조운동 절정기에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게 1979년도 YH 사건이에요. 박정희 암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계기가 마포 민주당사에서 있었던 YH 투쟁 사건이었죠. 그때 김경숙 동지가 희생을 당해서 죽게 되며 민주노조운동이 절정에 다다랐는데 전두

환이 들어서면서 노조 탄압이 시작되고, 청계노조를 비롯해서 민주노조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고 마지막으로 원풍모방이 깨지게 됐는데요. 완전히 강압적인 힘으로 문을 닫게 했죠.

그 이후에는 민주노조에 참여했던 모든 우리 동지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더 이상 취직도 못 하고. 지금 원풍모방 박순희 선배님이나 양승화 동지, 그리고 이숙희 동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취직해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낙인찍힌 거죠. 그러면서도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마무리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이 또 진행됐는지.

**박순희** 여기 5번에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설립 투쟁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때가 몇 년도냐면 84년도거든요. 84년 3월 10일, 우리가 홍제동성당에서 발족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국 노동자까지는 좋은데 복지를 왜 여기다 넣었을까요?

**사회자** 그때 복지 넣었었죠.

**박순희** 왜 넣었어요?

**사회자** 아니, 그 당시에 복지협의회라고 만들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박순희** 그러니까 여기 이름 속에 그 시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사회자** 네네.

**박순희** 그러니까 한국노동자투쟁위원회라고 하든지 건설위원회라고 하든지, 이 제목만 봐도 왜 복지를 넣었냐, 이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전두환이가 살인마 짓을 아주 기승을 부리고 할 때거든. 그러니까 좀 피해서 가자. 비를 좀 피해보자.

**사회자** 두리몽실하게 그냥.

**박순희** 두리몽실하게 복지협의회로 한 거예요. 이게 복지를 넣으면서 반발도 아주 많았고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복지를 넣어야지만 그래도 우산 역할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이때 해고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해복투는 있었어요. 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그러니까 해복투 사람들이 각계각층, 지역에도 많고, 그래서 해복투 투쟁위원회도 있었는데, 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를 다시 만들어야 됐는가, 이게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사회자** 네, 그러네요.

**박순희** 그래서 해복투는 개인이 싸우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직으로 싸우자,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름에 ‘투쟁’ 자를 못 붙이고 ‘복지’를 붙였다는 거. 그때 얼마나 전두환 이 살인마 새끼가 못된 짓을 하고 겁을 줬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 구성원인 노동자들이 위원장이 안 됐어요. 설립협의회로 해서 지학순 주교님에게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우산 역할을 하게 했고. 그래서 초대 이사장이 지학순 주교님이세요. 그래도 엄청난 탄압은 좀 피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복지협의회예요.

**사회자** 이때는 모든 노동자들이 다 참여한 거죠.

**박순희** 그렇죠. 그래서 홍제동에서 할 때 홍제동성당.

**사회자** 누구지? 김승훈 신부님.

**박순희** 김승훈 신부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이걸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원풍에서 조합비 뺏길까 봐 만들어놓은 돈으로 신길동에 빌라를 하나 샀잖아요. 지금도 그 집은 원풍 집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이때 속 썩은 생각을 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또 학생들과 노동자들이랑 규합해가지고 또 다른 단체를 만들었죠. 서노련, 인노련, 남노련.

**사회자** 그게 아까 우리 양승화 동지가 얘기했듯이 정치가 바뀌어야지 우리 노동 조건도 바뀌겠는데, 지금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갈급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이 교육을 할 때 정치 문제를 언급을 못 했잖아요.

**박순희** 그만큼 무서웠으니까.

**사회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치투쟁을 하기 시작한 게 85년, 86년 서노련, 인노련, 남노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투쟁도 같이 하게 된 건가요?

**박순희** 괜찮게 된 게 아니라 망조가 들렸지. 뭐가 괜찮아. 청계는 서노련으로 갔잖아.

**이숙희** 만들고 얼마 안 돼서 청계노조 내부에서 분리가 됐어요.

**사회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치투쟁을 할 거냐, 아니면 민주노조 투쟁을 할 거냐?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로.

**박순희** 뭐 정치 따로 있고 현장 따로 있어? 현장과 정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사회자** 그런데 청계노조도 전부 정치투쟁으로만 간 건 아니잖아요.

**이숙희** 대다수가 나갔고. 남아 있던 사람들이.

**박순희** 아니 그래서 서노련 투쟁하면서 뭐였죠? 청계 기와집인가 있었잖아. 기와장 다 날아간 그 사건 아니요?

**사회자** 그게 서노련 사건.

**이숙희** 박영진 사건 때 서노련 사건, 이렇게 됐지.

**박순희** 김문수 변절자가 거기 대장 노릇 하고. 그때는 변절 안 했어?

**이숙희** 이 문제는 신광용 씨가 좀 얘기를 해.

**사회자** 나중에 얘기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투쟁이 정치 투쟁화되기 시작한 거고. 왜냐하면 거리로 다 쫓겨났으니까. 그전에 노동 조합이 있을 때는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양승화**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70년대에 민주노동조합을 했던 데가 거의 다 참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70년대가 다 깨졌는데, 청계노조가 이제 합법성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중점으로 해서 싸움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청계하고 현장에 있을 때보다는 우리가 82년에 깨지고 나와서 한국노동자복지협회를 만들고 나서 했던 활동이 더 많아요.

**사회자** 서로 연대 활동이?

**양승화** 예, 연대했던. 그리고 84년도 3월 10일 한국노동자복지협회를 만들고 나서 5월 1일 날 형제교회에서 방용석 지부장님이 발제를 하면서 청계노조 해산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하면서 정부도 부르고 노동부도 부르고 그랬는데 애네들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발제하고 토론도 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9일인가? 구름다리에서 다 모여서 싸웠잖아요.

**사회자** 노학연대.

**양승화** 그때 원풍에서도 차언년 동지하고 지명환 동지가 거기에 참여했다가 연행돼서 욕도 엄청나게 먹고 맞기도 하고 이랬는데, 차언년 동지는 3일간 조사받은 다음 훈방되고 지명환 동지는 구류 25일 받고 정식 청구해서 10일 받고 이렇게 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구름다리에 모였을 때 노동자 학생들이 같이 가두투쟁을 한 거잖아요. 죽어라 하고 구름다리에서 뛰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안 뛰면 잡히고 최루탄 터지고 그랬으니까. 우리 방 지부장님도 그때 참여했던 얘기를 좀 하시기도 했어요.

우리 지부장님이 11월 6일, 구로공단에 있던 협진양행과 유니온전자(유니전) 사람들이 가서 농성하고 있으니까 방문을 했다 남부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남부서에서 중부서로 넘겨졌고 중부서에서 다시 서부서로 넘겨서 서부서에서 구류를 살다가 맞아서 고막이 터졌거든요. 그때 그렇게 되고 나서.

**박순희** 그 사건으로 지금 고막 터졌지.

**양승화** 예. 그리고 나서 11월 13일에 모란공원에서 전태일 열사 추도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석방되고 나서 바로 거기를 가신 거예요. 가니까 백기완 선생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거기에서 노동자와 학생들이 같이 만난 거예요. 어머니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 술도 한잔하시고 음식도 나누고 나서 한 500여 명이 거기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마석역까지 걸어서 가고 또 거기에 앉아서 연좌농성도 하고 이랬던 거죠.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이게 안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와서 한 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원풍 동지 중에 김두숙이라는 동지가 80년 합수사에서 해고당했거든요. 거기서 여군들이 기숙사 짐 강제로 빼서 해고를 당했는데, 그 친구가 81년도에 여기저기 뭘 했는데 취업도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탈출을 했던 친구예요. 탈출반이었거든. 그런데 그 동지에게 청계에서 탈출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와 가지고. 그래서 동대문성당 그때 아마 김승훈 신부님.

**박순희** 그때 김승훈 신부님 계셨어.

**양승화** 그래서 동대문성당에 갔는데 청계 식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 동지는 만나서 탈출 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너무 노동에 지쳐서 힘이 들고 피곤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쯤 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더 이상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접고 자기는 삼척 오빠네 집으로 내려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청계랑 연결시켜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꽤 있었는데.

**박순희** 노동 강도가 그만큼 심했다는 거야.

**양승화** 그때는 가장 그 중요했던 이슈가 청계노조를 정상화시키는 거. 이거였다고 봐요. 그래서 청계노조를 중심에 두고 각 사업장들이 거기를 다시 복원시키자 이런 거였다는.

**사회자** 마지막에는 연대투쟁이 청계노조 복원 투쟁으로 많이 이렇게 되었죠.

**양승화** 이게 모여서 했죠.

**이숙희** 우리가 노학연대만 얘기를 했지.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노노 간의 연대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사실 좀 잘 안 했던 것아.

**사회자** 그니까 노학연대 외에 이런 노조들끼리 연대.

**박순희** 청계피복 대의원대회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노동자들이 갔어. 사실 청계노조가 맨 처음에 될 때부터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가 없었잖아. 그래서 회의 진행 못하고 그러면 가서 쿡 찢러 가지고 이 발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진짜 형제 노조처럼 그렇게 했지.

**이숙희** 맞아요, 원풍하고는.

**박순희** 그리고 나는 어머님 창신동 사실 때 진짜 많이 가서 잠자고 엄마랑도 얘기하고. 엄마 수첩에 내 전화번호가 지금도 있잖아. 뭐만 있으면 나한테 꼭 언니라고 했어. 언니, 하면서 새벽이고 뭐고. 내가 그랬거든. 어머니는 걱정 근심할 거 하나도 없다고. 자녀들이 이렇게 전국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거나 의문 나는 거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잠안 오시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러면 진짜 엄마가 전화를 많이 했어.

**사회자** 그러니까 큰언니지, 큰 언니. 노동자들의 큰언니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박순희** 그래서 언니, 언니 하면서,

**이숙희** 지금도 활동을 안 하는데도 원풍 식구들하고 제일 가까이 만나고 보고 그리고 있어요.

**사회자** 오늘 좋은 기억들을 다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숙희 동지가 이야기했듯이 이전에는 우리가 노학연대만 생각했는데 정말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 우리가.

**박순희**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7. 결어

**사회자**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한 거죠. 일단 오늘 토론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꼭 한마디씩 내가 하지 못한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희** 저 같은 경우는 청계노조 조합원들이랑은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그래서 내가 원풍 조합원인지, 청계 조합원인지 모를 정도로. 저기 지부장들 지낸 동지들도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고. 또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지금 청계가 제일 활성화되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회자**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박순희** 중심에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70년대에 열 손가락 안에 꼽잖아요. 그래도 지금 근 몇십 년을 같이 진짜 동지로 결속을 하고 회의로 하고. 기행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총회도 하고. 그래서 아주 끈끈하게. 그리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좀 더 후배들이 노동운동을 잘했으면 좋겠다.

**사회자** 그래도 박순희 선배님이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현역처럼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승화 동지.

**양승화** 어느 노동 현장이나 다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청계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현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들 하셨고 또 정말 질기게 살아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뭔가 중심이 돼서 서 계시는 것 보면 참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태일 열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어떤 것을 깨우쳐주고 가셨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마석 모란공원으로 역사 탐방을 가면서 어머니 얘기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리면서 어머니 얘기 중에 좋았던 것이, 민주노총 집회에 가서 “야, 이놈들아 너네가 정규직을 천년만년 할 것 같으나? 비정규직도 돌아볼 줄 알고 챙길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다 똑같은데, 노동자들이 요즘 계급이 생겼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전태일법, 이래 가지고 5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부분은 정말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구심점에 우리 전태일 열사가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청계노조가 아주 잘 살아남아서 자기 역할을 잘해 주시면 또 참 좋겠다, 그리고 저희 원풍하고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사회자** 그러면 우리 이숙희 동지께서 잘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숙희**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학연대만 얘기를 했지 노노연대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일상적이고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반성 한 가지를 했고. 또 우리가 싸우고 힘들 때만 만나지 말고 이게 정말 70년대 민주노조운동 모임처럼 전체가 다 못 만나더라도 이렇게 몇몇 사람 씩이라도 만나서 계속 교류를 하는 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노동운동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본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힘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노조에서만 아니라 진짜 다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 현장들이 많잖아요. 양승화 동지의 말씀처럼 그런 현장들에 청계노조가 곳곳이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더 연대를 하고 함께하자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함께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보다 어려운 현장들을 살펴서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여성 노동자로서 또 민주노조를 사수하면서 만들어낸 주역들로서 많은 기대와 함께 우리가 건강하게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희 박순희 전순옥 양승화

# 3부

## 청계피복노동조합 x YH노동조합 연대

인터뷰 3회차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15:00



왼쪽부터 최현미, 전순옥, 최순영, 권순갑

“모든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듯이 다 돈 벌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죠. 당시는 80년대처럼 위장 취업이다, 이게 아니라 오빠 학비도 대고 동생 학비도 대고, 때에 따라서는 가장도 되고. 그렇게 돈 벌어서 시골 보내면 논도 사고 소도 사고, 저 같은 경우도 남동생이 셋이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 YH에 왔고. 당시는 도급도 많았어요.”



## 1. 여성 노동조합 — 전태일에서 김경숙으로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계피복노동조합(이하 청계노조)의 대외 연대 활동을 주제로 당시 지근거리에서 활동하던 분들의 구술을 통해 민주노동조합 운동사를 기록하는 제4차 전태일노동구술기록 사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노동운동, 특별히 또 여성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기억들이 흐려져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당사자들의 기억과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듣고 기록함으로써 한국의 노동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록을 남기기 위한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보니 학생, 어른, 외국인 등 전태일기념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곳곳에 있는 영상들을 보고 듣고 또 이런 노동운동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록도 우리가 잘 남겨서 후대들이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좀 더 기억하고 함께 그 시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동운동에 있어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전태일로 시작이 돼서 김경숙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는 당시의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운동의 범위를 넘어 정치,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가장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태일 정신에 기초하여 설립된 청계노조와 김경숙 열사가 소속된 YH노동조합(이하 YH노조)도 그 주역이었음이 분명함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YH노조에서 민주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최순영 전 지부장님, 그리고 권순갑 동지, 청계노조에서 활동하시며 YH노조와 민주노조 투쟁에 함께했던 최현미 동지를 모시고 두 노조 사이의 연대 및 인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전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순영** 저는 전 YH노조 지부장 최순영입니다.

**권순갑** 저는 전 YH노조 부지부장 권순갑입니다.

**최현미** 저는 청계피복지부 조합원이었던 최현미입니다.

**사회자**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개를 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먼저 소회나 이런 것을 앞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순영 지부장님 어떻습니까?

**최순영** 어떤 소개를?

**사회자**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가 진행될 텐데, 나는 그런 활동을 어떻게 했고.

**최순영** 그런 거는 질문에서 나오면.

**사회자** 질문에서 나오면 하시겠습니까?

**최순영** 그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얘기를 시작하면 한이 없어질 것 같아서.(웃음) 그렇게 질문하면 간단하게.

## 2. 노동 현장 투신 과정

**사회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식에 구애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소개가 있었는데 우리 동지들의 연대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동지들께서 노동 현장에 참여하게 된 전후에 각자의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하게 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청계노조나 YH노조나 현장은 달라도 노동 운동의 경험은 공통점이 서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 70년대 당시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어용노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로 각 사업장에서 여성 중심의 민주노조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특별히 YH에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의 현황이나 노동 조건, 또 연령이나 성별, 교육 수준 등. 왜냐하면 당시 그 회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지. 그때 공장이 면목동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을 한 사람들이 다 면목동 사람들은 아닐 거고. 그런 지역적인 내용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오게 된 동기, 또 특별히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발적이라든지 아니면 집안 형편이나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 또 진학을

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컨대 형제자매가 있는데 나는 남동생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 나가서 일을 해야 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공장에서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순영 지부장님.

**최순영** 일단 6, 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현장에 올라오기 시작하죠, 대개 농촌에서. 사회자께서 물어봤듯이 서울 사람보다는 농촌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돈 벌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죠. YH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와요. 물론 근로기준법 상에는 고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니 주민등록증을 가져온다거나. 그래서 저도 시골 가서 그런 어린 동생, 친구 동생을 데리고 왔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막 졸업한 친구를 화장을 시켜서. 회사도 다 알죠. 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12~13살인데. 그래도 당시 회사는 사람 하나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보이는 거죠. 노동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버는 거니까. 다 그렇게 취업을 했었죠.

YH 같은 경우는 66년도에 자본금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제가 입사할 때가 정확히 70년도예요. 그때 한창 YH무역주식회사가 가발 수출을 많이 하고 붐을 탈 때였어요. 그래서 78년도에 석탑 훈장까지 받고 했죠. 제가 70년에 입사할 때, 그러니까 설립 후 4년 만에 YH가 노동자가 몇 명으로 불어났냐 하면 4,000명이었어요. YH가 설립할 때는 성수동에 몇 평 안 되는 곳에서 친인척 중심으로 10명이 가발을 했는데, 당시는 수출을 하면 국가가 무조건 돈을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니까 국가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 짓고. 그래서 제가 입사할 때 대지가 한 2,200평 정도 됐어요. 건평은 한 2,400평. 지금 녹색병원 자리가 YH무역주식회사 자리입니다.

또 모든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듯이 다 돈 벌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죠. 당

시는 80년대처럼 위장 취업이다, 이게 아니라 오빠 학비도 대고 동생 학비도 대고, 때에 따라서는 가장도 되고. 그렇게 돈 벌어서 시골 보내면 눈도 사고 소도 사고. 저 같은 경우도 남동생이 셋이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 YH에 왔고. 당시는 도급도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13시간, 14시간. 청계는 16시간을 일했다고 해서, 그럼 내가 잠은 언제 자냐 묻기도 했는데.(웃음) YH는 도급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밥 먹고 오는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빨리 기숙사에 뛰어가서 후다닥 밥 먹고 오면. 내가 지금도 굉장히 밥을 빨리 먹고 빨리 걷는데.(웃음) 한참 그때가 열아홉인데, 생각해 보세요. 한참 소년 시절에 한 10년을 그렇게 몸에 배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린 공장에서 그런 훈련이 됐죠.

그렇게 하면 전습공 초봉 2,500원을 받는데, 그때는 기숙사를 막 짓고 있을 때라 기숙사가 없었어요, 공장에만 4,000명인데. 그러니까 면목동 전체에 개인이 기숙사를 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냥 방만 있으면 개인이. 그래서 방 한 칸에 한 15명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면 저 끝에서부터 아랫목으로 쪽 올라오죠, 인원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머리에 이가 생겨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인원. 그러다 한 71년도인가? 기숙사가 완공이 됐는데, 기숙사를 가도 마찬가지죠. YH가 굉장히 현대식 건물이고 좋아요. 그런데 기숙사는 아주 형편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수출을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공장이 아주 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병원도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병원 했어. 그 건물 그대로니까. 수세식이었고. 다른 데에 비하면 노동 환경은 아주 좋았죠.

제가 시골에 있는 친구, 동생 따라서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사실 YH를 간 것이 아니라 마장동에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 서울 가면 굉장할 줄 알았는데, 마장동 뚝방을 갔던 거야. 거기 염색공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가건물에. 근데 제가 보니까 도저히 거기서 일을 못 하겠는 거야. 냄새도 나고 다 무허가 건물 그런 것이었는데. 근데 그 조그마한 방

에 15명이 잠들고 있어서 어떻게 여기에 15명이 자냐 그랬더니 12시간 맞교대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또 밥을 가져왔는데, 완전히 이걸 뭐 밥을 못 먹겠어요. 도저히 거기서 못 살 것 같아서 친구하고 다시 내려가자, 나 이런 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랬더니 친구가 그래도 돈 벌러 와서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내려가냐 그래서. 친구 언니가 YH의 조장으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길을 모르는데도 그 언니가 있는 YH를 물어 물어,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때 YH를 찾아갔는데 모집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건물에 너무 좋아. 아, 이 정도면 일할 수 있겠구나.

**사회자**      건물을 짓고 나서 간 거네요.

**최순영**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에 아까 얘기했듯이 4,000명 된 다 그랬죠. 한창 붐이. 그때는 아마 다 우리가 돈으로 보였을 거야. 아, 저기 돈이 굴러가네. 저거 어떻게 데리고 오지? 막 이렇게. 사람 하나 데리고 오면은 3일간 휴가 주고 그랬으니까.

**사회자**      소개해주는 사람을?

**최순영**      그럼요. 당시 한일합섬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산업체 학교를 만들어놓고 버스로 가서 모집해 오고 그랬죠.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데리고 오면 휴가도 주고. 그렇게 사람 자체를 많이 오게 하고. 단순노동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4,000명이라 하더라도 사실 서울 사람은 20%도 안 될 거예요. 거의 지방에서 올라온 여성노동자들이고, 나이는 10대, 20대 초반 이런 여성노동자들이죠. 그리고 하는 대로 먹고. 도급이 없으면 그나마 받지도 못 하고.

**사회자** 그러면 그때 13시간 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최순영** 그런데 저는 기술이 좋아서 봉급을 많이 받아서요.(웃음)

**사회자** 일을 잘했군요.

**최순영** 제가 손으로 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손가락이 다 빠툴어져 있어요. 하도 일을 하고 그래서. 무좀도 걸려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우리 현장에 보면 폐병 걸린 친구들도 있었고, 들어와서 앉아만 있으니까 위장병도. 섬유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도 있고.

**사회자** 그렇게 멋있는 현대식 공장인데 왜 기숙사는 환경이 안 좋았어요?

**최순영** 기숙사는 뭐 똑같이 그냥.

**권순갑** 그때 기숙사를 보면 딱 징역 갔다 온 사람. 아주 징역, 감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찬물만 나오니까 겨울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머리를 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머리 대고 자고. 똑같아요, 똑같았어요.

**사회자** 그러니까 이가 많이 생기고.

**최순영** 그렇게 들어와서 일을 한 거죠. 올라온 동기들이 그래요.

**사회자** 권순갑 동지는.

**권순갑** 나도 마찬가지죠. 나는 집에서 막내예요. 막내여서 뭐. 시골이 다 어렵게 살았지만 또 다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못 느끼고. 다 보리밥 먹으니까 나도 보리밥 먹나 보다, 이렇게 살았죠. 저는 언니가 면목동에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언니네 집에 왔는데 YH에서 모집을 하는 거야. 모집 광고가 붙은 거예요. 넣었더니 두말할 것 없이 됐죠. 최순영 언니는 YH 수제 파트였어요. 그래서 도급이었는데. YH 전체가 도급은 아니었어요. 나는 미용 파트로 들어갔는데, 우리 언니네 집에 있다가 기숙사로 들어갔죠.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완전히 이건 무슨 돼지우리도 아니고. 양쪽에 선반이 있어요. 여자들이니까 짐이 많아요. 선반에 자기 짐을 놓고. 감옥도 똑같잖아요.

**사회자** 구치소 방하고 비슷하게.

**권순갑** 똑같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사회자** 언니네 집에서 모집 광고가 있는 거 보고 들어가고. 그러면 당시 YH 들어갈 때 나이가 어려도 주민등록증을 바꿔서도 갈 수 있고.

**권순갑** 나는 그렇게 나이가 안 어려서 왔지. 18살인가, 그때 처음 YH에 들어갔죠.

**사회자** 최현미 동지는 YH를 알게 된 건 언제입니까?

**최현미** 아니, 저 들어온 거 먼저 해야 되나? 평화시장 들어온 거 먼저?

**사회자** 평화시장 들어온 것부터 하실래요?

**최현미** 네. 저는 답십리 쪽 전자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에 똑방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야학을 했어요. 서울대 다니는 오빠들이 야학을 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제 의식화를.

**최순영** 의식화 교육 받았네.(웃음)

**최현미** 네, 그래서 제가 좀 빠릿빠릿해요, 덩치는 커도. 그러니까 야학 회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루는 명동 YWCA에서 근로자하고 대학생하고 합동 캠프가 있으니까 갔다 오라고. 부회장 하는 애랑 같이 갔었어요. 갔는데, 청계에서 온 이숙희 언니가 전태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빛, 그 언니의 눈빛을 보면서 얘기를 듣는데 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까? 궁금증이 굉장히 생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전자 회사를 다니다가 자꾸 혼란이 와서. 아,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평화시장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야학하는 오빠들한테 나 평화시장에 취직할 거다, 그랬더니 거기 힘들다고.

**사회자** 그게 몇 년도예요?

**최현미** 75년도예요.

**사회자** 대단하네.

**최현미** 거기는 힘들다, 그래도 전자 회사는 일찍 끝났으니까. 그

런데 내가 한두 달 만인가 전자 회사를 그만두고 평화시장을 찾아갔어요. 지금 가서 보면 신평화 쪽에 동문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지나는데 ‘시다 구합’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시다가 뭔지도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다가 뭐냐고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옷 만드는데 기술 없는 애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문에 붙여진 데 두들기면서 시다로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이숙희 언니를 찾아갔죠. 그때 거기에서 만난 다음에 내가 평화시장에 들어왔다.

**사회자** 대단해. (웃음)

**최순영** 그게 몇 살 때예요? (웃음)

**최현미** 스물? 아니, 열일곱. 그때 숙희 언니가 스물한두 살 정도 됐었을 때니까. 의식도 제대로 없으면서 어리바리했는데, 뭔가 머릿속에 전태일의 삶과……. 그리고 그 내용을 아주 또랑또랑하게 얘기했던 이숙희 언니의 강인함을 받고 평화시장에 제 발로 왔습니다.

**사회자** 위장 취업 아납니까?

**최현미** 위장 취업은 아니죠.(웃음)

**사회자** 의식화된 노동자가.(웃음)

**최현미** 의식도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야학에서 한참 의식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설들은 채로 온 거죠.

**권순갑** 그때 우리는 한창 노동조합 만들려고 했을 때인데.

**최순영** 그건 위장 취업도 아니고 단지 취업을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지. 우리가 75년도에 노동조합 결성을 했어요.

**최현미** 거의 가을 넘어서 취직했을 때인데, 잠바 만드는 데 처음 들어갔어요. 가서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원래 시다를 한 2, 3년 시킨대요. 보통 그대로 하고 그러는데, 저는 좀 해보니까 미싱도 할 거 같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하고 다른 공장에 미싱 보조로 갔어요. 그런데 미싱 보면 복잡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끼는 거. 그걸 몇 번 해보기는 했는데 그러고 일단 배짱 좋게 갔어요. 가서 나 미싱 보조라고 하니, 얼마나 했냐 그래서 한 1년 넘게 했다고.

**사회자** 그렇게 임금을 올리는 거지.(웃음)

**최현미** 보조로 갔을 때 임금이 배가 더 올랐죠.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얼마 받고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진 않는데, 그래도 시다 때 몇 개월 동안 받았던 월급보다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게 미싱 보조로 일을 하면서 청계노조를 알았죠.

**사회자** 75년도만 해도 근로 조건이 조금 좋아지고 시다들의 임금도 조금은 올라갔을 때니까.

**최현미** 얼마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한 2만 원은 받았는지.

**사회자** 하여튼 그 당시에는 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고살기 위해

서.

**최순영** 그렇죠. 우리는 75년도에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다른 데보다 조금 늦었죠. 다른 데보다.

### 3. 민주노조 설립 전후의 상황

**사회자** 그러니까 민주노조를 완전히 잘 마무리를 하는 YH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YH 민주노조가 설립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YH에 민주노조가 설립될 당시에는 이미 청계노조를 비롯해서 원풍, 동일, 콘트롤데이타 등 민주노조들이 좀 결성돼 있었던 시점이었죠. 그러다 보니 YH 노동자들. 최순영 전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학습도 많이 했고.

**최순영** 우리는 전혀 안 했어요.

**권순갑** 완전 고립됐었어.(웃음)

**최순영** 중요한 게 YH는 공단하고 멀어요. 제일 가까운 게 청계야. 우리는 주택가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톨릭노동청년회(JOC), 도시산업선교회 등과 전혀 관여가 안 됐어요.

**사회자** 그러면 전혀 의식화, 연대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다 뚫고?

**최순영** 뚫기는 뭐.(웃음) 중요한 건 YH는 그런 의식화된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었고, 관계된 사람도 없었고.

**사회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순영** 그랬기 때문에 훨씬 더 자발적, 주체적으로 단결이 잘 되고 더 좋아. 저는 더 잘했다고 봐요. 외부에서 자꾸 누가 들어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에서 주체적으로 순수하게 교육하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자** 순수했었다.

**최순영** 순수라고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고 주체적이었다.

**사회자** 주체적이었다.

**최순영** 더 주체적이었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노동조합에서 결정하고. 정말 민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아주 잘.

**사회자** 그런데 외부의 연계 없이 내부로 뚫뚫 뭉쳐서 주체적으로 하는 과정이라면 회사 측의 방해가 아마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최순영** 아, 말도 못 했지, 우리는.

**사회자** 방해 공작이 엄청 심했을 것 같아요.

**최순영** 그렇죠. 저는 노동조합이 뭔지도 몰랐고. 아까 권순갑 동지가 얘기했듯이 제가 기술이 좋아서 수제였어요. 5년 정도 하면 고참이야. 내가 또 모범생이었거든. 봉급도 제일 많이 받았어.

**권순갑** 제일 많이 받았지.(웃음)

**최순영** 또 아까 얘기했잖아. 15분 만에 밥 먹고 왔으니까 아주 회사에서 완전히 신뢰하고 또 일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돈을 벌어서 기숙사 생활 안 하고 자취했었어요. 기숙사에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기숙사에서 일찍 나와서 우리 동생 데리고 와서 학원도 보내고 자취를 했는데.

회사에서 일이 많으니까 다른 데에 하청을 많이 줘요. 회사에서 하청 공장 가서 검사하고 오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노력하면 돈을 더 버는데. 그래서 아이고, 하고 어디 하청 공장에 갔더니 오히려 이걸 하면 돈을 벌겠더라고. 이야, 이거 돈 벌겠는데? 나도 하청 공장 해야지 그런 생각도 했었지. 노동조합 안 했으면 아마 나는 하청 공장 했을 거예요.

**사회자** 하청 공장 했어도 많이 벌었겠네요.

**최순영** 그런 거 했겠지. 그런데 내가 포섭 대상이었지. 모범생이고 이러면 노동조합하는 데 포섭 대상이 돼요.

**사회자** 노동조합 쪽에서도 포섭의 대상이었다.

**최순영** 노동조합 결성하려는 쪽에서. 결성을 하려는 쪽도 그제



최순영

“저는 더 잘했다고 봐요. 외부에서 자꾸 누가 들어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에서 주체적으로 순수하게 교육하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한 부서에서 재네가 무슨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 부당한 대우 때문에 데모를 한 거예요. 그냥, 몇 명 조장들이 해가지고 그랬는데.그때 우리는 데모하면 뭐 다른 게 없거든, 용마상가 가서 놀다 오고 이런 건데.(웃음) 그때 누군가가 이제 데모한다 소리를 듣고 섬유 본조를 연결시켰잖아. 그 친구들 중에 가톨릭 신자가 하나 있었어. 그게 어떻게 돼서 섬유 본조하고 연결을 시킨 거야. 그 부서의 주동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해야 이런 것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노동조합이 뭐냐, 이러니까 다들 몰라. 그런데 섬유 본조의 교선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연장 근로 안 하는 수요일에 다방에 와서 몇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자**      교육을 시켰구나.

**최순영**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조직하려고. 노동조합 결성하려고. 그때 우리 인원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포섭 대상이 돼서 거기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 초창기 때 사무장이 저를 포섭했는데, 저에게 노동조합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가입 뭐 이런 거 붙여놨던데 뭘 또 해,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일단 가보래.제가 시간도 나고 그래서 가봤는데 깜짝 놀란 게 근로기준법에 연장 근로 수당 주고 퇴직금 준다는 거야. 뿡 간 거지.(웃음)

**사회자**      노동조합을 만들면.

**최순영**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만 일하고 그 외에는 연장 근로 수당을 주고 일요일에 논다. 그러는데, 이게



뭘 천지개벽이야. 그건 공무원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퇴직금도 준대. 그래서 뽕 갓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공장장 처남을 포섭했어. 여자만 가지고선 안 된다, 그래서 남자를. 공장장 처남을. 그런데 공장장 처남이 왔다가 뿌르르 가서 공장장한테 다 일러버린 거야. 그래서 주동했던 사람 다 해고시켰어요. 그리고 나도 해고를 시켜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긴가민가한 거야. 일도 잘하고 하니까. 그 길로 횡성으로 출장을 보내버렸어. 출장 보내놓고 저를 감시해라 이런 거예요, 사장한테. 그때 권순갑 없었나?

**권순갑** 초창기에 없었어.

**최순영** 하여튼 셋만 모이면 회사가 따라붙었다.

**사회자** 그때가 75년도?

**최순영** 75년도.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정확히 5월 24일에 결성식 했는데, 연초니까 3월부터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이게 둘, 셋만 모이면은 따로 감시 대상이 돼가지고 살벌한 거예요. 나는 쫓겨난 거지. 그리고 난 도저히 궁금해서 못 살겠는 거야.

**사회자**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순영** 어떻게 돌아가나. 그러다가 하여튼 중간에 우리 시골집에서 전화 왔다 어쩐다 하면서 잘못 와전돼 가지고 뭘 일인가 하고 혼자 뛰쳐 올라왔어. 그랬더니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같이 자취하는 친구한테 회사 상황을 얘기 듣고. 노동조합 결성하려다 실패했고, 이랬다는 거야. 그

이튿날 회사에 들어갔더니 날 보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바로 출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장을 갔는데, 그때 이철순 씨가 JOC에서 처음 날 만나러 온 거예요. 찾아와서 서울 이야기 하면서 노동조합 결성 주도를 해줘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있는데, 거기 하청 사정도 나더러. 그때 하청 공장이 YH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니까. 그때 어디 노동조합 있는 것도 하청 받았어.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아, 노동조합은 있어야 된다면서.

**사회자** 하청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최순영** 본사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노동조합이 있는 본사. 그때 그게 쌍용인가 어딘가?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 하청 공장 사장도 날 보고 노동조합이 있으면 좋지, 이래서 그럼 내가 노동조합 하죠, 이랬더니 그럼 난 문 닫아, 이러는 거야.(웃음) 그리고 나보고 같이 동업하자고. 일을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왜 당신하고 동업하냐고, 나 혼자 할 거라고. 이려고 한 달 넘게 아주 착실하게 있다가 다시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오자마자 자재과장이 만나자고 그러더니 자기도 강릉 사람이라. 그리고 불고기를 사주면서 당신이 회사를 도우면 회사가 잘되고 저 해고된 사람들을 도우면 회사가 망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러면 회사를 도와야지, 내가 그렇다고 망하게 할 수는 없잖으냐고. 그러면서 미스 최, 미스 최 그러는 거야. 그전에는 미스 최라고 부르지도 않거든. 아무개 막 이렇게 이름 부르고. 그러면서 뭘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상의하라 그리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노동조합은 해야 되겠구나, 와서 다시 조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조직을 했는데, 노동조합 결성하는 날에 탄로 났어. 아유, 그때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지. 그때는 내가 최고 고참이니까 친구들한테 노동조

합 하면 퇴직금을 준다, 내가 퇴직금 다 받아줄 테니까 나 따라와. 그러니까 다 따라올 수밖에. (웃음)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 다 퇴직금 받아 줬어.

**사회자** 아, 결국에는.

**최순영** 결국에는. 그때 한 2,000명 됐는데, 이 친구들 해서 50여명 모여 가지고 결성식을 하다 탄로 나서. 다시 또 섬유 본조 옆에 여관에 갔지. 지금도 합정동 왔다 갔다 하면 저기 모여서 노동조합 했을 때 생각 나요.

**사회자**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을 할까 봐 출장을 보냈는데, 출장 가서 노동조합을.

**최순영** 그렇지, 더 알게 되었죠.

**사회자** 문제의식을 더 가지고 돌아왔네.(웃음)

**최순영** 하여튼 노조를 만들었는데 나더러 지부장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지부장이고 뭐고 다 귀찮고 하청 공장해서 돈 벌어야 하는데, 지부장을 할 사람이 없다고 지부장을 하라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 이튿날 출근을 했는데, 우리 부지부장이 둘인데 하나는 매수돼서 없어지고.

**사회자** 아, 그 당시에는 매수도 직접하고 그랬군요.

**최순영** 그럼요. 매수해서 안 나왔어. 그리고 나는 가만 놔두고 내 주변 사람을 다 못살게 구는 거야. 화장실 청소 시키고, 창문 청소 시키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 나를 해고시켰어요. 본사에서 내려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 지부장 이렇게 돈 먹었다, 그래서 해고시켰다, 이라고는 공장장이 나를 불러서 가만히 있으면 하청 공장 한다는데 하청 공장도 차려주고 동생 공부시킨다는데 공부도 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시집갈 밑천도 섭섭지 않게 하겠다. 아마 그때 그랬으면 어마어마.

**사회자** 그런 식으로 회유를 한 거죠.

**최순영**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잘못해서 해고를 시켰으면 말아야지, 왜 그렇게 하나, 그건 아니다, 이라고 나왔죠. 나와서 섬유 본조에 다 전화를 했어. 나 이렇게 해고됐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섬유 본조 사무총장인가? 일신방직 고의석 지부장, 사무총장이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광주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인복은 있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여튼 그 사람이 나 보고 최 지부장 사표 쓰면 안 됩니다, 2,000명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기독교인도 아닌데요,(웃음) 그랬더니 하여튼 신고필증 나올 때까지 사표 쓰면 안 된다고.

그래 놓고 회사가 너희 지부장 매수됐다 이러면서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나를 계속 매수하려고 잡으러 다니고. 그때 회사 어떤 사람을 꼬셔 가지고 네가 최 지부장을 꼬시면 과장으로 승진시켜준다, 그래 가지고 같이 자취하는 친구가 맨날 버스 정류장에서 날 기다리고 있고. 내가 집을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계속 납치할까 봐.

**사회자** 그러면 75년도에 노조 설립하면서 이후로는 정상적인 일을 못 했겠네요.

**최순영** 그렇죠. 일주일 만에 해고가 돼서. 해고되니까 맨날 섬유 본조에 출근을 했지. 할 일도 없고. 나는 뭔지 알아야 이제 싸울 수 있으니까.

**사회자** 싸우려고 생각은 하셨나요?

**최순영** 복직은 해야 되니까. 부당하게 해고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섬유 본조가 출근 시간에 나보고 회사 앞에 가서 매수 안 됐다고 알려라. 그때 처음으로 연대. 원풍도 왔던가? 주변에 몇 개. 그래서 섬유 본조에…….

**사회자** 주변 노동조합들이 가서 연대 투쟁을 해준 거예요?

**최순영** 연대 투쟁을……. 그때는 많이 오진 않고. 내가 보기에 원풍이 왔나, 안 왔나? 나중에 같은 섬유 본조에서 전부 와서 내가 매수 안 됐다 하는 걸 알리고 퇴근 시간에도 가서 알리고. 그러다 경찰차에 잡혀서 태릉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지. 그런데 그때 배상호인가? 한국노총 위원장이 통금이 지났는데도 와서 동지들 고생한다고 악수하고. 속으로 아, 노동조합이 굉장하네. 통금이 지났는데도 나오고.(웃음) 그러면서 지금 통금이라서 못 나가니까 고생 좀 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튿날 또 나와서 계속 그러면서. 그때 섬유 본조에서는 우리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회사 앞에다가 아예 독채를 하나 얻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합원이 우리가 2,000명이 됐거든. 그때는 서울지부가 분회를 만들어서 장난질을 할려고. 그때 1,000명 미만이면 분회가 되고 1,000명 이상이면 지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장난질을 치려고 했나 봐요.

**사회자** 그 당시에 복수 노조가 허용됐나요? 그럼?

**최순영** 복수 노조는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섬유 본조가 딱 치고 앉아서 조합원들 교육하고, 우리가 가입 원서를 900매를 받아 왔어. 조합을 결성하고 나서 조합원들이 기숙사 이불 속에서 다 써가지고. 진짜 브래지어 속에 감추고. 기적적인 거죠. 퇴직금 주고 연장 근로 수당 주고 일요일에 논다는데, 사람들은 다 뿔 갸 거지.

**사회자** 그런데 바깥에서 해고까지 되고.

**최순영** 한 달 만에 복직은 됐죠. 전태일 열사 얘기도 처음 듣고 했는데 그건 그때 귀에 들어오지도 않지. 그래서 섬유 본조에 갔는데 쟁의 부장이 나보고 구제 신청 조사받으러 갈 때 이건 부당 노동 행위니까 가서 분명히 잘 해야 된다, 만일 복직 안 시켜준다고 그러면 거기서 울고 땡깡 부려라, 그 얘기를 한 거야.(웃음)

**사회자** 교육을 잘 시켜줬네요.

**최순영** 싸우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노동청을 갔지. 북부지방사무소를 갔어. 밖에는 근로자보호센터라고 써 붙인. 들어가 보니 아, 이건 완전히 사용자 같은 사람들은 앉아서 조사 받고 노동자들은 그냥. 그때만 해도 근로감독관 일이 엄청 많았어. 생각해봐. 돈 못 받고 이런 막노동자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근로자 보호가 아니라 완전히 사용자 보호센터야. 조사를 받는데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해서 울면서, 나 복직 안 시켜주면 저 간판 끌어안고 여기에 와서 죽을 거라고. 막 울고 그랬더니 나오는데, 근로감

독관이 미스 최! 미스 최, 죽지 마! 복직시켜줄게.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전태일 열사 기억이 자기네한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저 어린 여성이 보니 죽을 것 같은 거지. 내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웃음)

**사회자** 전태일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최순영** 24살. 그러니까 생각해봐. 24살짜리가 거기 와서 난리 치니까 자기네도 섬뜩했지. 복직이 돼서도 얼마나 회사하고 싸운지 몰라요.

**사회자** 대단하셨습니다.

#### 4. 학습을 매개로 한 연대 과정

**최순영** 그런데 내가 인생에서 유턴한 거는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 받고 나서인데. 쟁의부장 표영삼 씨라고 너무 훌륭하신 분. 이 양반이 천도교에서 역사 뭐 이런 거를 하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천도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양반이 맨날 내가 가면 딸 같으니까 옆에 앉혀 놓고 공부시키는 거야. 다 도둑놈들이니까 믿지 말라고.(웃음) 그러면서 원풍모방 소개시켜주고 동일방직, 반도상사 이 3개를 소개 시켜주고 이제 같이 지내라, 그러면서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을 해준 거지. 내가 회의 진행을 할 줄 알아, 뭐를 알아? 그래서 회의 진행법도 다 써서 총회할 때 주고. 그 양반이 산을 좋아했거든. 매일 도봉산 가고, 어디 가서 교육시켜주고. 완전히 진짜 딸처럼 해준. 나는 그 양반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스승이었지.

**사회자** 섬유노조 본부에서. 그때 교선부장이 이원보 선생님이었는데.

**최순영** 이원보 선생님은 그렇게는 못 하고. 진짜 위장 취업들이었지 않나.(웃음)

**사회자** 그러면 당시에 크리스찬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교육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이를 통해 다른 노조들하고도 많이 연대를 할 수 있었겠네요?

**최순영** 그럼요. 내가 크리스찬아카데미 4박 5일 교육 가고 너무 좋아서 우리 간부들을 여기 다 보냈어. 교육을.

**사회자** 그때 권순갑 동지도 갔었어요?

**최순영** 그럼요.

**사회자** 그럼, YH노조가 정상화되면서 그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권순갑** 아뇨. 내가 들어와서 조합원 가입서를 받았으니까.

**최순영** 그럼, 했지.

**권순갑** 막판에 냈고.

**사회자** 막판에 들어오면서 노조 조합원들 받고 하면서?

**권순갑** 그때 지부장님은 섬유 본조 얘기도 듣고 교육도 받고 했지만, 조합원들은 아무도 배운 게 없었으니까. 지부장님이 그때 회사 근처에다 방을 얻어서 자취를 했어. 밤마다 우리는 자취방에서 소그룹을 하죠.

**사회자** 아, 소모임.

**최순영** 우리 집이 아주 완전히.

**권순갑** 밤마다 소그룹을 하고, 그러면 이제 대의원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바깥에 누구의 도움으로 된 게 아니고. 그 첫 대의원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가입서를 진짜 목숨같이 받아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숙사 이불 속에서도 받고, 자취하면 자취 집에 찾아가서도 받고. 아무튼 그래서 거의 조합이 형성된 거지. 예를 들면 조합에서 나오는 얘기가 즉각 즉각 조합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시행을 하고.

**사회자** 그렇게 전달될 정도로 조합이 결집력, 응집력이 생긴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권순갑** 그때는 다 그랬지만, 우리 YH가 인원은 많았어도 사실은 굉장히 저임금이고. 수제 방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15분 밥 먹고 일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착취잖아. 저는 마지막 공정이 미용부였는데 야근 수당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언제까지 수출해야 된다 이런 게 걸리잖아?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노동조합이 생기면 수당도 생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퇴직금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한단데. 우리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단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사람들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만 해도 그야말로 진짜 고립되어 있는 회사였어요. 간부들이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굉장히 흡수를 빨리빨리 했다는 거야.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보너스도 타 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나오니까.

**사회자** 그 당시에 한 4,000명 되는 노동자들이.

**최순영** 2,000명 됐어. 직원이 줄어서.

**사회자** 맞아, 그랬다고.

**최순영** 점점 줄었는데, 그때 남성하고 여성 비율은 어땠어요?

**권순갑** 남성은 관리자. 그다음 전기, 변전소 있잖아. 변전소에 2명인가 4명, 그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사회자** 그리고 모두가 여성 중심이었으니까.

**최순영** 우리는 아예 남자는 빼버렸어. 그때는 유니언숍이었잖아, 유니언숍 하면서 남자를 제외시켜버렸어.

**사회자** 그래요? 그게 가능했습니까?

**최순영** 남자도 별로 없었고. 남자 기사들한테 얘기했지. 우리가 노동조합 되면 너네도 좋아지고 하니까 굳이 조합에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골치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라.

[illegible]

이는 경제정책에의 최근 개정결정내부의 부흥을 반영한것이다.

최장교 그 가족들이 내국에서 농작업등을 하여 사는 것을 보아지도 나직나는  
내외장이 같이 노역하는 형편등의 거치는 일로써도 얼마 작게는 살겠다고  
하는 사조와같이서는 결국이 차남인가? 이준 이거라 결정당시에 저지라는  
노동조합을 작게 작게씩 노동조합의 급임자인 노동자를 위하여 있는것이요.  
이 급임자 자신이 1972년 10월 총회 결산으로 정부수익과 우리 재산을  
지원했다고 하는고 심하게는 전이 그를 더욱더 열었던 사실이란 사건이다.

결과를 생각해 다른 과업을 찾아갈 형편을 결정하고 함께 일자들  
함께했던것이 최사장의 자취를 너무나 본전적 보여주고 있다.

생각 회상은 이상현상으로서 두번을 거리고, 더욱나쁜 조건으로 너른고있다.

심도신장은 의사상 경향 오경하고 했던 1973년 동기같은 경계를 누르고  
**있다**. 가장한 경우도 1978년 3월말현재 약 66만 달러성장을 수유하여 1977년  
3월말 보다 네배성장한은 287%의 수익성률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한 주사기는 신원은 50억달러로 새 수출비율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한원천 400여명의 1/3 이하 고등교육 및 장제중도 나머지  
7/8은 학생이 되었고 있는 것이다. 최사는 인격과 정열적, 참된  
노력까지 평화를 통해 모략만을 흔들고 있는것이다.

이처럼 최씨의 거짓말과 행위는 눈부랴간건으로 되고살게되며, 그리고  
내일의 보람만 있을 보람만하는 전보시국과 피서결정<sup>1</sup>은 순순한 공과는  
괴란 주권선호 : 우리는 지금까지 우박의 없이 달는데까지 정보시국과  
생산성 증진에 적극 협조하리라. 77년 4월24일 보도자료, 결산한 이후  
우리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옹호로 보이는 극적인 발전이 지금이라고 생각  
하고 자원이 없는 우박사태에서는 근로자의 입지를 좁게하여야 근로자들이  
관리를 하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별하며 해고공과 연금장려를 함으  
고있어 정부에 대한 노력을 하여 이익을 얻어야 하느니라. 77년도까지도  
조합 단원 500명을 감수하였으나 후속 임시금(상대) 지급에는 서울시장

100%로 저급하다는 직권조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  
다는 회장과 동원인 모조를 받아들여 50%만 감겨도 됐으며 심지어는  
성원회장과 임시금 (상이금) 저급을 회사사정이 용이할때까지 거둬  
고하고 다시 앞보였었다. 정상으로 공장을 돌리면 양적으로 그 내급을  
감작은 하면서도 정으로 공장이면 정액의 몫을 보였었다. 이러한 우회와  
회장판인 안보와 결국도 지금 우회까지 유지한 모양은 무엇인가?  
1년동안에 1500여명의 조합원이 회사측의 양호에 의해 일장간에 못  
난지 생활하고 견디고도 살았으며 겨우 눈물을 삼켜 들어 간장에서는  
3년만에 방면 저급하고 근로조건 개선이 신음하여 앞으로 심정치는 사회의  
일바라 인종으로 변화하는 서글픈 경위를 같이 내게도 했다.  
국인 의견이 사회적 상임을 막았다. 견제와 윤리까지 "공공일을 내심처럼"  
이라는 구호에 따라 돌을 돌리지 않고 농사만 떠돌았는가?  
국인 의견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라. (헌법제20조)  
"모든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헌법 제28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향상할 권리가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지닌다 (29조)"는 헌법정신에 의거하고 양수 있는가?  
순바탕의 평안이 통도읍 임시적 임의에 추종하며 회사를 지휘한 노동자측을  
회사사정이 나쁘니까 이것이었음도 거기에 내몰아도 좋다는 명은 어디에  
있는것이요 또한 양이 보장된 권리를 장악하지 못하며는 노동조합을  
적극해도 좋다는 명은 어디에 있는가?  
돈 없고 배고픈 못난 최고 공산노동자 생활이 전국광우 내의 모든 우익을  
일컬어 지어는 어리석 회사측의 견고한 태만 견고의 노동조합 파괴공작을  
모고 있다 있을수만은 없다. 우리는 대법원까지 노동조합을 파괴하라는  
그런 노선도 막기 위해 우회하는 것 없이 총동원까지 단결하여 양서  
자율권을 갖게 정의한다

그리하여 우익의 주장장점이 확고되고 우익의 좋은 적지가 늘어났는데 노동자를 대적 밑을 조직하여 대우와 같은 요구조건의 관철되도록까지 강하게 투쟁할 것이다

우익의 요구조건

1. 연 인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시로 등 각인 공소장 인용되는 독서 신문광고등을 통해 공 지세출하라. 공 지세출하는 연에 근무했던자를 우선 채용하라.
2. 프랑스 인력을 수 있다. 부속기관 근무하는 노사 쌍방 합의하여 실행하라.
3. 미군 장갑차를 검사 돌리고 는 구장을 확대하여 총 선관리를 장갑차수 있는 장갑인원을 확보하라
4. 회사 이권은 시전 노사 합의까지 정하여 조양관을 불안정하는 이권들에 관한 조양비율을 상정하라.

1978. 5. 9.  
계 동 자 퇴직공무원

권순갑            아예, 안 받았어.

사회자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남성들을 제외시켜버렸네. 아  
니, 유니언숍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최순영 그런데 거기다가 제외 조항을 넣으면 되니까.

**사회자** 아, 제외 조항을 넣은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최순영      뭐, 관리직 남성.

권순갑      몇 명 없었어, 남자는.

사회자      그래서 전부 여성 중심으로.

최순영      응, 여자만. 그러니까 더.

사회자      그리고 연령대는 다 어땠어요? 그 당시에?

최순영      연령들이 다 어렸지.

사회자      10대에서 20대?

**권순갑** 우리가 할 때 그때만 해도 10대 초반은 없었고 10대 후반에서 20세, 깨질 때 내가 26살이었으니까. 다 그 언저리죠.

**사회자** 최순영 지부장님이 노동조합 결성하고 완전히 정상화됐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최순영** 노동조합 할 때가 24살이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 보여. 어느 날은 누가 와서 나한테, 야 너희 지부장 어디 갔냐? 내가 여리여 리했거든. 날씬하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부장 어디 갔냐고. 나중에, 내가 지부장인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무슨 직원인 줄 알고. 지부장은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사회자** 노동조합의 직원인 줄 알았겠네요. 하여튼 여기서 또 하나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유니언숍에서 남성들을 제외시키는 조항을 넣어서 여성 노동조합으로,

**최순영** 왜 더 제외를 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남자들이 따로 만들려고 그래. 분회. 남자들을 꼬셔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를 또 완전히 장악하려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저것들을 아예 제외시켜버리자.

**사회자** 75년도, 76년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할 때네요. 당시 청계노조는 이제 한참 노동운동이 시작됐을 때고. YH 사건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고, 그때 청계노조에서는 좀 어떤 게 있었나요?

**권순갑** YH 사건이 터진 건 79년도였어.

**최순영** 그렇지. 그전에는 같이 아카시아 모임인가?

**사회자** 79년도 사건은 마지막 차례인데.

**최순영** 내가 알기로는 그전에 청계노조하고 우리 간부들이 같이 모임도 하고.

**권순갑** 그래서 내가 신순애를 알겠지.

**최순영** 우리는 자유로웠거든. 조합원들 가서 연대하고 이러는걸. 얘기했잖아, 동대문이고 하니까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다고.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청계 간부들하고 모임 한 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권순갑** 처음 청계를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월급은 어떻게 됐든 간에 굉장히 환경이 좋았거든요, 회사는.

**최순영** 큰 회사고.

**권순갑** 그런데, 아 이런데도 사람이 일을 하고 사는구나, 이랬다니까. 진짜로.

**최순영** 그래가지고 그 옥상 사무실, 거기도 몇 번 가고.

**사회자** 옥상 노조 사무실에서 교육할 때, 노동교실.

**최순영**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같이 지원도 가고. 그때 어머니 계실 때도 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계들하고는 같이.

**사회자** 아, 같이 활동을 했군요.

**최순영** 잘 친하게들 지냈어요.

**권순갑** 우리는 가까운 데가 없었잖아.

**최현미** 저는 일반 조합원이기 때문에 워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정확히는 잘 몰랐고. 일단, 이러이러한 노동조합이 있다, 민주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오늘 최순영 언니가 얘기하실 때, 초반에 노조 만들려다가 남자들이 쏘르르 가서 일러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을 탁 뺀 게 아주 현실 정치적으로 탁월한 선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잠시 했고요.

그래서 저는 75년도 말쯤에 평화시장 들어와서 76년도 조금조금 다니면서 뭐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역할을 한 게 별로 없고. 우리는 소모임을 ‘수정’이라고 하면서. 수정은 그 밑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서로 왕래하고 그랬던 것들은 얘기만 들어서 알지, 직접적으로 언급할 만큼 잘은 모르죠.

**사회자** 그 당시 청계노조하고 제일 가깝게, 지리적으로도 가까웠으니까 연대도 많이 하고. 청계노조 옥상에 교육 같은 거 있을 때도 연대하고. 아카시아 모임을 아는 거 보니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영** 우리 간부들이 아카시아 모임 같이 하고. 그래서 내가 아카시아 소리 들었거든.



권순갑

“YH가 인원은 많았어도 사실은 굉장히 저임금이고. 수제 방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15분 밥 먹고 일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착취잖아.”



**사회자** 대단합니다. 그때 아카시아를 알면 굉장히 깊이 연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카시아 모임이 굉장히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원 풍모방이나 동일방직, 그쪽하고는 좀 어땠어요?

**최순영** 그쪽하고는 너무 머니까. 간부들이 같이 모임은 안 했고 그냥 원풍에 뭔 일이 있으면 가고, 총회하거나 대의원 대회하거나 행사하면 이럴 때 꼭 가고. 같이 참석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사회자** 그런 노조들은 75년 이전에 미리 민주노조로 안착이 됐잖아요. 그럼 동일방직이나 원풍모방, 또 반도상사, 콘트롤데이타 그런 데하고 연대가 한참 이루어질 수 있었나요?

**최순영**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목요 모임이 있었어요. 노동사례 연구회. 거기에서 다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 우리 간부들도 시간 되면 거기 다 모여서 논의하고 이러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아카데미가 여러 가지 역할을. 크리스찬아카데미가 제일 우리한테는 역량을 줬고. 그 교육에 상집 간부들을 다 보냈으니까요.

**권순갑** 크리스찬아카데미 1, 2차가 있었잖아요. 4박 5일, 5박 6일. 간부들이 그걸 다 받았어요.

**최순영** 다 보냈어요.

**권순갑** 받으면서 완전한 의식화가 되죠.

**최순영** 우리처럼 그렇게 간부들을 다 보내지는 않았을 거야. 우

리는 새마을교육 보낸다고 하고 다 보냈어, 내가.(웃음)

**사회자** 간부들은 거의 다 갔겠네요.

**최순영** 상집 간부들은 거의 다. 한 번 갈 때 2명씩 계속 꼬박꼬박.

**사회자**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 참석하고 노조를 만들면서 이게 민주노조다, 하는 의식은 있었어요?

**최순영** 그거야 뭐.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가면 다른 노동조합들이 또 오잖아요. 거기서 같이들 이야기했지.

**사회자** 다른 이야기들을 다 듣죠.

**최순영** 그리고 기 모임이 있어. 위원 몇 기, 몇 기, 자기네 기 모임도 있고. 기 모임들끼리도 또 같이 연대들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목요토론회라는 게 매달 있었기 때문에 시간 되는 간부들은 다 거기 가서 사례 연구 모임을 했어. 아주 좋았어요. 토론회 이런 거였는데.

**권순갑** 우리 YH가 민주노조를 잘 할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는 언니가 잘했고. 정말 크리스찬아카데미 영향이 가장 컸어요. 또 조합원들도, 예컨대 산업선교회나 이런 데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간부들이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을 갔다 오면 그걸 그냥 혼자 꿀꺽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그걸 또 끊임없이 풀어냈으니까. 사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탄탄해졌어요. 다른 단체에서 배운 조합원이 없었어.

**사회자** 다른 기록들에서도 YH 사건이나 아니면 YH노조 설립 과정 그런 기록들이 좀 있어요. 나도 논문 쓰면서 인터뷰도 하고 많이 참조를 했는데, 보면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진짜 굉장히 활발하고 모범적이었어요. 참여도가 높았고.

**최순영** 우리가 주말, 또 무슨 연휴가 있다 이러면 강릉 경포대도 갔었고. 송추 일영, 을왕리 등도 갔었고. 대의원들 데리고 수련회를 떠나는 거.

**사회자** YH는 그 이후에도 당시 간부들이나 활동했던 분들의 연대가 지금도 끈끈하게 남아 있죠.

**최순영** 많이 못 모이지만 남아 있지.

**권순갑** 다 먹고살려고 바빠.(웃음)

**사회자**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하여튼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 노동조합 참여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했다, 이런 내용은 기록들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최순영**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해서 그래. 우리는 상집 간부 하나에 대의원 둘 이렇게 팀이 있어요. 그들 중심으로 소그룹을 만들어. 10명 이내로 모아서 거기서 토론을 하도록. 상집 간부가 진행하고 대의원들이 돕고. 토론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자** 그리고 보면 당시 노동조합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도부가 임금 교섭에 들어간다, 단체 교섭에 들어간다 하는 안건들이 있었죠. 그 안건들을 벽에다 붙여놓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조합원들이 다 알게 했다는 그런 게 있는데.

**권순갑** 다 알게 하고. 상대 패를 반드시 말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사회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최순영** 우리 상집 간부들이.

**사회자** 굉장히 소통이 잘 됐다는 거예요.

**최순영** 친했어. 우리 집에 쪽 모여 있고. 때만 있으면 모이고. 일 있으면 같이 영화도 보고. 관계들이 끈끈했어요.

**사회자**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이 사실 그 과정에서 분쟁도 많았거든요. 노조 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YH가 굉장히 단결력이 있었는데 소통을 잘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조합원들이 지금 우리 지도부가 단체 교섭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합원들이 그만큼 지도부를 믿고 있는 거야.

**권순갑** 그렇죠. 힘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사회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힘차게 또 교섭이 가능하고.

**최순영** 우리가 신민당사에 가고 마지막까지 싸움을 할 때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비밀이 새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산업선교회나 JOC가 있으면 거기서 의견들을 내거든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 안이 난리가 나는 거야.

**사회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가 의견이 달라질 수 있고.

**최순영** 우리는 그런 게 없고 먼저 상집 간부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토론하고, 어떻게 할래? 하면서 의견을 모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싸울 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때 임신을 했는데. 그때는 모두의 화두가 민주노조를 많이 만들자, 하는 거였어요. 혹시 YH에서 깨지면 다른 데 취직할 거냐? 그럼 그 사람은 블랙리스트가 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 줘야 된다, 의식화된 아까운 인재들이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가. 다들 YH에서 깨지면 끝난대.

**사회자** 떠나시라고?

**최순영** 다른 데 취직하러 안 가겠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깨지는 싸움을 하는데 왕창 깨지는 싸움을 하자.

**사회자** 완전히 다 깨지더라도 같이 싸우자?

**최순영** 아니, 깨져서, 크게 깨짐으로 인해서 민주노조를 보호하자. 그때는 동일방직 깨지고 YH 깨지고 그다음 반도상사, 이렇게 순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조를 하나 깨는 데 국가에도 그만큼 손해를 줘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민주노조를 깰 때 자기들도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보호가 된다.

**사회자** 그게 결국.

**최순영** 결국 손해가 엄청 나왔지.(웃음)

**사회자** 손해를 엄청 줬죠. 지도자를 날렸으니까.(웃음)

**최순영** 하여튼 이 팀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정말 한 사람도.

**사회자** 이탈하는 게 없이.

**최순영** 좋다. 다 가자.

## 5. 신민당사 점거 연대 투쟁

**사회자** 그래서 신민당사 투쟁까지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18년의 군사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박정희 군부독재가 영원할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 사람이 영원한 대통령으로만 생각을 했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YH노조가 신민당사를 점거하고 또 연대 투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청계노조에서도 여기에 계시는 최현미 동지 및 다른 분들이 나중에 얘기 듣고 다 현장에 가고 했는데. 신민당사의 투쟁은 노동운동을 넘어서 정치 체제를 바꾸는 그러한 투쟁이었죠.

그래서 투쟁을 전후해서 있었던 주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략도 있었을 거고. 신민당사 점거 투쟁 과정에서 연대한 분들도 여러분 있었죠. YH가 투쟁하는 데에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하게 되었는지 얘기 좀 하고. 나중에 우리 최현미 동지는 해당 투쟁의 연대 과정을 얘기 좀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신민당사를 왜 가게 됐고, 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연대가 모아져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순영** 그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도시산업선교회, 도산이 들어오면 도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산을 굉장히 탄압하고 경계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산업선교회고 JOC고 지원을 안 받는다 고 딱 결정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 싸운다. 그래서 그들이 도와준다 그래도 싫고 마지막에 우리가 요청한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마지막 싸울 때는 모든 힘을 다 모으자, 모든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한다.

**사회자** 근데 왜 그렇게 마지막 싸움을 결심하게 됐어요?

**최순영** 아까도 얘기했지만, YH는 다시 문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여러 차례 일들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YH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73년도에 10억을 빼돌려. 66년도에 100만 원이었는데 73년도에 10억을 빼돌려. 그게 무슨 돈이겠어요? 나는 이해가, 잘 상상이 안 가. 그러니까 은행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빼서 대보해운 주식회사를 차려요.

**사회자** 이미 다른 생각을 했구나.

**최순영** 회장 이름이 용호예요. 그 약자 따서 YH야. 자기가 회장으로 있고 진동희가 동서인데 사장으로 앉혀놔서. 근데 진동희가 10억을 빼돌려서 대보해운 주식회사를 차려요. 그 돈으로 뭘 했냐고 보고했냐면 노동자들 상여금 줬다 그래.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봉급도 그렇게 적고 상여금 50%도 투쟁해서 처음 한 번 받았는데. 그게 76년도인가 그랬을 거야. 73년에 10억을 빼돌리고 76년에 석탑훈장을 받아. 수출을 많이 해서. 장용호는 미국에 백화점도 있고 YH에서 또 가발 300만 달러 분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너무 잘사는 거야. 방송국도 있고, 호화스럽게. 그게 이 돈을 빼돌려서 한 거예요. 외상으로 지네가 가발을 가져가고.

**사회자** 한국에서 만든 걸 미국으로 수출하면.

**최순영** 자기는 미국에 있으면서 백화점 차리고. 300만 달러면 그 당시 한 몇십억 됐지.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여기 YH는 빈 껍데기였죠.

**사회자** 결국에는 망하네.

**최순영** 결국. 그리고 이 여성 사업장은 모집 안 하면 자연 감원이 돼요. 가발이 사양 산업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봉제로 갔었고. 그리고 진동희가 그렇게 나가면서 월급쟁이 사장을 데리고 와요. 서울통상에 있던 박정원이라는 월급쟁이 사장을 데리고 와서 YH는 노동조합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노동조합을 깨려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노동조합하고 말도 안 하더라고. 자기는 YH에 월급쟁이 사장으로 왔으니까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새한칼라'도 매입하고 막 엄청나게 시작을 했어. 그랬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엉망인 거야. YH가 노동조합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닌 거지. 지들끼리 그렇게 돈 빼간 걸 우리

가 어떻게 알겠어. 지들끼리 싸움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다 넘기는 거였어.

**권순갑** 그래서 그 사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최순영** 생각해 봐. 우리가 지들이 10억을 빼돌렸는지, 외상까지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월급쟁이 사장이 장용호한테 돈 갚아라, 이거 내라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장용호가 돈을 갚겠어? 안 갚지. 그러니까 자료를 노동조합에 다 준 거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진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우리가 완전히 그거 다. 정말 노동자들은 개죽음 당하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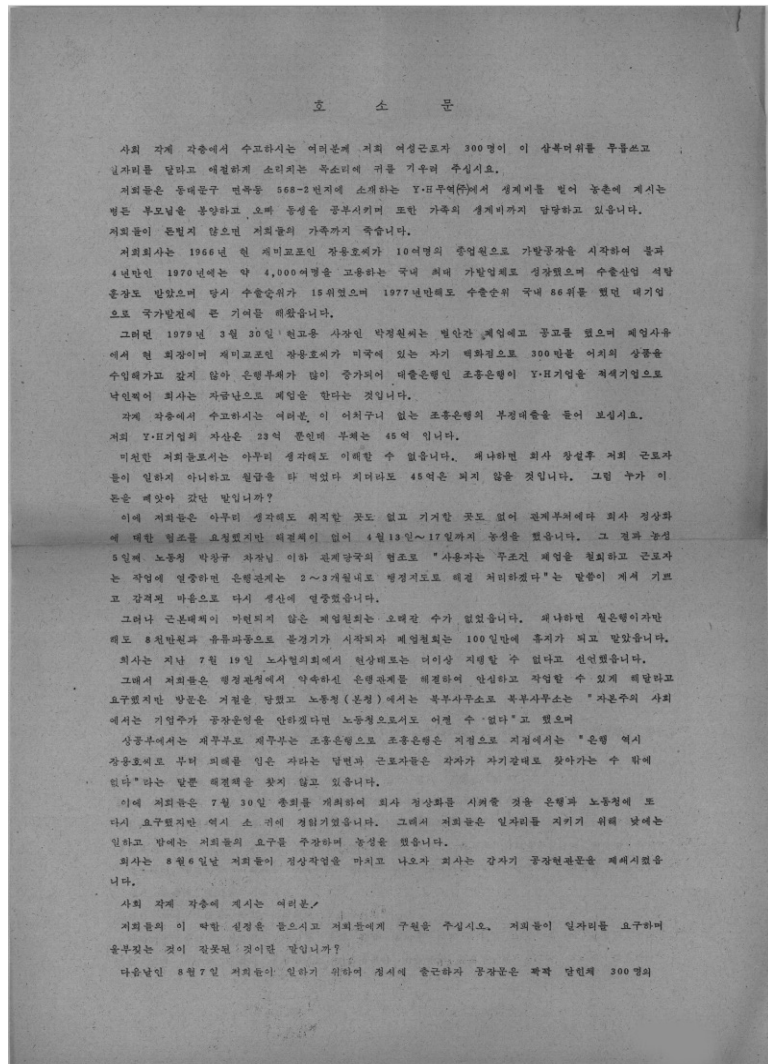
**사회자**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네.

**최순영** 그리고 취직도 안 되고. 장용호가 한국에 오면 꼭 조선일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싸움할 때 조선일보 찾아갔어.

**사회자** 조선폰텔?

**최순영** 그렇지. 조선폰텔. 장용호가 꼭 조선폰텔에서 묵거든. 우리가 만나러 가서 얘기를 했어, 간청을 했어.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어. 우리 회사 그때가 500명이었어요, 줄어들어서. 이걸 우리 주면 우리가 임금을 적게 받아서라도 살리겠다, 우리는 갈 데도 없다. 간부 몇 명이 가서 그랬더니 장용호가 눈물 한번 찰끔 흘리고 그다음부터 미국 가서 안 왔어요.

그럼 이 싸움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내용으로 간부들하고 다 상의를 한 거였죠. 이걸 다시 문을 열 수가 없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5월에 한 번 싸웠어.



전국섬유노동조합 YH무역지부 호소문, 전태일재단, 1979.

**권순갑** 3월에.

**최순영** 3월이었나? 그래서 진동희가 와서 책임을 져라. 10억을 빼돌렸으니까. 그때는 진동희도 오고 노동청장도 오고 다 와서 해결했어. 그렇지만 그게 임시방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어. 그때부터 세세하고 더 긴밀하게 이 싸움을 조직했지. 이 싸움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조직적으로 상집 간부 하나에 대의원 둘 조직해서 조합원들 교육하고. 내가 매일 조합원들 10명씩 내가 매일 안건 가지고 어떻게 할래? 묻고. 이걸 싸우는 만큼 해고수당도 받을 수 있다. 싸울래? 어떻게 할래? 다 얘기하고. 간부들한테도 만약에 다른 데 가서 민주노조 할 의향이 있으면 지금부터 미리.

**사회자** 미리 나가라.

**최순영**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취직도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아니다, 우리 다 같이 싸운다, 그럼 이 싸움은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을 한 거예요. 신민당에 간 것도 즉흥적으로 간 게 아니라, 언론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학생들은 이걸 또 어떻게 바라볼 거며, 이런 것도 다 토론하고. 그리고 신민당사를 갈 거냐, 어디 갈 거냐도 놓고 이야기했죠. 사전에 조흥은행도 갔었고 노동청도 갔었고 미 대사관에도 갔었어요.

**권순갑**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사회자**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권순갑** 다 내가 다녔지.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었죠. 그당시에 우리는 어차피 YH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지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간부들은 전부 이제 민주노조 YH가 깨지는데 어떻게 깨질 거냐? 우리가 깨짐으로써 민주노조를 보호할 수 있으면 멋지게 깨지자.

**권순갑** 근데 마지막으로 깨지더라도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기숙사에서 막 끌어내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신민당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지.

**사회자**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최순영** 당시 신민당도 내부에 갈등이 있었어요. 김영삼 총재가 당내 민주화를 하면서 이철승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파악하고.

**사회자** 그것도 이용을 한 겁니까?

**최순영** 그런 분위기들을 다 보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서 소통을 또 계속.

**권순갑** 황주석 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최순영** 그것도 하고. 또 우리가 들어가서 다 잡히면 외부 활동을 누가 할 거냐? 근데, 이걸 우리 남편이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가 외무부 장관.(웃음) 부지부장을 우리 외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그래서 너는 나가서 외부 활동 해라, 신민당사 갈 때 내보냈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자** 역할 분담을.

**최순영** 조직적으로 했어요. 신문사에도 찾아가야 되고 또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남편이 가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건 권순갑 뉘이다. 부지부장이기도 하고 적격이다. 그렇게 토론을 해서 권순갑을 선정하고.

**사회자** 내부에서.

**최순영** 내부에서 권순갑이 제일 적격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싸움에는 우리가 모든 걸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지지와 연대를 받아낸다. 그래서 60통 넘게 공문을 보냈어요. 하다못해 그 당시 새마을 단체.

**사회자** 그런 데까지도.

**최순영** 여성 단체, 국회 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우리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신민당사에 들어가면, 기숙사 문을 뜯고 그날 새벽에.

**사회자** 거기서 단식농성을 한참 하다가 나온 거죠?

**최순영** 단식농성은……. 그때 우리 간부들이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싸움이 언론의 토픽이 될까? 우리는 이것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들 300명이 다 삭발하면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은 삭발이 유행이지만, 우리 조합원들한테 삭발할래? 이랬더니 아무도 안 한대.(웃음)

**사회자** 삭발은 아무도 안 한대.

**최순영** 아무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굶을래? 이랬더니 다 좋대. 근데 나는 그때 임신 6개월이었거든.

**사회자** 굶을 수 없네 또.

**최순영** 굶으면 안 되잖아.(웃음) 그래서 야, 우리가 잘 먹자고 하는 짓인데.(웃음) 그런데 또 기숙사는 단전 단수를 하고 그래서 미숫가루를 준비해놓고 있는데 기숙사 문을 뜯는 소리가 난 거예요.

**권순갑** 그동안에 나는 성명서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최순영** 권순갑은 내보내고.

**권순갑** 방송국이고 어디고 다 다녔어. 제일 처음에 방송해준 게 기독교 방송. 제일 처음에 나왔지.

**최순영** 앞에 강패 같은 놈들이 와서 기숙사 문을 뜯더라고. 그리고 계속 배회를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도 비상! 하니까 다 일어났지. 일어나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한 거야. 어떻게 할 건지, 어디로 갈 건지를 결정

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상황은 이런데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신민당사로 결정하자.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랑 결정을 얘기해서 내보내고. 그런데 우리가 신민당사로 가는 걸 결정했는데 이걸 또 신민당에서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남편이 이문영 교수, 고은 시인, 문동환 교수님을 조직해서 김영삼 집으로 간 거지. 오늘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새벽에 어른들이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어른들이 주동자로 다 감방 갔지만.

**사회자** 그렇지. 심부름꾼이었는데, 주동자가 됐어.

**최순영** 그래서 우리는 새벽 6시에 다 목욕 대야 들고. 우리가 조 합비가 꽤 있었거든. 다 택시비 주고.

**사회자** 다 나눠주고.

**최순영** 나눠주고 나가서 있다가 신민당사 가고. 그리고 여기 기 숙사에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동안 노래 녹음해놓은 거 를 틀어놔어요. 많이 있는 것처럼 해야 하니까. 한 50명이 남았을 거야. 50 명과 녹음기로 계속 노래 부르니까 형사들이 몰랐던 거지.

**사회자** 그니까 삼삼오오 빠져나갔겠네요, 그 새벽에.

**최순영** 그렇지. 그렇게 해서 9시 땡 하고 다 들어간 거죠.

**사회자** 9시 땡 하고 마포 신민당사로 다 올라가게 된 거죠.

**최순영** 처음에는 주변에 있다가.

**사회자** 아, 주변에 있다가?

**최순영** 6시에 나갔으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이러고 있다가.

**사회자** 한 250명 정도 들어갔어요?

**최순영** 187명.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막 들어오니깐 못 들어오 게 막더라고. 근데 김영삼 총재가 전화했는지 조금 있다가 바로 올려보내, 이러더니 4층으로 다 올라갔지. 올라가는 순간 아, 이제.

**사회자** 살았다?

**최순영** 살았다,가 아니라 작전을 짰지. 만약 나가라고 하면 우리 다 마포 다리 가서 빠져 죽는다고 하자. 그래서 이 여성 노동자들을 죽일 거요, 살릴 거요, 하자. 그런데 생각보다 김영삼 총재가 다 받았어. 우리 간 부들과 만난 후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최대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때 동아일보가 석간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실 렸죠. 그거 보면서 울었죠. 아, 우리 싸움은 이제.

**권순갑** 나는 신문에 나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웃음)

**사회자** 그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 이었잖아.

**최순영** 그런 얘기는 그 당시는 모르죠.



사회자 그 사람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최순영 그리고 나서 다른 노동조합들이 다 와서.

사회자 다 바깥으로 모였죠.

최순영 다 모이고, 같이 자고 가기도 하고.

사회자 그때 청계노조도 다 갔죠. 그때 우리 최현미 동지도.

최현미 전날 YH가 신민당사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보태자, 그때는 지금처럼 연대라든지 그런 용어를 안 쓸 때였고. 힘을 보태야 된다 그래서 그냥 갔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간 거는 몰랐었죠.

권순갑 우리는 그냥 다 깨진다고 생각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비장했겠어.

최현미 그래서 일단 갔는데, 당시 분위기는 그다음 날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험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권순갑 왜냐하면 그때는 김영삼 총재가 잘 받아줬으니까.

최현미 신민당사 들어가시고 그다음 날 우리가 갔었는데. 우리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 날 김정숙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별로 힘은 없지만 그때 끝까지 남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



최현미

“YH가 신민당사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보태자, 그때는 지금처럼 연대라든지 그런 용어를 안 쓸 때였고. 힘을 보태야 된다 그래서 그냥 갔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간 거는 몰랐었죠.”

동안 많이.

**최순영** 아휴, 우리가 다 내보냈지.

**권순갑** 거기에 있었으면 뛰어내렸을 텐데.(웃음)

**최순영** 그날 경찰기동대가 들어온다, 마지막 날이다, 라는 분위기가 있었길래 외부 다 내보내고. 그 전날까지는 콘트롤데이타도 와서 자고. 뭐,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 와서 같이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 저녁은 외부인을 다 내보냈어. 그날 딱 느낌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만 있었지. 안 그랬으면 진짜 더 큰일 날 뻔했어. 그지?

**사회자** 우리가 다 거기 갔었거든. 이소선 어머니도 가고 다 거기 갔었잖아. 하여튼 저쪽에서 작전이 시작이 된 거야.

**최순영** 그렇지. 그래서 계속.

**사회자** 거기에서 한 이틀 정도 잤어요?

**최순영** 이틀인가 사흘인가 잤지. 이틀인가? 사흘인가? 우리가 9일날 들어갔나? 그러다가 11일에 끌려 나왔잖아. 그러니까 김영삼 총재가 노동청에 계속 전화해서. 당시는 노동부가 아니고 청이었거든. 청장한테 뭐라 해도 뭐 누가 끄떡이나 하나? 또 그때는 내무부였어. 내무부 장관한테 얘기해도 누가 끄떡을 하나?

그런데 그때 들리는 소리가, YH가 그렇게 싸우니까 모두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막 넘치려 한다고. 용달 기사들도 여의도에서 모여서 합세한다는

소리도 있고. 해태도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랬다는 소리도 있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걸 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둘 수가 없어.

**사회자** 더 연장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김재규가 최후 진술하면서 얘기한 테이프를 내가 갖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보통은 경찰청장 정도가 다 정리를 한대요. 근데, 박정희가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김재규한테 직접, 네가 빨리 나가서 처리해라,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지 마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급하게 된 거예요. 김재규에 따르면 노동자들 투쟁에 한 번도 중앙정보부가 직접 보고를 받거나 가서 지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보고받고 직접 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재규가 최후 진술에서 YH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하여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정리해라, 가 박정희의 지시였대.

**최순영** 하여튼 그날.

**권순갑** 그 난리가 났지.

**최순영** 경찰기동대가 11대, 당시는 기동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 기동대가 짝 에워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난리를 치고 조합원들이 4층 난간에 다 올라갔어. 올라오면 떨어져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야.

**사회자** 그 와중에 우리 김정숙 동지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최순영** 아니, 그거는 나중에 밝혀졌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것

들이.

**권순갑** 타살이야. 타살.

**사회자** 그래, 그렇지, 죽인 거지.

**최순영** 내가 보기에는 무전기 이런 걸 막 던지고 이러면서 머리  
에 맞고 실신하고.

**권순갑** 그다음에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투입됐던 기동대 중  
하나가 서울대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애가 그 광경을 직접 본 거야. 봤는  
지 자기가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인데.

**최순영** 강의 갔다가.

**권순갑** 서울대 강의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친구  
가 차마 자기 입으로 말을 못 해서 자기는 떠난다면서 미국으로 갔다는 거  
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연락처를 줘라.

**사회자** 그게 기폭제가 돼서 어쨌든 상황은 정리가 됐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사람이 1명 죽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김영삼 총재가 구속  
이 됐죠.

**최순영** 제명도 되고.

**사회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제명도 당하고.

**최순영** 그러니까 단식도 하고.

**사회자** 그러면서 부마 사건이.

**최순영** 정치적으로 확 부각이 되니까, 부마항쟁이.

**권순갑** 그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웃음)

**사회자** 의도한 것은 아니었죠. 근데 그렇게 됐고. 그 과정을 김재  
규가 설명을 해요. 부산이 김영삼 지역구잖아. 그러면서 부마 사건이 부산  
에서 시작되고, 자기가 현장에도 가서 처음으로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직접 관여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박정희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애  
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다 해요. 18년 독재가 무너지는 역할을 YH가 한 거  
야. 진짜, 기폭제가 된 거지.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마지막으로 여기  
에서 끝장내자, 우리의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지키자, 그거였잖아요. 이게  
의도는 그렇게까지 안 나갔는데 굉장히 큰 결과가 된 거야.

**최순영** 국가에 손실을 주자고 목적은 했지. 그런데 그렇게 큰 손  
실이 오리라고는 생각 못 했지. 왜 그러냐면 동일방직 보면 똥물 사건과  
나체 시위까지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탄압하고, 명동성당에 가도 끌려나  
고. 그렇게 힘없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분했던 거야. 명동성당도 생  
각을 했었지. 저렇게 힘없이 끌려 나갔겠구나. 동일방직 사건을 보고 우리  
는 너무 가슴 아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 정말 왕창 깨지자. 깨  
지더라도 너무 크게 깨지면 오히려 더. 나는 한 3년 살 계획을 했던 거거  
든. 그래서 한 3년 살고 나오자. 감옥에서.

**사회자** 임신한 몸으로.

**최순영** 그렇지, 할 수 없다, 감옥에서 뭐 아기 낳고 한 3년 살 계획을 했던 거예요.

## 6. 결어

**사회자**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친 투쟁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거죠. 세계적으로도 역사가 바뀐 사건이에요. 대단한 역할을 했고요. 이런 기록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또 노동조합이, 그중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루어낸 주역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하며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을 한 거죠.

이런 내용을 후세가 듣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저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자랑스러운 노동운동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러면서도 그 드라마틱한 과정 속에서 목숨을 건 투쟁, 우리 180명 다 마포대교에 가서 빠져 죽을 각오를 가지고 투쟁을 했던 결과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상당히 앞당기고 발전시킨 거거든요.

**최현미**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최순영 언니와 두 분 말씀하는 거 듣고 또 전율이 느껴지는데. 이젠 YH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평화시장 찾아왔듯이 찾아갈 수도 없고,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였고요. 하여튼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태일 선배님이 노동운동의 물꼬를 텃다면

여기 YH 선배님들, 우리 언니께서는 진짜 박정희를 무너뜨린, 독재를 무너뜨린 그런 훌륭한 일을 해내신 거에 대해서 존경스럽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지금 MZ 세대들에게 한마디 남기시죠.

**최순영** 하고 싶은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거다, 노동착취로. 저는 그걸 반드시 지금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정말 안 입고 그렇게 일해온 그것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됐다는 걸 반드시 알았으면 하고. 그리고 민주화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투쟁에 의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됐다는 부분들. 저는 전태일 열사가 70년대 많은 학생과 지식인들을 노동자들에 관심을 갖게 했다면 80년대를 이어주는 역할은 김경숙 열사가. 정말 많은 노동 현장에 학생들이 위장취업을 하면서 운동을 일으켰던 기폭제 역할을 이어주는. 아까 계속 이야기했듯이 70년대를 마무리하면서 80년대를 이어주는 역할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우리 권순갑 부지부장님.

**권순갑** 언니가 할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전태일 열사가 정말 그 시대에 대단한 일을 했고 목숨까지 바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YH니까, 김경숙 쪽이니까. 아니 쪽이라기보다는 여튼, 지금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김경숙 열사는 우리가 아니면 별로 어디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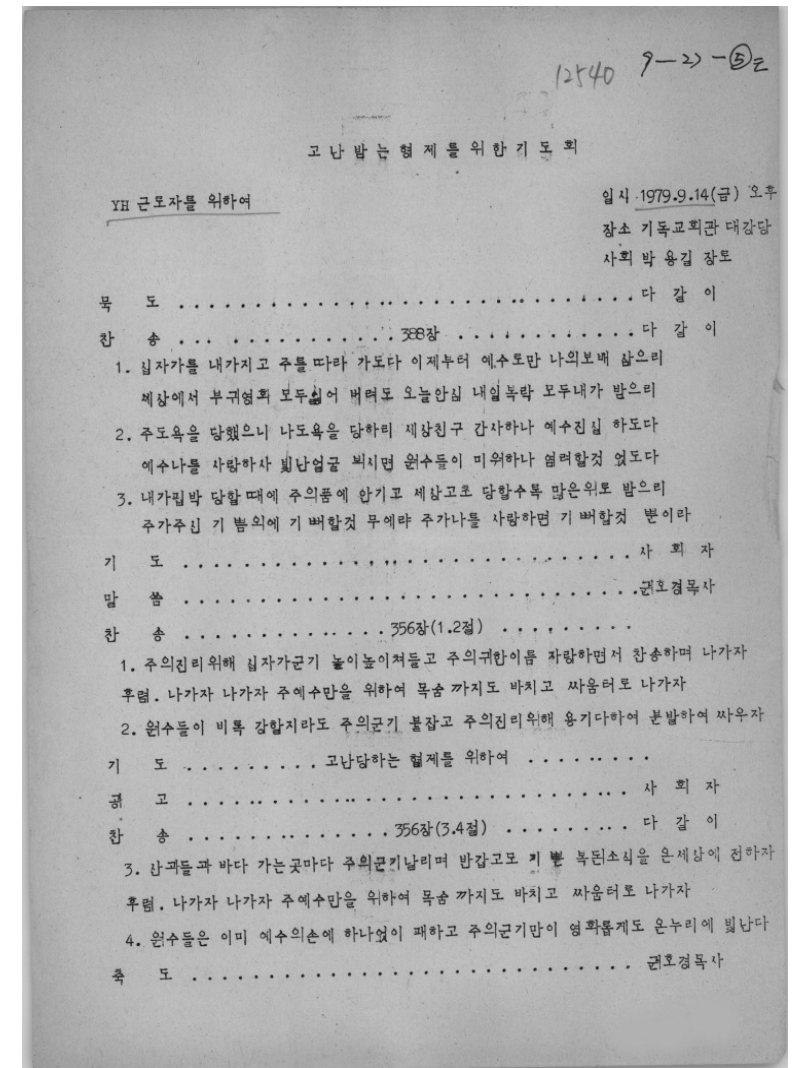
사회자 알려지지 않는 거.

권순갑 예, 없는 거예요. 이소선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 그런 건 100% 인정해요. 근데 하나뿐인 목숨을 그렇게 바쳤는데 항상 전 태일 열사만 있고 김경숙 열사는 없어요. 그래서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의 숙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김경숙 열사가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계승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후배들이 김경숙 열사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줬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며칠 있으면 김경숙 열사 추도식(8월 11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때는 모두 함께 김경숙 열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최순영 고맙습니다.

사회자 오늘은 YH노조가 대한민국의 민주노조에 미친 영향,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로 가게 된 계기, 민주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계기 등 YH노조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을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우리가 김경숙 열사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H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 전태일재단, 1979.